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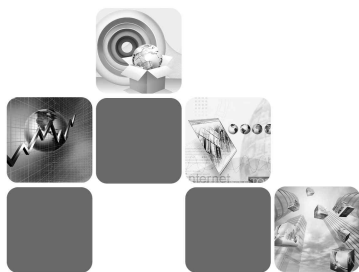
2023-8호



ISSN 2982-8317

월간 ICT 산업 동향





Contents

I. 수출 동향 1

- | | |
|--------------|--------|
| ① 개요 | ② 반도체 |
| ③ 디스플레이 패널 | ④ 휴대폰 |
| ⑤ 컴퓨터 및 주변기기 | ⑥ 이차전지 |
| ⑦ SW | |

II. 트레이드 GPS 34

1. UAE - 무선통신시스템 35
2. 디스플레이 장치(모니터) 41
3. Ex-Briefing 46

III. 부록 52

1. ICT 생산 통계 53
2. 2023년 7월 ICT 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54
3. 주요국 ICT 수출입 통계 61
4. ICT 부분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구매 금액 .. 69
5. ICT 부문별 수출입 금액 및 물량 지수 70





I

수출 동향



I 수출 동향¹⁾

1 개요

□ '23.7월 ICT 수출은 146.1억 달러(△24.3%), 수입은 114.2억 달러(△13.7%) 기록

- (수출)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IT제품 수요 부진 장기화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3% 하락한 146.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13개월 연속 내림세
 - 품목별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및 주변기기, 이차전지, 휴대폰 등 주요 품목이 감소했으며, 국가별로는 일본을 제외한 중국(홍콩 포함), 베트남, 미국, EU 등 주요 교역국 수출이 감소

표 1-1 주요 ICT 품목별 및 국가별 수출

구 분 (억 달러, %)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이차전지	전 체
전세계	75.4 (△33.7)	18.9 (△5.4)	7.2 (△19.6)	8.7 (△28.0)	7.4 (△16.0)	146.1 (△24.3)
중국(홍콩)	42.8 (△33.1)	4.8 (△27.3)	2.5 (△27.4)	4.0 (31.1)	0.3 (△50.6)	60.4 (△27.7)
미국	4.8 (△41.8)	0.4 (275.9)	1.2 (72.5)	1.5 (△69.9)	3.4 (△8.3)	17.3 (△28.3)
일본	2.0 (75.3)	0.1 (△9.9)	0.1 (△2.7)	0.4 (△12.3)	0.4 (45.1)	4.2 (23.2)
EU	1.8 (△20.3)	0.3 (△16.7)	0.7 (△53.2)	1.0 (△47.7)	1.4 (△32.7)	8.2 (△24.9)
베트남	7.5 (△43.1)	11.7 (4.9)	1.2 (△29.8)	0.6 (58.6)	0.2 (△60.4)	25.2 (△18.6)

자료 : IITP, KTSPI

- (수입) 전년 동월 대비 13.7% 감소한 114.2억 달러를 기록하며 8개월 연속 하락
 - 휴대폰(7.7억 달러, 28.2%↑), 이차전지(7.7억 달러, 24.9%↑) 등은 증가한 반면 반도체(51.8억 달러, △22.8%), 컴퓨터 및 주변기기(12.0억 달러, △20.2%), 디스플레이(4.4억 달러, △5.2%) 등은 감소
- (무역수지) 중국(홍콩 포함, 19.2억 달러), 베트남(13.6억 달러), 미국(10.9억 달러), EU(1.4억 달러) 등 주요국에 대해 흑자 기조를 유지하며 총 31.9억 달러 흑자를 기록

표 1-2 ICT 및 전체 산업 수출입 동향

구 분 (억 달러, %)		2023년		2022년	
		7월P	1~7월P	7월	1~7월
수출	전체 산업	503.3 (△16.5)	3,575.1 (△13.0)	602.4 (8.6)	4,107.5 (14.5)
	ICT	146.1 (△24.3)	995.5 (△29.8)	193.1 (△0.9)	1,417.6 (15.7)
수입	전체 산업	487.1 (△25.4)	3,823.5 (△10.4)	652.6 (21.6)	4,266.9 (25.7)
	ICT	114.2 (△13.7)	796.4 (△9.1)	132.3 (16.8)	876.5 (18.2)
무역수지	전체 산업	16.3	△248.4	△50.2	△159.4
	ICT	31.9	199.2	60.7	541.1

자료 : IITP, KTSPI

1) 관세청 통관 기준 통계를 IITP가 ICT 분류체계에 맞게 재가공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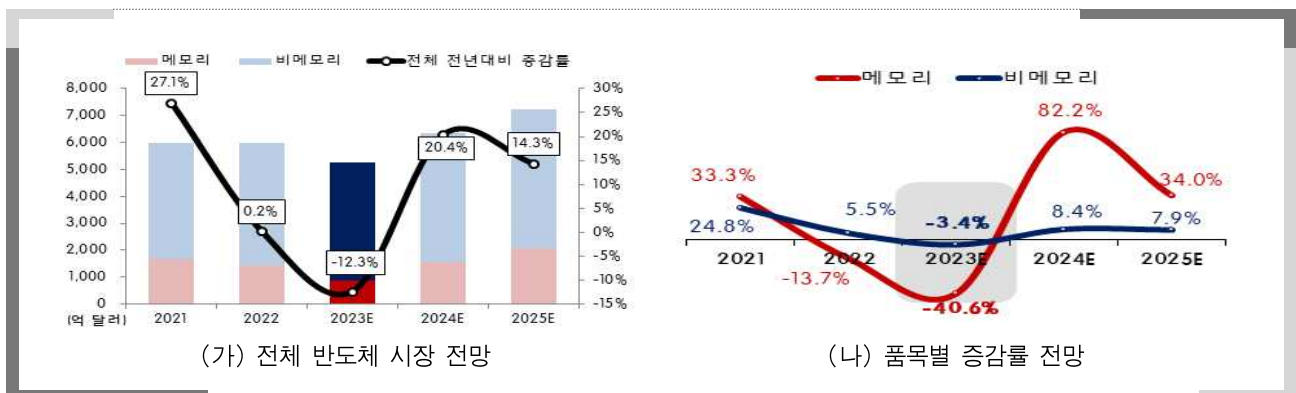
2 반도체

1) 수출 환경

□ '23년 반도체 시장, 메모리·비메모리 업황 둔화로 하락이 예상되나 내년 반등 기대

- (시장 전망) 메모리 낙폭 확대와 더불어 비메모리도 반락하면서 '23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5,25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3% 하락할 전망(Gartner, '23.6월)
 - 챗GPT 등 생성형 AI 등장에 따른 AI 반도체 중심의 고성능 메모리·비메모리 선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비자들의 구매력 약화 등으로 PC·스마트폰 등 주요 전방 산업 회복이 지연. 이에 따라 4년 만에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하며 하락 반전을 예상
 - ※ '19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억 달러) : (전체) 4,223, △11.3%, (메모리) 1,097, △32.6%, (비메모리) 3,126, △0.2%
 - (메모리 반도체 : 850억 달러, △40.6%) 서버 업체들의 AI 관련 투자를 제외한 재고 조정 지속, 소비자용 IT제품 수요 회복 지연,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하락세 등 불황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이에 따라 '16년(805억 달러, 1.6%↑) 이후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하회할 전망
 - (비메모리 반도체 : 4,409억 달러, △3.4%) 3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고인플레이션, 주요국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경제 위축 등으로 세트 업체들의 판매가 부진. 이에 따라 고객사들이 주문을 축소하면서 파운드리 가동률이 하락하는 등 '19년(3,126억 달러, △0.2%)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 예상
 - ※ 글로벌 파운드리 가동률 추이(Gartner, '23.7월) : ('21년) 97.6% → ('22년) 93.2% → ('23년E) 82.4% → ('24년E) 88.5% → ('25년E) 88.7%
 - 다만 메모리 업체들의 감산 효과 가시화, 고객사 재고 감소, HPC(고성능컴퓨팅)·AI向 수요 증가, 첨단 파운드리 공정 확대 등 긍정적 요인 확대와 더불어 '23.상반기 불황에 따른 기저효과가 더해지면서 하반기 회복세 진입 후 '24년 상승 전환을 기대

그림 1-1 | 전체 반도체 시장 및 품목별 증감률 전망



자료 : Gartner, 2023.6.

□ 메모리 가격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국내 업체는 실적 개선으로 적자 완화

- '23.7월 메모리 반도체 고정거래가격은 D램이 하락, 낸드플래시가 보합을 기록하며 회복이 지연. 다만 수요 활성화 요인이 발생하면서 3분기 낙폭 완화를 기대(Dramexchange, '23.7월)
 - **(D램)** PC용 범용제품(DDR4 8Gb 기준)은 '23.1월 1.81달러(Δ 18.1%)로 하락 후 3개월 연속 동일한 가격 수준을 유지. 이후 7월 1.34달러(Δ 1.5%)까지 4개월 연속 내림세를 지속했으나 낙폭은 완화
 - ※ D램(DDR4 8Gb 기준) 고정거래가격 추이(전월 대비) : ('23.1월) 1.81달러, Δ 18.1% \rightarrow (4월) 1.45달러, Δ 19.9% \rightarrow (5월) 1.40달러, Δ 3.4% \rightarrow (6월) 1.36달러, Δ 2.9% \rightarrow (7월) 1.34달러, Δ 1.5%
 - 수요 회복 지연 등에 따른 적자 확대로 공급 업체는 감산 등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 반등을 도모하고 있으나, 고객사의 재고 수준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며 D램 가격은 하락을 지속
 - 한편 '23.3분기에는 공급 업체의 감산, AI 산업 성장에 따른 고부가 제품 수요 확대 등으로 재고 압박이 완화되면서 D램 평균판매단가(ASP)의 하락폭이 0~5%에 그치는 등 전 분기 (13~18% 하락) 대비 낙폭이 감소할 전망(TrendForce, '23.7월)
 - **(낸드플래시)** 메모리카드·USB 범용제품(MLC 128Gb 기준)은 '19.7월(4.01달러, 2.0% \uparrow)부터 4달러 대를 유지하다 '23.3월 3.93달러(Δ 5.1%) \rightarrow 4월 3.82달러(Δ 2.8%)로 하락 후 3개월 연속 보합
 - ※ 낸드플래시(MLC 128Gb 기준) 고정거래가격 추이(전월 대비) : ('22.10월) 4.14달러, Δ 3.7% \rightarrow ('23.3월) 3.93달러, Δ 5.1% \rightarrow (4월) 3.82달러, Δ 2.8% \rightarrow (7월) 3.82달러, Δ 0.0%
 - 한편 하반기 신제품 출시, 서구권 신학기 시작, 블랙프라이데이 등 IT 시장 성수기를 앞둔 고객사의 재고 확보에 따른 수요 증가가 예상되면서 '23.3분기 낸드플래시 평균판매단가(ASP)의 낙폭(3~8% 하락)도 전 분기(10~15% 하락) 대비 축소될 전망(TrendForce, '23.7월)
- 메모리 가격 하락 등 업황 둔화 요인 장기화로 국내 메모리 업체는 '23.3분기 적자를 기록했으나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 확대 등으로 전 분기 대비 실적이 개선
 -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을 영위하는 DS(Device Solution) 부문 '23.2분기 매출은 14조 7,30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7.3%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4조 3,600억 원 적자를 기록. 다만 전 분기(4조 5,800억 원 적자) 대비 손실 완화
 - ※ 삼성전자 전체 매출은 스마트폰 출하 감소 등으로 전 분기 대비 5.9% 감소한 60조 100억 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이익은 DS 부문 적자폭 축소, TV·생활가전 등의 수익성 개선 등으로 전 분기 대비 4.7% 증가한 6,700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를 달성
 - **(SK하이닉스)** '23.2분기 매출이 7조 3,06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큰 폭 성장(43.6% \uparrow)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2조 8,820억 원 적자를 기록
 - 다만 가격 하락 지속, 고객사 재고 조정에 따른 서버向 수요 약세 등에도 불구하고 양 사는 주요 데이터센터의 AI 관련 투자 확대 등에 따라 DDR5·HBM(고대역폭메모리) 등을 중심으로 고성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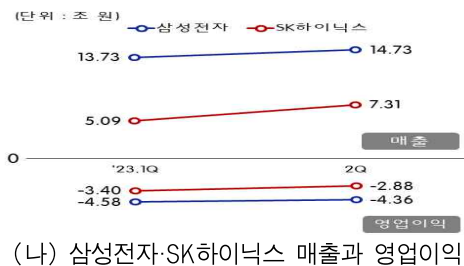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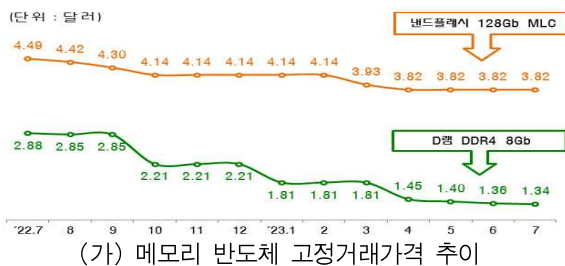
고용량 제품 출하량이 확대되면서 전 분기 대비 실적이 개선

※ 업체별 '23.1분기 영업손실액 : (삼성전자) 4조 5,800억 원, (SK하이닉스) 3조 4,020억 원

- 한편 하반기엔 플래그십 스마트폰, AI 서비스용 데이터센터 등 고부가 중심 수요 급증에 따른 업황 회복이 기대되면서 양 사는 고성능·고용량·초고속 D램 및 첨단 공정 낸드플래시를 중심으로 판매 전략을 최적화해 고객사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등 실적 개선을 위해 노력

※ AI 데이터센터 서버는 기존 대비 빠른 연산처리가 필요해 일반 데이터센터 서버 대비 약 2~8배의 메모리 반도체가 탑재되기 때문에 AI향 수요 확대로 메모리 시장이 성장하면서 업체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

그림 1-2 메모리 반도체 고정거래가격 추이 및 삼성전자·SK하이닉스 매출과 영업이익



자료 : Dramexchange 재인용, 고정거래가격, 2023.7.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 (참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메모리 업체는 낸드플래시 추가 감산을 계획
 - D램은 DDR5·HBM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가격 및 수요 회복이 기대되나 낸드 플래시는 주요 수요처인 스마트폰 시장 부진 지속, AI 시장을 공략하는 제품의 부재, 다수의 경쟁 업체 등으로 D램 대비 시장 회복이 지연될 전망
 - ※ D램 시장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3강 체제로 굳어진 반면 낸드플래시 시장은 삼성전자·키옥시아·SK하이닉스·WDC·마이크론 등 5강 체제로 이루어져 D램 대비 경쟁이 치열
 - 이에 따라 낸드플래시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메모리 업체는 낸드플래시 감산 규모 확대를 통한 재고 정상화 추진 계획을 발표
 - ※ 제품별 수요 대비 공급 비율 추이(Gartner, '23.6월 및 7월) : (D램) '23.1Q 121.0% → 2Q 109.0% → 3QE 101.5% → 4QE 93.4% → '24.1QE 89.9%, (낸드) '23.1Q 110.5% → 2Q 107.9% → 3QE 103.4% → 4QE 101.5% → '24.1QE 98.1%

□ AI향 제품 수요 증가에 발맞춰 첨단패키징 공법이 부상하면서 업체들은 투자 확대

- AI 시장 성장에 따른 고성능 제품 필요성 증가 등으로 서로 다른 반도체를 결합해 기능성을 높이는 첨단패키징 공법이 부상
 - 챗GPT 등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반도체를 통한 데이터 처리 속도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데이터의 실시간 교환 및 저장이 가능한 D램, 대규모 데이터의 동시 처리에 최적화된 GPU(그래픽 처리장치)의 성능 향상에 대한 요구가 확대

- 이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은 D램을 수직으로 쌓아 기존 대비 데이터 처리 속도를 대폭 향상시킨 HBM과 GPU를 최대한 가깝게 배치해 데이터 병목현상을 줄이고 성능을 극대화하는 2.5D 패키징 등 첨단패키징 공법에 주력하기 시작
 - ※ 첨단패키징은 웨이퍼에 새겨진 칩을 잘라 기기에 연결 가능한 상태로 가공하는 일반패키징을 넘어 서로 다른 종류의 반도체를 연결하거나 개별 칩을 높게 쌓아 적층하는 등의 발전된 공정을 의미
- 한편 AI 기술 확산에 따른 고성능 반도체 수요 증가 등으로 '21년 374억 달러 규모였던 전 세계 첨단패키징 시장은 '27년 650억 달러로 연평균(CAGR) 9.6% 성장할 전망(한국경제, '23.8월, 원소스 올인텔리전스)

○ (참고) 2.5D 패키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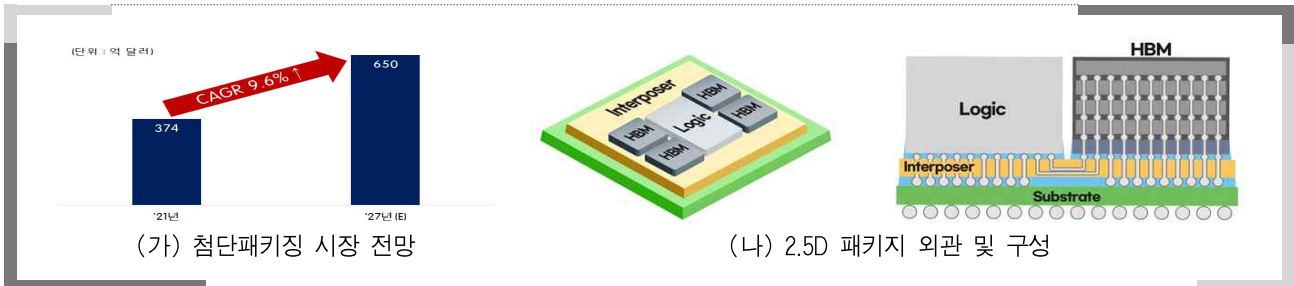
- 전통적인 반도체 칩은 개별적으로 패키징되므로 PCB(인쇄회로기판)에 조립되어 왔으나, TSMC가 2D 구조의 로직 반도체와 3D 구조의 HBM을 한 번에 패키징하기 위해 인터포저를 활용하는 2.5D 패키징 공법 도입 후 AI 반도체 시장의 주류로 자리매김
- 2.5D 패키징은 2D 방식과 다르게 기판과 반도체 칩 사이에 인터포저 등 하나의 연결다리가 추가되는 구조로 상호 연결 속도 및 대역폭 상승, 전력 소모 및 지연 감소 등의 장점을 보유
 - ※ 인터포저(Interposer)는 복수 칩 결합을 위해 사용되는 패키징 기술 중 하나로 피치(pitch, 전자가 흐르는 회로의 폭) 차이가 큰 반도체 칩과 기판(Substrate)을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삽입하는 배선을 포함해 전기적 연결, 고속 통신 등을 가능하게 하는 별도의 회로기판(그림 1-3 참조)
- TSMC가 '12년 최초로 CoWoS(Chip on Wafer on Substrate)라는 2.5D 패키징 기술을 도입해 시장을 선도하는 가운데 '17년 인텔이 EMIB(Embedded Multi-die Interconnect Bridge)를 선보였으며, 삼성전자는 '21년 아이큐브(I-CUBE)라 명명한 2.5D 패키징 기술을 공개
 - ※ 업체마다 2.5D 패키징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나, GPU와 HBM을 인터포저 위에 안정적으로 실장 가능한지 여부가 관건
- 한편 업체들은 반도체칩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3D 패키징, 2.5D와 3D 방식을 결합한 패키징 등 변형을 통해 성능과 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

- TSMC·삼성전자 등 주요 파운드리 업체들은 생산 설비 확대, 인력 확보 등 첨단패키징 시장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를 확대
 - (TSMC)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900억 대만달러를 투자해 대만 북부 지역에 첨단패키징 공장을 신설할 예정으로, '24.하반기 착공을 시작해 '27년 양산을 시작할 계획
 - (삼성전자) 작년 AVP(Advanced Packaging) 팀 신설 후 인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최첨단 패키징 협의체인 MDI(Multi Die Integration) 연합 출범을 준비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
 - ※ MDI 연합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 후공정 전문업체(OSAT), 디자인하우스 업체 등이 모여 패키징 기술 고도화를

모색하는 기구로 2.5D, 3D 등 다른 종류의 반도체 집적 기술 경쟁력 확대에 주력할 계획

- 또한 '24.2분기 4개의 HBM을 GPU 등과 함께 배치한 아이큐브4, 3분기 8개의 HBM을 배치한 아이큐브8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12개 및 16개의 HBM을 배치하는 제품 개발도 진행

그림 1-3 | 첨단패키징 시장 전망 및 2.5D 패키지 모습



자료 : 한국경제, 2023.8. (원소스, 윌인텔리전스) / 삼성전자

2) 수출 동향

□ 메모리·시스템 낙폭 확대 등 부진이 지속되면서 '23.7월 반도체 수출은 감소세

- **(품목별)** IT 시장 불황 지속, 전년 호황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메모리·시스템이 동반 하락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33.7% 감소한 75.4억 달러를 기록
 -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클라우드 업체들의 서버向 수요 감소, PC·스마트폰 등 IT제품 소비 둔화 등 전방 산업 부진 등으로 메모리 및 시스템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7월 기준 역대 최고 수출액을 달성했던 전년 기저효과까지 더해지면서 12개월 연속 내림세
 - ※ 7월 기준 역대 상위 수출(단위 : 억 달러) : (1위, '22년) 113.8, (2위, '21년) 110.3, (3위, '18년) 104.7
 - (메모리 반도체 : 36.0억 달러, △41.7%) 데이터센터의 AI 투자 확대에 따른 고용량·고사양 제품 수요 강세에도 불구하고 서버 투자 위축, 가격 하락 지속 등으로 D램·메모리 MCP·낸드플래시·복합 부품집적회로(MCOs) 등 주요 제품이 감소하면서 13개월 연속 내림세
 - (시스템 반도체 : 34.7억 달러, △25.9%) 글로벌 경기 침체 및 IT제품 수요 위축 장기화에 따른 고객사들의 주문 감소 등으로 패키징·IDM·파운드리 등 주요 공정이 감소하면서 낙폭이 확대
 - ※ 7월 시스템 공정별 수출액 및 증감률(단위 : 억 달러) : (패키징) 17.5, △29.5%, (IDM) 14.4, △8.6%, (파운드리) 1.8, △44.2%, (팹리스) 1.1, △66.0%
 - 다만 메모리 업체들의 감산효과 가시화, 고객사 재고 조정 일단락에 따른 구매 수요 회복, 고성능 제품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점진적 개선을 기대
- **(지역별)** 최대 교역국인 중국 및 국내 업체의 생산 거점인 베트남 등 주요국 수출이 감소
 - 중국(홍콩 포함, 42.8억 달러, △33.1%)은 제조업 회복 지연 등으로 메모리 MCP·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37.8%)와 시스템(△26.3%)이 감소하면서 13개월 연속 하락

- 베트남(7.5억 달러, △43.1%)은 낸드플래시(291.9%↑)를 제외한 D램·메모리MCP·복합부품집적회로(MCOs) 등 주요 메모리(△52.4%) 하락과 동시에 시스템(△43.3%)도 감소하면서 내림세 지속
- 한편 일본(2.0억 달러, 75.3%↑)은 정부의 디지털 전환 활성화, 첨단 자동차 시장 성장 등으로 메모리(△13.8%) 낙폭 둔화와 더불어 시스템(185.8%↑)이 고성장을 달성하면서 3개월 연속 오름세

표 1-3 반도체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2.7	8	9	10	11	12	'23.1	2	3	4	5	6	7
반도체	113.8 (3.1)	109.6 (△6.8)	116.8 (△4.5)	94.1 (△16.2)	86.4 (△28.6)	92.8 (△27.8)	61.5 (△43.5)	61.1 (△41.5)	87.3 (△33.9)	64.7 (△40.6)	74.7 (△35.7)	89.9 (△27.9)	75.4 (△33.7)
메모리	61.7 (△13.5)	57.5 (△24.7)	66.2 (△16.7)	44.7 (△35.7)	38.4 (△49.7)	44.4 (△47.2)	27.7 (△57.3)	29.2 (△53.9)	45.7 (△44.3)	29.3 (△54.1)	34.1 (△53.1)	47.7 (△38.8)	36.0 (△41.7)
D램	32.7 (△7.0)	27.9 (△26.0)	31.1 (△17.6)	20.7 (△41.9)	18.2 (△51.0)	24.5 (△40.8)	11.7 (△63.6)	12.6 (△60.5)	19.6 (△49.5)	14.7 (△54.5)	15.8 (△57.4)	19.0 (△51.0)	16.9 (△48.3)
낸드	7.4 (49.3)	6.2 (9.3)	6.7 (2.4)	5.7 (△10.6)	5.2 (△16.8)	3.5 (△45.8)	3.6 (△30.3)	4.9 (△21.8)	6.4 (△14.6)	3.5 (△52.5)	3.7 (△53.9)	4.7 (△40.3)	3.6 (△51.9)
메모리 MCP	18.3 (△32.6)	20.8 (△26.5)	24.7 (△18.7)	16.5 (△30.0)	13.5 (△55.4)	14.9 (△52.6)	11.1 (△53.9)	10.6 (△49.6)	16.2 (△47.0)	9.8 (△50.3)	12.7 (△47.1)	21.4 (△14.5)	14.3 (△21.9)
메모리 MCOs	3.2 (△20.5)	2.5 (△46.6)	3.6 (△24.5)	1.7 (△56.3)	1.5 (△47.3)	1.5 (△70.1)	1.2 (△65.7)	1.0 (△75.9)	3.4 (△33.1)	1.1 (△73.9)	1.7 (△50.0)	2.4 (△59.6)	1.1 (△65.4)
시스템 반도체	46.8 (40.4)	46.6 (31.0)	45.1 (20.2)	43.8 (17.6)	42.3 (8.3)	42.7 (9.9)	29.0 (△25.0)	26.9 (△25.5)	36.3 (△18.4)	31.2 (△22.1)	36.4 (△4.9)	37.8 (△9.6)	34.7 (△25.9)
개별 소자	1.3 (△21.6)	1.3 (△12.8)	1.4 (△8.1)	1.3 (△11.2)	1.3 (△9.5)	1.2 (△17.6)	1.2 (△14.0)	1.2 (△8.9)	1.5 (△3.5)	1.3 (△10.0)	1.3 (△12.6)	1.4 (2.9)	1.4 (12.7)
광전 소자	2.3 (△5.8)	2.4 (△7.9)	2.5 (2.0)	2.7 (6.3)	2.9 (16.2)	3.0 (22.4)	2.2 (△5.9)	2.2 (9.2)	2.2 (11.1)	1.6 (△21.1)	1.6 (△11.2)	1.8 (△13.2)	2.1 (△9.4)

자료 : IITP, KTSPI

그림 1-4 반도체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4 반도체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2년 연간				2023년						
					7월 당월				7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중국(홍콩)	715.8	-6.8	54.7	중국(홍콩)	42.8	-33.1	56.7	280.1	-38.1	54.4
2	베트남	162.8	16.0	12.4	베트남	7.5	-43.1	10.0	66.0	-31.1	12.8
3	대만	124.0	15.9	9.5	대만	6.7	-32.0	8.9	47.2	-37.4	9.2
4	미국	95.5	0.3	7.3	미국	4.8	-41.8	6.3	27.4	-53.1	5.3
5	싱가포르	59.3	54.7	4.5	싱가포르	4.1	-34.5	5.4	24.6	-28.8	4.8
6	필리핀	37.4	-1.4	2.9	일본	2.0	75.3	2.6	9.2	10.3	1.8
7	인도	22.7	79.8	1.7	말레이시아	1.5	-6.9	1.9	10.2	-4.6	2.0
8	말레이시아	19.2	16.2	1.5	인도	1.4	20.6	1.8	10.3	-19.8	2.0
9	일본	13.5	-2.9	1.0	필리핀	1.1	-68.7	1.5	10.1	-60.2	2.0
10	독일	10.1	-6.6	0.8	태국	0.7	-22.2	0.9	4.6	-16.7	0.9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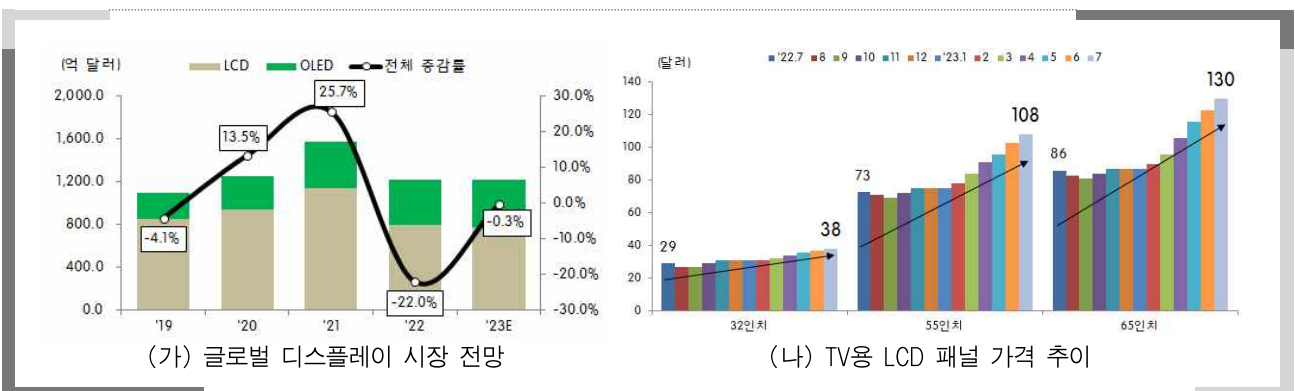
3 디스플레이 패널

1) 수출 환경

□ 올해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은 OLED 수요 반등 등으로 상황 호전이 기대

- (시장 전망) '23년 패널 시장(1,221.9억 달러, △0.3%)은 LCD 패널 가격 회복, OLED 수요처 확대 등으로 역성장 폭을 크게 줄이며 전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OMDIA, '23.6월)
 - (LCD 패널) 글로벌 경기 침체로 TV·PC 등의 수요 회복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올해 시장은 전년 대비 3.7% 감소한 771.2억 달러로 하락할 전망. 다만 TV용 LCD 패널 가격의 상승 회복 등으로 역성장 폭은 전년(△29.6%) 대비 큰 폭(25.9%p) 축소될 것으로 관측
 - (OLED 패널)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OLED 적용이 프리미엄 → 보급형 제품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노트북·태블릿 등의 IT기기와 전장용·XR기기 등으로도 OLED 신수요가 늘어나면서 올해 OLED 패널 시장은 450.7억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6.2% 반등할 전망
 - ※ 애플은 '24년 출시 예정인 '아이패드 프로' 모델에 OLED를 본격 채택할 것이라 예고해 IT기기용 OLED 수요 폭증 예상
- (2분기 실적) 전방 시장의 더딘 수요 회복 등으로 국내 업체 실적은 전년 대비 하락
 - (삼성디스플레이) 중소형 패널 시장의 계절적 비수기 등으로 매출액(6.48조 원, △16%)은 감소 하였으나 지속적인 수출 개선, QD-OLED의 프리미엄 입지 강화, 초대형 77인치 제품 판매 호조 등으로 영업이익은 8,400억 원을 기록
 - (LG디스플레이) 글로벌 경기 악화 등에 따른 전방 산업의 재고 조정 장기화로 매출액(4.7조 원, △15%)은 하락, 8,815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다만 하반기부터 전장용·모바일용 등의 수요 증가로 점진적인 회복이 기대

그림 1-5 |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전망 및 TV용 LCD 패널 가격 추이



자료 : OMDIA, 2023.6. / OMDIA, 2023.7.

□ 국내 업체는 벤더블·롤러블 등의 OLED 패널을 공개하며 차량용 등으로 응용처 확대에 매진, 한편 아이폰15向 패널 물량 공급에도 수혜가 기대

- 8.16~18일 국내에서 개최된 ‘한국디스플레이산업 전시회 2023’서 업체들은 자율주행 시대 개막에 앞서 차량용 OLED 패널을 선보여 주목
 - (삼성디스플레이) 화면 좌우가 구부러지는 34인치 벤더블(곡률 700R) OLED와 15.6인치 디스플레이를 결합한 디지털 콕핏용 패널을 전시. 2열에도 탑승자들의 편의·재미를 위한 슬라이더블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미래 자동차용 OLED 솔루션인 ‘뉴 디지털 콕핏’을 구성
 - ※ 자율주행 모드에서는 엔터테인먼트용으로 일반 주행 모드에서는 운전자가 주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 (LG디스플레이) 계기판, 내비게이션 등 편의 정보를 나타내주는 34인치 P-OLED를 탑재하였고 센터페시아(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컨트롤 패널 부분)와 2열에도 OLED 디스플레이를 배치
 - 뿐만 아니라 일반 유리 기판의 OLED 대비 두께가 20% 더 얇으며 가격도 합리적인 ‘ATO²⁾ (Advanced Thin OLED)’, 안전 운행을 위해 시야각을 제어하는 ‘SPM(Switchable Privacy Mode)³⁾’ 등 다양한 신기술도 소개해 눈길
 - 양사는 스마트폰·TV용 대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차량용 OLED 시장 흐름(’22년 148만 대 → ’27년 917.7만 대)에 편승해 OLED 신수요처 주도권을 확대해 나갈 방침(중앙일보, 8.16일, 원소스 OMDIA)

그림 1-6 | 삼성디스플레이 및 LG디스플레이의 자율주행용 OLED 이미지



(가) 삼성디스플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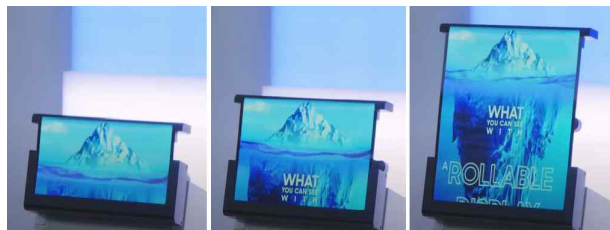
(나) LG디스플레이

자료 : 언론 자료 인용

2) 중·저가형 차량에도 OLED 공급을 확대하고자 개발되었으며 P-OLED의 핵심 기술인 탠덤 OLED(유기 발광층을 2개로 쌓은 구조) 구조를 따르나 폴리이미드(P-OLED) 기판 대신 유리 기판을 장착해 P-OLED 대비 합리적인 가격
3) 동승석 탑승자가 운전자의 주의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로 조명을 통해 운전자에 방출되는 빛을 차단

- 이외에도 OLED 특성을 살린 다양한 폼팩터 등 차별화된 혁신 제품들도 대거 공개
 - (삼성디스플레이) 화면을 5배 이상 펼칠 수 있는 12.4인치 태블릿용 롤러블 디스플레이, 안팎으로 두 번 접을 수 있는 S자형 폴더블, 안으로 두 번 접는 G자형 폴더블, 한 방향 또는 양방향으로 화면이 확장되는 슬라이더블 등을 앞세워 중소형 OLED 강자에 걸맞은 기술력을 선보여 눈길
 - (LG디스플레이) 대형 OLED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동 사는 TV용 OLED 패널을 42인치부터 97인치 까지 다양하게 전시하였으며 XR기기용 0.42인치 초소형 OLEDoS 등도 전시
 - ※ 메타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3세대 TV용 OLED 패널의 최대 휘도는 HDR 기준 2,100니트 수준
 - 또한 차세대 패널로 밀고 있는 투명 OLED도 기존 55인치에 이어 라인업을 확대해 30·77인치를 신규 공개하며 커브드 투명 OLED도 전시해 주목

그림 1-7 | 삼성디스플레이 및 LG디스플레이의 OLED 이미지



(가) 삼성디스플레이의 '롤러블 디스플레이'



(나) LG디스플레이의 '투명 OLED 디스플레이'

자료 : 언론 자료 인용

- 한편 BOE는 기술 문제로 '아이폰15' 공급망 진입에 실패, 국내 업체의 반사이익이 예상
 - '22년 中 BOE는 아이폰14 기본형 모델의 OLED 패널 공급사로 채택되면서 국내 업체가 독점하고 있던 애플의 아이폰 공급망에 본격 침투해 눈길
 - 이어 '23.하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폰15의 기본·플러스 모델向 패널 수주에도 도전하였으나 기술 이슈 등으로 애플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공개되면서 아이폰15 공급망 內 BOE가 최종 제외될 공산이 높은 것으로 관측
 - ※ BOE는 다이내믹 아일랜드 홀 디스플레이 가공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동시에 삼성디스플레이와도 OLED 기술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연말까지 아이폰15 패널 공급망 진입은 어려울 전망
 - 이에 따라 국내 업체가 반사 수혜를 입어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이폰15向 OLED 패널의 60%(전 모델 5,500만 대)를, LG디스플레이는 40%(프로·프로맥스 모델, 3,700만 대)를 담당할 것으로 추정. 또한 애플의 단가 인하 압박으로부터도 당분간 벗어날 것으로 관측되면서 수익성 개선도 기대
 - ※ 한편 '23.10월 공개되는 구글의 2세대 스마트워치 '픽셀워치2'에 기존 1세대 공급사인 BOE가 아닌 삼성디스플레이가 OLED 패널을 공급할 것으로 관측돼 눈길

- (마이크로 LED) 대형 디스플레이 및 웨어러블 기기 등의 수요를 기반으로 성장 전망
 - 이전부터 삼성전자(상업용 ‘더 월’, 89·110인치 마이크로 LED TV 등), LG전자(상업용 136인치 ‘LG 매그니티 올인원’ 등)는 상업용·가정용 마이크로 LED TV를 선보이며 대형 디스플레이용 마이크로 LED 시장에 진입
 - 이어 세계적 기업인 애플도 애플워치(’26년)를 시작으로 아이폰·비전 프로·애플카 등 다양한 제품군에 마이크로 LED를 확대 적용할 것이라 예고하면서 ’22년 1,400만 달러 수준에 그쳤던 마이크로 LED 시장은 ’23년 2,700만 달러 → ’27년 5억 8,000만 달러(’22~’27년 CAGR 136% ↑)로 빠르게 성장할 전망(TrendForce, ’23.8월)
 - ※ 마이크로 LED는 자발광 구조로 LCD·OLED 대비 다른 부품을 탑재하기 위한 공간 확보가 용이하며 형태도 다양하게 바꿀 수 있어 XR기기, 차량용 등에 주로 활용될 것으로 관측
- 이에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체들도 마이크로 LED 기술 기반 마련을 위해 투자를 확대
 - (애플) ’14년 마이크로 LED 개발 업체인 럭스뷰를 인수한 뒤 ’17년 제품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26.1분기부터 본격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관측. 국내 업체에 대한 디스플레이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이크로 LED를 차세대 기술로 낙점하며 최근 10년 간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
 - (LG디스플레이) ’23.6월 대만 울트라 디스플레이(UDT)로부터 마이크로 LED(LEDoS) 관련 미국 특허 14건, 대만·중국 특허 24건을 매입하여 총 38건을 확보
 - ※ 매입한 특허들은 주로 마이크로 LED 기술 중 가장 고난도 기술인 전사 공정과 관련된 것이 다수이며 이외에도 적층 방식, 터치 감지 등의 특허도 포함
 - (삼성디스플레이) 동 사는 마이크로 LED의 낮은 기술 성숙도로 상용화 단계에 도달하기에는 이르다 판단하여 마이크로 OLED(OLEDoS)에 무게
 - 연내 미국 디스플레이 업체 이매진의 인수(2억 1,800만 달러)를 마무리하며 마이크로 OLED 핵심 기술인 ‘다이렉트 패터닝(dPd)’ 기술을 확보. 차세대 XR기기 등에 활용이 용이한 마이크로 OLED(RGB방식) 연구개발에 속도를 가할 전망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종류〉



자료 : 삼성디스플레이

2) 수출 동향

□ '23.7월 디스플레이 수출은 저점을 딛고 U자 회복에 진입, 5개월 연속 낙폭도 축소

- **(품목별)** LCD·OLED 등의 수출 여건 개선으로 전년 대비 5.4% 감소한 18.9억 달러를 기록
 - (LCD 패널 : 4.0억 달러, △15.2%) TV·PC 등 전방 시장의 역성장, 국내 생산 축소 등으로 11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으나 LCD 패널 가격 회복 등으로 내림세는 둔화
 - (OLED 패널 : 12.5억 달러, △0.2%) 갤럭시Z 폴드5·플립5 출시(8.11일) 등에 힘입어 하락폭이 완화되면서 전년 수준으로 회복하였으나 애플의 신제품 생산 지연 문제 지속 등으로 2개월 연속 하락
 - (부분품 : 2.4억 달러, △12.5%) BLU(0.04억 달러, 40.8%↑)의 성장, 편광판(1.5억 달러, △19.4%) 낙폭 둔화 등으로 수출 실적이 개선되는 추세
- **(지역별)** 베트남·미국 등의 수출은 성장했으나 중국(홍콩 포함)·멕시코 등은 역성장 기록
 - 베트남(11.7억 달러, 4.9%↑)은 LCD 수출(0.6억 달러, 22.0%↑) 견조와 더불어 OLED(10.8억 달러, 3.9%↑), 부분품(0.3억 달러, 12.0%↑) 등의 반등으로 2개월 만에 다시 성장 전환
 - 중국(홍콩 포함, 4.8억 달러, △27.3%)은 LCD(2.3억 달러, △28.3%)·OLED(1.0억 달러, △29.0%)·부분품(1.5억 달러, △24.9%) 등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7개월 연속 5억 달러대를 하회
 - 멕시코(0.8억 달러, △9.2%)는 부분품(0.1억 달러, 37.0%↑)을 제외한 LCD(0.4억 달러, △14.1%) 부진, OLED(0.2억 달러, △17.9%) 반락 등으로 감소
 - 미국(0.4억 달러, 275.9%↑)은 LCD(0.2억 달러, 222.3%↑), OLED(0.1억 달러, 972.4%↑), 부분품(0.1억 달러, 252.6%↑) 등이 모두 급등하면서 '10.11월 이후 수출 최대치를 기록

표 1-5 |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2.7	8	9	10	11	12	'23.1	2	3	4	5	6	7
패널	20.0 (△4.7)	20.9 (△5.3)	19.8 (△18.6)	20.3 (△9.6)	20.1 (△17.3)	16.0 (△35.2)	14.6 (△37.7)	13.0 (△42.2)	14.3 (△41.4)	14.2 (△30.5)	16.0 (△12.0)	15.9 (△11.1)	18.9 (△5.4)
LCD	4.8 (△8.7)	5.4 (12.5)	3.5 (△27.3)	3.6 (△30.4)	3.6 (△33.5)	3.4 (△39.6)	3.0 (△44.7)	3.0 (△43.1)	2.8 (△53.3)	2.9 (△43.9)	3.3 (△31.9)	3.5 (△19.5)	4.0 (△15.2)
OLED	12.5 (2.7)	12.6 (△10.0)	13.5 (△16.5)	14.3 (2.9)	14.1 (△7.6)	10.2 (△33.7)	9.6 (△31.3)	8.0 (△39.3)	9.1 (△35.9)	9.2 (△21.6)	10.6 (6.6)	10.2 (△6.7)	12.5 (△0.2)
부분품	2.7 (△24.1)	2.9 (△11.6)	2.8 (△16.2)	2.4 (△29.8)	2.3 (△34.2)	2.4 (△35.3)	2.1 (△50.1)	2.1 (△50.4)	2.4 (△42.6)	2.1 (△40.1)	2.1 (△37.8)	2.2 (△16.2)	2.4 (△12.5)

자료 : IITP, KTSPI



그림 1-8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6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2년 연간				2023년						
					7월 당월				7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베트남	128.9	2.9	52.8	베트남	11.7	4.9	62.1	62.5	-14.8	58.4
2	중국(홍콩)	93.6	-12.7	38.3	중국(홍콩)	4.8	-27.3	25.6	33.2	-45.5	31.0
3	멕시코	6.5	153.2	2.7	멕시코	0.8	-9.2	4.1	3.6	-5.4	3.4
4	헝가리	2.9	239.5	1.2	미국	0.4	275.9	1.9	1.2	9.9	1.1
5	인도	2.6	128.2	1.1	인도	0.3	26.9	1.8	1.6	-7.5	1.5
6	미국	1.7	-23.5	0.7	헝가리	0.2	-37.0	1.0	0.8	-46.6	0.7
7	일본	1.6	59.8	0.7	일본	0.1	-9.9	0.6	0.7	-29.3	0.6
8	슬로바키아	0.8	172.6	0.3	이집트	0.1	-15.8	0.3	0.2	-42.7	0.2
9	말레이시아	0.7	147.6	0.3	대만	0.1	18.6	0.3	0.3	-16.4	0.3
10	대만	0.6	-8.4	0.2	브라질	0.1	-40.9	0.3	0.3	-8.5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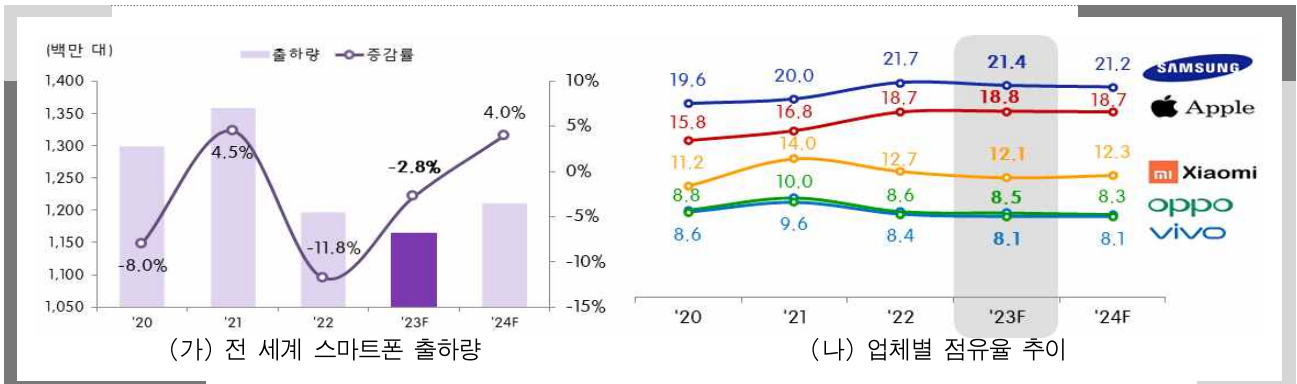
자료 : IITP, KTSPI

4 휴대폰

1) 수출 환경

□ '23년 스마트폰 시장, 회복세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1위 수성 전망

- **(전체)** '23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11억 6,480만 대로 전년 대비 2.8%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하락폭이 완화되면서 상승 궤도 진입을 기대(SA, '23.6월)
 - 고인플레이션 등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자들의 구매력 약화,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중국 소비 회복 등으로 '23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2년 연속 하락을 예상
 - 또한 스마트폰 교체 주기 장기화, 리퍼비시폰을 포함한 중고 제품 시장 확대 등과 더불어 혁신 기술 상향 평준화에 따른 추가 성장 동력 부족도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침체를 야기
 - ※ '22년 스마트폰 교체 주기는 43개월로 역대 최장을 기록했으며, 올해부터 단축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40개월 이상을 유지할 전망이다. 한편 '22년 리퍼비시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11.5% 증가했으며, '26년까지 연평균(CAGR) 10.0% 성장을 예상(카운터포인트리서치, '23.5월 및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3.6월)
 - 다만 삼성전자·애플 등 글로벌 업체들의 프리미엄 신제품 출시 등으로 하반기 회복세 진입이 예상되며 5G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 올해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내년(4.0%↑) 상승 전환을 기대
 - ※ '23년 분기별 시장 성장률 전망치 : (1Q) △14.2% → (2QF) △7.7% → (3QF) 0.0% → (4QF) 11.4% ↑
- **(업체별)** 프리미엄 제품 중심의 판매 전략을 구사하는 삼성전자·애플은 선전할 전망이다. 그러나 중저가폰을 주로 판매하는 샤오미·오포·비보 등 중국 업체는 부진을 예상(SA, '23.6월)
 - 삼성전자는 프리미엄폰에 집중하면서도 중저가폰 시장까지 동시에 공략함에 따라 출하량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4.2%)하나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21.4%로 1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 ※ '23년 상위 업체 출하량 전망치(단위 : 백만 대) : (1위, 삼성전자) 248.9, △4.2%, (2위, 애플) 218.7, △2.4%, (3위, 샤오미) 140.4, △7.8%, (4위, 오포) 98.8, △4.4%, (5위, 비보) 94.7, △5.6%
 -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의 프리미엄폰 선호 확대 등에 따라 플래그십 제품 중심의 판매 전략을 펼치는 애플은 주요 업체 중 유일하게 점유율 상승('22년 18.7% → '23년F 18.8%)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의 격차는 축소될 전망이다
 - 한편 저소득층의 소득 불확실성에 따른 구매력 약화 등으로 주로 중저가 제품 시장을 공략하는 샤오미(12.1%)·오포(8.5%)·비보(8.1%) 등 중국 업체들은 점유율 하락을 예상
 - ※ '22년 주요 업체별 스마트폰 ASP(평균판매가격)(단위 : 달러, SA, '23.5월) : (애플) 891, (삼성전자) 272, (비보) 219, (오포) 201, (샤오미)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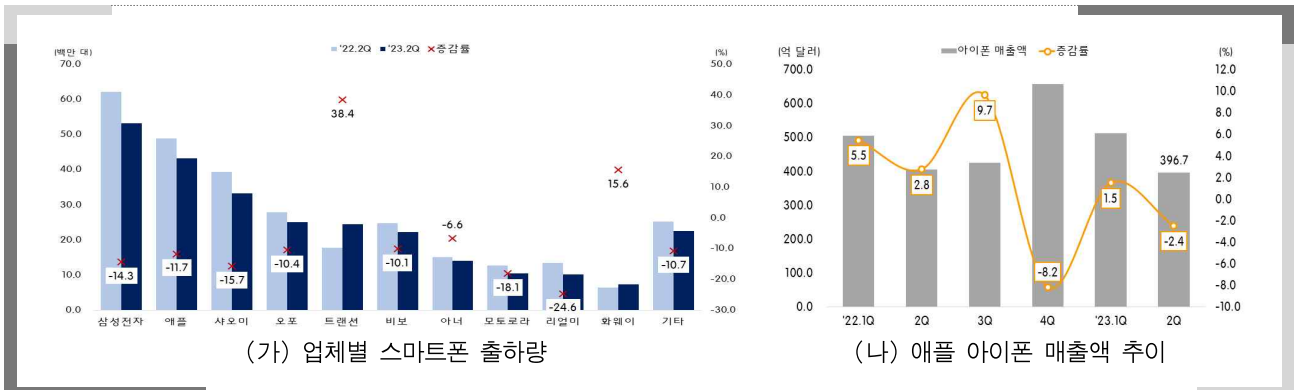
그림 1-9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및 업체별 점유율 추이 및 전망


자료 : SA, 2023.6.

□ (2분기 실적) 스마트폰 시장 둔화 요인이 지속되면서 주요 업체는 부진을 기록

-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스마트폰 시장 회복 지연 등으로 삼성전자·애플 등 주요 업체들이 고전하면서 '23.2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위축(OMDIA, '23.8월)
 - 인플레이션에 따른 수요 감소, 교체 주기 장기화 등 업황 둔화 요인이 지속됨에 따라 '23.2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2억 6,590만 대로 전년 동기(2억 9,380만 대) 대비 9.5% 하락
 - 삼성전자는 5,330만 대를 출하하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수성했으나, 플래그십 신제품 출시('23.2월) 효과 감소와 더불어 소비자들의 구매력 약화에 따른 갤럭시A 시리즈 등 중저가폰 판매 부진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하락($\Delta 14.3\%$)을 기록
 - '23.1분기 상위 5개 업체 중 유일하게 출하량 상승(2.3%↑)을 기록하는 등 선전하던 애플도 2분기에는 아이폰14 시리즈의 수요가 줄어 전년 동기 대비 11.7% 감소한 4,320만 대를 기록하며 위축
 - ※ '23.2분기 애플의 아이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한 396억 6,900만 달러로 반락하면서 '21.3분기 이후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하회하는 등 부진을 기록
 - 중국 내수 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샤오미($\Delta 15.7\%$)·오포($\Delta 10.4\%$)·비보($\Delta 10.1\%$) 등 중국 업체들은 내림세를 지속
 - 다만 트랜션은 저가 제품을 내세워 아프리카 지역에서 판매량을 확대함에 따라 '23.2분기 고성장($38.4\%\uparrow$)을 달성하며 비보를 역전해 상위 5위 업체에 진입
 - ※ '23.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업체별 점유율(출하량 기준) : (1위, 삼성전자) 20.0%, (2위, 애플) 16.2%, (3위, 샤오미) 12.5%, (4위, 오포) 9.4%, (5위, 트랜션) 9.2%, (6위, 비보) 8.4%
 - 한편 미국의 제재로 5G 스마트폰을 판매하지 못함에 따라 하위권으로 밀려난 화웨이는 '23.2분기 출하량 74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를 달성하는 등 성장세 지속
 - ※ '19.5월 미국이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 5G용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면서 스마트폰 시장 내 화웨이 입지가 위축. 한편 화웨이는 미국 반도체·5G 기술을 배제한 자체 기술을 활용해 5G 스마트폰 생산을 계획

그림 1-10 '23.2분기 업체별 스마트폰 출하량 및 애플 아이폰 매출액 추이



자료 : OMDIA, 2023.8. / Apple

□ 삼성전자는 '23.8월 5세대 폴더블폰을 출시하며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 입지를 강화

○ 삼성전자는 전작 대비 디자인 및 기능 등을 개선한 하반기 폴더블폰 신제품을 출시

- '23.7.26일 삼성전자는 사상 처음으로 국내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개최하고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Z 플립5', '갤럭시Z 폴드5' 등 신제품을 공개했으며, '23.8.1~7일 일주일간 사전 예약 진행 후 11일 공식 출시를 진행

※ 삼성전자는 구글 샤오미 등 경쟁사의 폴더블폰 및 아이폰15 출시 견제 등을 위해 기존 8월에 개최되던 갤럭시 언팩 행사를 7월 말로 앞당겼으며, 폴더블폰 시장 선두 업체로서 자부심·정체성 각인 등을 위해 최초로 국내에서 개최

※ 갤럭시Z 시리즈의 7일간 사전예약 판매량 추이는 (3세대) 92만 대 → (4세대) 97만 대 → (5세대) 102만 대로 갤럭시Z5 시리즈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비중은 플립5 70%, 폴드5 30%로 집계

- 공개된 폴더블폰 신제품 2종은 카메라 하드웨어, 배터리 용량 등은 전작과 동일하게 유지했으나 나이트그래피(야간 촬영), AI 보정 기능 등 카메라 소프트웨어 기능을 강화

- 또한 '플렉스 힌지(물방울 힌지)'를 적용해 화면을 접었을 때 완전한 밀착, 주름 최소화 등 외적인 측면을 개선했으며 외부 충격을 분산시키는 구조로 설계해 내구성을 향상

- '갤럭시Z 플립5'는 전작 대비 커버 화면 크기를 확대해(1.9인치 → 3.4인치) 화면을 접은 상태에서 문자 답장, 동영상 시청 등 다양한 정보 및 기능 활용이 가능하며 플렉스캠(FlexCam), 퀵뷰(Quick View), 듀얼 프리뷰(Dual Preview) 등 카메라 기능을 확대

※ 갤럭시Z 플립5는 커버 화면에서 카메라 실행, 후면 카메라를 활용한 고화질 사진 촬영 등이 가능하며(플렉스캠), 화면을 접은 상태에서도 촬영물 확인·삭제·저장 등이 가능(퀵뷰)할 뿐만 아니라 메인·커버 화면 동시에 촬영물 확인이 가능(듀얼 프리뷰)한 등 폴더블 제품으로써 활용성을 증대

- '갤럭시Z 폴드5'는 전작 대비 무게 10g, 두께 0.2mm를 줄여 역대 폴드 제품 중 가장 가볍고 얇은 디자인을 채택했으며, 배터리 효율을 향상시키는 등 휴대성을 강화

※ 한편 갤럭시Z 폴드5 'S펜 폴드 에디션'도 4.35mm로 전작 대비 얇아졌으며, 3세대까지 호환이 가능. 다만 휴대폰 본체에 S펜 내장 슬롯이 없어 휴대성이 떨어지며 별도 구매가 필요

- 한편 ‘갤럭시Z 플립5’ 출고가는 최저 139만 9,200원으로 전작(갤럭시Z 플립4 출고가 최저 135만 3,000원) 대비 약 5만 원, ‘갤럭시Z 폴드5’ 출고가는 최저 209만 7,700원으로 전작(갤럭시Z 폴드4 출고가 최저 199만 8,700원) 대비 약 10만 원 인상

표 1-7 | 삼성전자 하반기 폴더블 신제품 사양

구분	갤럭시Z 플립5	갤럭시Z 폴드5
제품 사진		
출시일	사전예약 : 8.1~8.7일 / 공식 출시일 8.11일	
디스플레이	메인 : 6.7인치 FHD+ Dynamic AMOLED 2X 인피니티 플렉스(2,640 × 1,080) 커버 : 3.4인치 Super AMOLED(720 × 748)	메인 : 7.6인치 QXGA+ Dynamic AMOLED 2X 인피니티 플렉스(2,176×1,812) 커버 : 6.2인치 HD+ Dynamic AMOLED 2X(2,316 × 904)
프로세서	갤럭시용 퀄컴 스냅드래곤 8 2세대 모바일 플랫폼(Octa-Core)	
크기/무게	접었을 때 : 85.1 × 71.9 × 15.1mm 펼쳤을 때 : 165.1 × 71.9 × 6.9mm 무게 : 187g	접었을 때 : 154.9 × 67.1 × 13.4 mm 펼쳤을 때 : 154.9 × 129.9 × 6.1mm 무게 : 253g
카메라	후면(듀얼) : 1,200만 화소 초광각 + 1,200만 화소 광각 듀얼 픽셀 전면(싱글) : 1,000만 화소	후면(트리플) : 1,200만 화소 초광각 + 5,000만 화소 광각 듀얼 픽셀 + 1,000만 화소 망원 전면(싱글) : 400만 화소 UDC 커버(싱글) : 1,000만 화소
메모리	RAM : 8GB, 저장 용량 : 256GB/512GB	RAM : 12GB, 저장 용량 : 256GB/512GB/1TB
배터리	3,700mAh	4,400mAh
출고가	256GB : 139만 9,200원 512GB : 152만 200원	256GB : 209만 7,700원 512GB : 221만 8,700원 1TB : 246만 700원
기타	방수 IPX8	방수 IPX8, S펜 지원

자료 : 삼성전자

- 폴더블폰 시장이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압도적인 점유율로 1위 수성 전망
 - 고인플레이션, 각 국의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수요 약화 등으로 스마트폰 시장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구글·샤오미 등 글로벌 업체는 폴더블폰 출시를 확대. 이에 따라 '23년 전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은 1,980만 대로 전년 대비 54.7% 성장할 전망(TrendForce, '23.5월)
 - ※ 전체 스마트폰 시장 내 폴더블폰 비중 추이 : ('21년) 0.7% → ('22년) 1.1% → ('23년E) 1.7% → ('27년E) 5.0% 이상
 - 삼성전자는 갤럭시 플래그십 제품군 판매량 중 폴더블폰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호조를 예상하는 가운데 올해 폴더블폰 판매량 50% 이상 확대를 목표하는 등 자신감을 표현
 - ※ TrendForce는 올해 삼성전자 폴더블폰 출하량을 전년(1,050만 대) 대비 26.7% 늘어난 1,330만 대로 예측
 - 한편 삼성전자는 폴더블폰 시장에 최초 진입함에 따라 연구 및 생산 기술 등에서 타 업체보다 우위를 점하면서 '22년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 점유율 82%(출하량 기준)로 독보적인 1위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67% 점유율로 1위를 수성하며 시장을 선도할 전망

2) 수출 동향

□ '23.7월 휴대폰 수출, 완제품·부분품이 두 자릿수로 감소하면서 6개월 연속 내림세

- (품목별) 경기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수요 둔화 등으로 완제품 및 부분품이 동반 하락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9.6% 감소한 7.2억 달러를 기록
 - (휴대폰 완제품 : 2.3억 달러, $\Delta 22.4\%$) 전 세계 프리미엄 제품 판매 비중 확대에 따른 판매 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소비 심리 약화, 제품 교체 주기 장기화 등으로 수출량이 감소하면서 6개월 연속 내림세
 - ※ 7월 휴대폰 완제품 수출 단가 및 수량 : (단가) 664달러, 27.9% \uparrow , (수량) 35만 대, $\Delta 39.3\%$
 - (휴대폰 부분품 : 4.9억 달러, $\Delta 18.2\%$) 판매 부진에 따른 완제품 제조업체들의 재고 조정 등으로 카메라 모듈·3D 센싱 모듈 등 고부가 제품 수요가 감소하면서 2개월 만에 하락 반전
 - ※ 주요 생산 거점별 부분품 수출 : 중국(홍콩 포함, 2.5억 달러, $\Delta 27.7\%$), 베트남(1.2억 달러, $\Delta 29.9\%$), 인도(0.2억 달러, 74.0% \uparrow)
- (지역별) 중국(홍콩 포함)·베트남·EU 등은 하락한 반면 미국 등은 성장을 기록
 - 중국(홍콩 포함, 2.5억 달러, $\Delta 27.4\%$)은 애플 및 자국 업체 등 경쟁 업체 수요 강세 등에 따라 완제품($\Delta 12.4\%$)이 하락한 가운데 카메라 모듈·3D 센싱 모듈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부분품($\Delta 27.7\%$)도 감소하면서 반락
 - 베트남(1.2억 달러, $\Delta 29.8\%$)은 완제품($\Delta 20.9\%$)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카메라 모듈·패널·PBA 모듈 등 부분품($\Delta 29.9\%$)도 반락하면서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
 - 미국(1.2억 달러, 72.5% \uparrow)은 부분품($\Delta 29.5\%$)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체의 상반기 플래그십 및 하반기 폴더블 제품을 중심으로 호조를 이어가는 등 완제품(170.3% \uparrow)이 고성장을 달성하면서 오름세 지속
 - EU(0.7억 달러, $\Delta 53.2\%$)는 부분품(24.8% \uparrow) 반등에도 불구하고 완제품($\Delta 57.7\%$) 부진으로 6개월 연속 하락

표 1-8 | 휴대폰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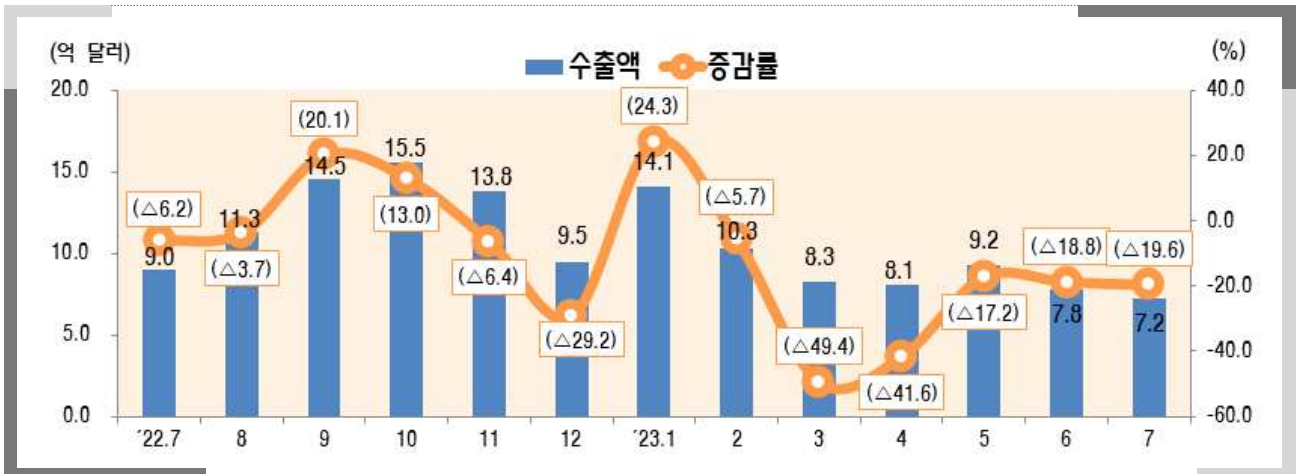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2.7	8	9	10	11	12	'23.1	2	3	4	5	6	7
휴대 단말기	9.0 ($\Delta 6.2$)	11.3 ($\Delta 3.7$)	14.5 (20.1)	15.5 (13.0)	13.8 ($\Delta 6.4$)	9.5 ($\Delta 29.2$)	14.1 (24.3)	10.3 ($\Delta 5.7$)	8.3 ($\Delta 49.4$)	8.1 ($\Delta 41.6$)	9.2 ($\Delta 17.2$)	7.8 ($\Delta 18.8$)	7.2 ($\Delta 19.6$)
완제품	3.0 ($\Delta 22.2$)	2.5 ($\Delta 34.9$)	4.1 (23.5)	2.9 ($\Delta 28.8$)	2.8 ($\Delta 34.5$)	0.9 ($\Delta 76.6$)	3.4 (174.1)	1.7 ($\Delta 36.2$)	2.6 ($\Delta 66.4$)	3.3 ($\Delta 42.3$)	3.2 ($\Delta 24.2$)	2.4 ($\Delta 46.9$)	2.3 ($\Delta 22.4$)
부분품	6.0 (4.6)	8.8 (11.8)	10.4 (18.9)	12.7 (30.2)	11.0 (5.1)	8.6 ($\Delta 11.2$)	10.7 (5.7)	8.5 (4.5)	5.7 ($\Delta 34.4$)	4.8 ($\Delta 41.2$)	6.0 ($\Delta 12.9$)	5.4 (7.0)	4.9 ($\Delta 18.2$)

자료 : IITP, KTSPI



그림 1-11 | 휴대폰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9 | 휴대폰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2년 연간				2023년						
					7월 당월				7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중국(홍콩)	74.5	39.8	50.7	중국(홍콩)	2.5	-27.4	35.0	30.9	-13.1	47.5
2	베트남	18.8	-35.9	12.8	베트남	1.2	-29.8	17.0	9.0	-23.4	13.8
3	미국	10.5	-57.1	7.2	미국	1.2	72.5	16.8	9.3	22.3	14.4
4	독일	5.8	21.2	3.9	필리핀	0.4	4993.3	5.4	1.4	1588.9	2.1
5	영국	5.3	1.0	3.6	UAE	0.2	275.0	2.9	0.5	30.2	0.8
6	오스트리아	5.1	170.3	3.5	인도	0.2	24.7	2.6	0.7	-43.9	1.1
7	인도	3.8	13.2	2.6	캐나다	0.2	-62.8	2.4	0.4	-72.3	0.7
8	캐나다	2.8	77.7	1.9	독일	0.2	-53.4	2.2	2.7	-39.2	4.1
9	네덜란드	2.8	108.8	1.9	프랑스	0.2	5.2	2.2	0.9	-35.5	1.4
10	일본	2.3	2.9	1.6	영국	0.2	-62.1	2.2	2.1	-46.9	3.3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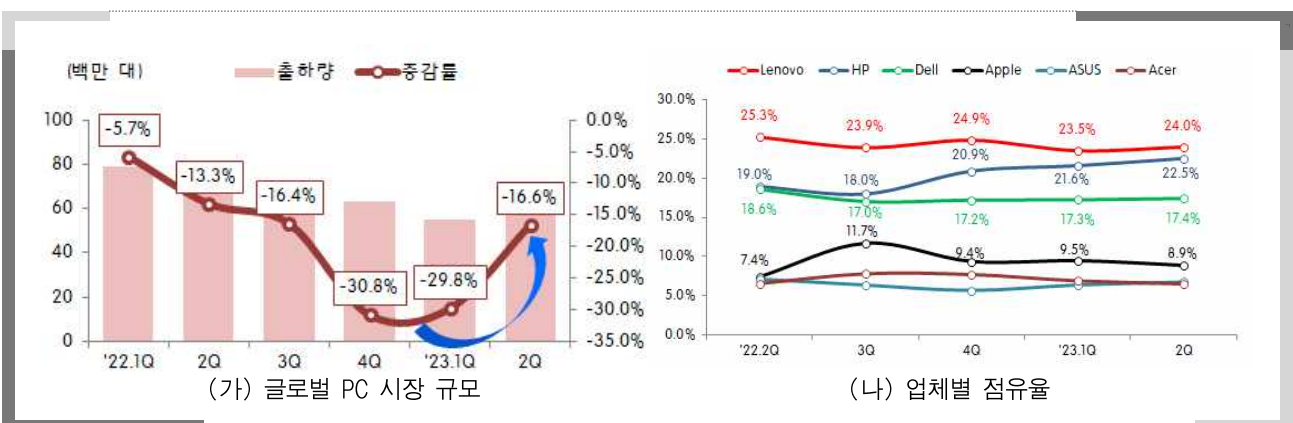
5 컴퓨터 및 주변기기

1) 수출 환경

□ 올해 상반기 PC 시장(1억 1,494만 대, △23.5%)은 수요 부진 등으로 역성장

- (시장 규모) '23.2분기 PC 시장은 7분기 연속 감소, 다만 하락세는 점차 둔화되는 양상
 -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자 수요 경색, PC 재고 증가 등 비우호적인 상황이 지속되면서 '23.2분기 PC 시장(5,965만 대, △16.6%)은 두 자릿수 감소하며 6,000만 대를 하회
 - 다만 지난 '22.4분기, '23.1분기에 비해 하락폭이 크게 둔화되고 있어 하반기부터는 장기간의 부진을 딛고 감소세가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24년(2억 6,817만 대, 7.7%↑)엔 본격 반등하면서 회복 진입할 전망(Gartner, '23.6월)
- (경쟁 현황) 주요 상위 업체들의 하락세가 여전하나 HP, Apple 등은 감소폭이 다소 완화
 - HP(1,345만 대, △0.9%)는 여타 경쟁 업체보다 빠른 회복 기조를 보이면서, 1위를 고수하고 있는 Lenovo(1,432만 대, △20.8%)와의 격차('22.2Q 6.3%p → '23.2Q 1.5%p)를 큰 폭으로 축소하며 2위를 유지
 - ※ 한편 HP는 미국 정부의 대중 수출 규제 강화 등으로 중국('22년 기준 5,520만 대) 내 노트북 생산 시설 일부(최대 500만 대)를 태국·멕시코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관측
 - Dell(1,039만 대, △21.8%)은 여전히 두 자릿수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Apple(529만 대, △0.3%)은 하락폭이 크게 둔화('23.1Q △28.4%)되는 반대 양상을 보이며 각각 3, 4위에 랭크
 - Acer(402만 대, △21.1%)는 ASUS(388만 대, △17.3%)를 제치고 한 단계 상승하며 5위를 차지

그림 1-12 | 글로벌 PC 시장 규모 및 업체별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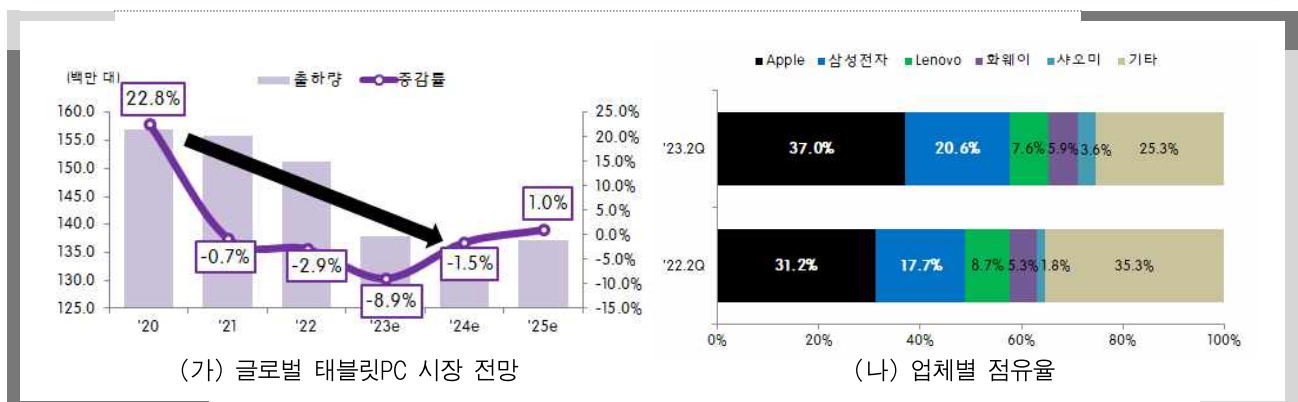


자료 : Gartner, 2023.7.

□ (태블릿PC) 코로나 특수 종료, 경기 침체 등으로 3년 연속 하락 국면을 지속할 전망

- (시장 전망) '23년 글로벌 태블릿PC 시장은 경제적 불확실성 확대, 낮은 소비자 수요 등으로 전년 대비 8.9% 하락한 1억 3,791만 대에 그칠 전망(Gartner, '23.6월)
 - 코로나19로 반짝 성장한 '20년(1억 5,690만 대, 22.8%↑)을 제외하고 하락 곡선을 지속 중인 태블릿PC 시장은 소비자들의 구매력 약화, 노트북·스마트폰 등으로의 수요 이동으로 '23.상반기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역성장함에 따라 올해 태블릿PC 시장은 하락세가 불가피할 전망
 - ※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23.2분기 태블릿PC 출하량은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로 재고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년 대비 29.9% 감소한 2,830만 대에 그친 것으로 집계('23.8월)
 - (경쟁 동향) Apple(1,050만 대, △16.8%)은 출하량이 전년 대비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은 5.8%p 늘어난 37.0%로 압도적 1위를 고수. 삼성전자(580만 대, △18.3%)는 20%대의 점유율을 넘어섰으나 1위와의 격차('22.2Q 13.5%p → '23.2Q 16.4%p)는 확대(IDC, '23.8월)
 - Lenovo(210만 대, △38.8%), 화웨이(170만 대, △22.9%) 등 중화권 업체들은 역성장을 지속하며 10%를 밑도는 점유율로 각각 3, 4위를 차지. 한편 샤오미(100만 대, 41.6%↑)는 태블릿PC 시장 불황에도 불구하고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홀로 성장하며 5위에 랭크
- 삼성전자에 이어 애플 등의 신제품 출시가 예고되면서 올 하반기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8.11일 삼성전자의 갤럭시탭S9 시리즈에 이어 애플도 '23.10월 OLED 패널을 적용한 '아이패드 11세대' 신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관측. 또한 '21년 이후 2년 만에 '아이패드 미니 7세대'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반기 프리미엄 시장 경쟁 각축전이 심화될 전망
 - 한편 중저가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샤오미는 14인치의 대화면을 채용한 '샤오미패드6 맥스' 신제품을 공개(8.14일). 전작 대비 디스플레이 화면이 62%가량 확대되었고 주사율도 144Hz를 지원해 멀티태스킹 작업이나 영상 시청, 게임 등을 즐기기에 쾌적할 것으로 기대

그림 1-13 | 글로벌 태블릿PC 시장 전망 및 업체별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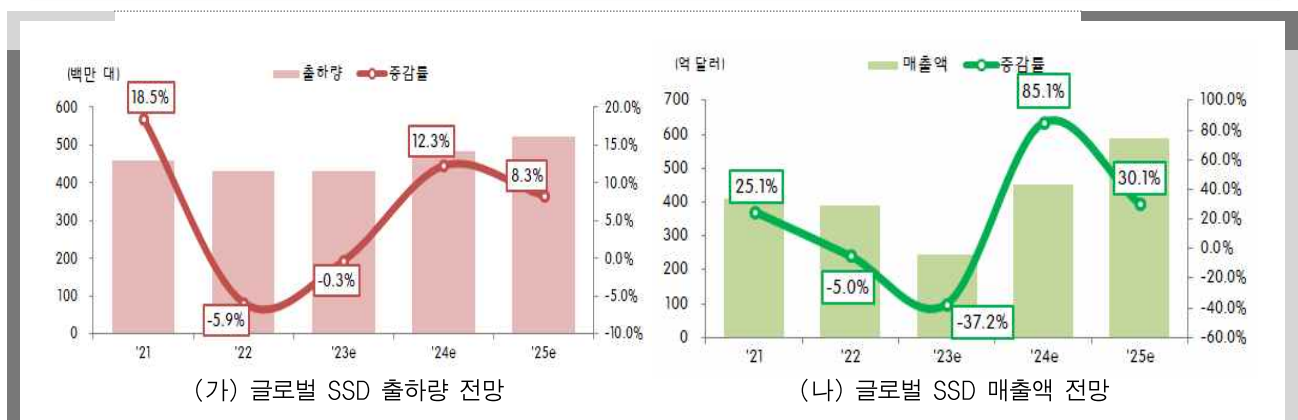


자료 : Gartner, 2023.6. / IDC, 2023.8.

□ (SSD) '23년 출하량은 회복 조짐, 다만 매출액은 낸드 가격 하락 등으로 큰 폭 감소 전망

- (시장 전망) 글로벌 SSD 출하량은 보합 수준으로 개선되겠으나 매출액은 급락하며 4년 만에 300억 달러대를 하회할 것으로 관측(Gartner, '23.8월)
 - (소비자용) 게이밍·노트북 등의 점진적 수요 회복으로 출하량(3억 4,647만 대, 3.1%↑)은 소폭 반등하겠으나 매출액(133.3억 달러, △21.5%)은 SSD 가격 하락 등으로 두 자릿수 감소 전망
 - (기업용)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등의 기술 발전 속에도 글로벌 경기 침체 현상 장기화, IT 업체들의 데이터센터 투자 축소 등으로 올해 출하량(4,968만 대, △25.0%)과 매출액(97.9억 달러, △52.8%)은 가트너가 집계를 시작한 '09년 이래 전례 없는 최악의 낙폭을 보일 전망
 - 이에 따라 '23년 SSD 출하량(4억 3,073만 대, △0.3%)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겠으나 매출액(243.7억 달러, △37.2%)은 크게 하락하며 '20년 이후 처음으로 200억 달러대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
- 美에서 개최된 '플래시 메모리 서밋 2023(8.8~10일)'서 업체들은 차세대 SSD 제품을 공개
 - (삼성전자) PCIe 5.0 규격을 지원하며 업계 최고 성능의 8세대(236단) V낸드 SSD('PM9D3a')와 전력 효율이 높은 'PM1743', 고집적도를 구현한 '256TB SSD' 등을 대거 공개하며 데이터센터, 생성형 AI 서버 시장을 겨냥
 - 특히 PM9D3a는 전작 대비 연속 읽기 성능(12,000MB/s)은 2.3배, 임의 쓰기(400K IOPS, 초당 입출력 횟수)는 두 배, 전력 효율은 60%가량 개선되었으며 연내 7.68TB·15.36TB 제품을 2.5인치 규격으로 양산할 것이라 발표. '24.상반기에는 3.84TB 이하부터 최대 30.72TB까지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
 - (솔리다임) 최소 7.68TB부터 세계 최대 수준인 61.44TB 용량을 지원하는 데이터센터용 192단의 QLC(4비트) SSD 신제품('솔리다임 D5-P5336')을 전시. 동 사는 TLC(3비트) SSD보다 향상된 읽기 성능 등을 제공해 빠른 속도로 대용량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에 적합하다 강조

그림 1-14 | 글로벌 SSD 출하량 및 매출액 전망



자료 : Gartner, 2023.8.



2) 수출 동향

□ '23.7월 수출은 내림세가 지속, 다만 4개월 연속 하락 폭은 둔화되고 있는 양상

- (품목별)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은 침체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나 컴퓨터 수출 반등, 주변기기 감소폭 둔화 등으로 하락 곡선이 완화되면서 전년 대비 28.0% 줄어든 8.7억 달러를 기록
 - (컴퓨터 : 1.0억 달러, 11.8%↑) 부품 하락 속에서도 데스크톱PC(0.1억 달러, 95.3%↑), 노트북(0.2억 달러, 36.6%↑) 등의 수요 회복으로 4개월 만에 반등
 - (주변기기 : 7.7억 달러, △31.1%) SSD 하락(5.3억 달러, △39.1%)폭 축소, 모니터(1.3억 달러, 24.7%↑) 호조 등으로 4개월 연속 하락세가 축소되면서 점진적 회복 진입이 기대
- (지역별) 중국(홍콩 포함), 베트남 등은 성장한 반면 미국, 일본 등은 하락 지속
 - '23.4월 이후 최대 수출국으로 다시 부상한 중국(홍콩 포함, 4.0억 달러, 31.1%↑)은 SSD(3.5억 달러, 61.1%↑), 모니터(0.1억 달러, 11.1%↑) 등을 중심으로 15개월 만에 반등
 - 미국(1.5억 달러, △69.9%)은 프린터(0.1억 달러, △35.1%), 저장매체(0.1억 달러, △51.0%) 등의 하락과 SSD(0.7억 달러, △82.9%)의 급감세가 지속되면서 7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
 - 베트남(0.6억 달러, 58.6%↑)은 모니터 수출(0.4억 달러, 39.8%↑) 견조 등으로 고성장을 지속하며 2개월 만에 다시 수출 상위국 3위에 랭크

표 1-10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2.7	8	9	10	11	12	'23.1	2	3	4	5	6	7
컴퓨터 및 주변기기	12.1 (△21.9)	12.6 (△25.4)	15.4 (△20.2)	10.3 (△30.9)	9.7 (△45.2)	11.7 (△29.5)	6.3 (△58.7)	6.6 (△58.6)	8.5 (△52.5)	5.9 (△66.7)	8.3 (△53.1)	8.7 (△48.7)	8.7 (△28.0)
컴퓨터	0.9 (△58.0)	0.7 (△60.1)	0.8 (△60.1)	0.7 (△66.2)	0.8 (△63.0)	1.1 (△52.6)	0.7 (△24.3)	0.8 (2.7)	0.9 (23.1)	0.7 (△17.4)	0.9 (△6.0)	0.8 (△9.9)	1.0 (11.8)
부품	0.5 (△71.2)	0.4 (△75.7)	0.4 (△76.8)	0.4 (△77.5)	0.4 (△77.2)	0.6 (△69.1)	0.5 (△15.6)	0.4 (12.4)	0.5 (23.2)	0.4 (△22.3)	0.4 (△15.7)	0.4 (△25.0)	0.5 (△13.3)
주변기기	11.2 (△16.3)	11.9 (△21.3)	14.6 (△15.6)	9.6 (△25.2)	8.9 (△42.7)	10.5 (△25.7)	5.6 (△61.1)	5.8 (△61.7)	7.6 (△55.6)	5.1 (△69.4)	7.4 (△55.6)	7.8 (△50.9)	7.7 (△31.1)
보조기 장치	8.7 (△22.2)	9.8 (△28.0)	12.3 (△19.8)	7.4 (△31.5)	6.8 (△51.3)	8.1 (△34.3)	3.2 (△73.4)	3.7 (△72.0)	5.4 (△61.9)	2.9 (△79.8)	5.3 (△62.5)	5.3 (△60.4)	5.3 (△39.0)
프린터	0.4 (16.0)	0.4 (62.7)	0.4 (19.1)	0.4 (35.3)	0.3 (△4.4)	0.4 (△2.7)	0.3 (△30.2)	0.3 (1.8)	0.3 (△24.4)	0.3 (△22.2)	0.3 (△20.6)	0.4 (△4.1)	0.3 (△20.2)
모니터	1.1 (51.7)	1.0 (64.3)	1.1 (55.9)	1.1 (56.1)	1.1 (41.7)	1.2 (35.8)	1.1 (△15.8)	1.2 (21.9)	1.3 (0.6)	1.2 (12.9)	1.2 (7.5)	1.3 (23.2)	1.3 (24.7)

자료 : IITP, KTSPI

그림 1-15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11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2년 연간				2023년						
					7월 당월				7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미국	64.0	12.7	37.0	중국(홍콩)	4.0	31.1	46.0	16.9	-50.5	31.9
2	중국(홍콩)	51.4	-19.6	29.7	미국	1.5	-69.9	16.9	12.7	-69.0	24.0
3	네덜란드	7.2	52.2	4.2	베트남	0.6	58.6	6.6	3.3	35.4	6.3
4	일본	6.8	22.8	4.0	일본	0.4	-12.3	4.4	3.0	-39.8	5.6
5	대만	4.4	-10.6	2.5	대만	0.2	5.6	2.5	1.6	-44.6	3.1
6	베트남	4.3	194.9	2.5	폴란드	0.2	-31.2	2.4	1.7	-15.1	3.3
7	싱가포르	4.2	-1.5	2.5	필리핀	0.2	135.2	2.0	1.1	157.8	2.1
8	멕시코	4.0	-15.4	2.3	독일	0.2	-15.6	1.8	1.0	-48.5	1.9
9	폴란드	3.4	36.4	2.0	헝가리	0.2	201.9	1.7	0.7	-32.3	1.3
10	체코	2.9	6.3	1.7	싱가포르	0.1	-47.6	1.7	1.3	-55.4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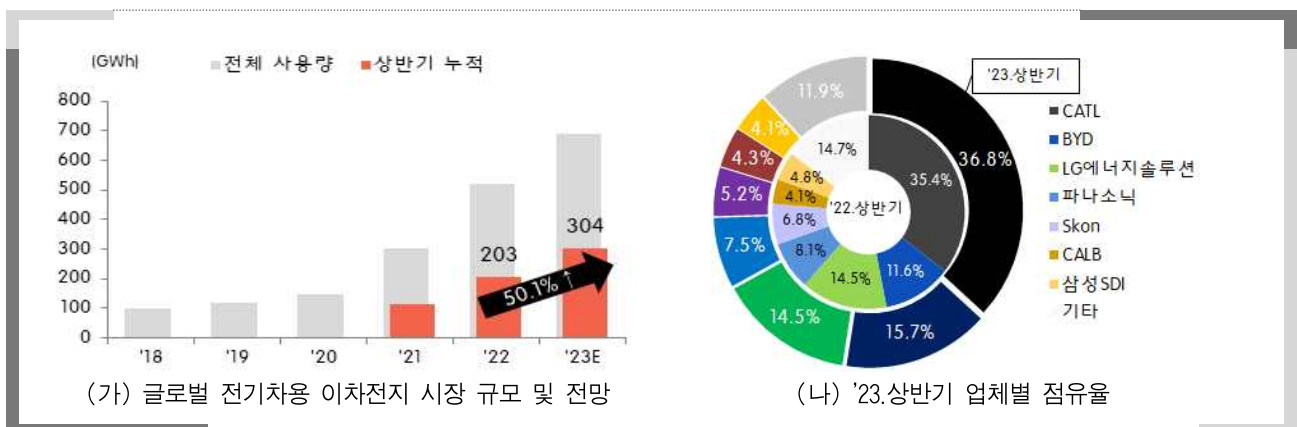
자료 : IITP, KTSPI

1) 수출 환경

□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 호황 속 국내 업체의 상반기 실적은 성장, 다만 점유율은 하락 지속

- (시장 규모 및 전망) '23.상반기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50.1% 증가한 304.3GWh를 기록(SNER, '23.7월)
 - 미국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테슬라의 공격적인 가격 인하 전략, 주요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라인업 확대 등 전방 시장 성장에 힘입어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은 호황이 지속되면서 '23.상반기 역시 두 자릿수대 상승 폭을 기록하며 뚜렷한 성장 기초를 유지
 - ※ '23.상반기 전기차(BEV+PHEV, 상용차 포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1.7% 증가한 616.1만 대를 기록
 - '23.하반기도 견조한 전기차 수요와 더불어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이차전지 산업 육성 정책(美 IRA 등)이 이어지면서 양호한 흐름이 지속될 전망
- (경쟁 동향) 상반기 실적 기준, 국내 3사는 모두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했으나 중국 업체의 높은 성장세에 밀려 합산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2.3%p 감소
 - 유일하게 30%대 점유율을 지속하고 있는 CATL(112.0GWh, 56.2%↑)은 유럽 시장 진출 등에 힘입어 상승 기록. BYD(47.7GWh, 102.4%↑)도 견조한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성장률을 기록하며 2위에 랭크
 - 국내 3사인 LG에너지솔루션(44.1GWh, 50.3%↑), SK On(15.9GWh, 16.1%↑), 삼성SDI(12.6GWh, 28.2%↑)도 실적이 모두 증가하며 3, 5, 7위를 기록하였으나 합산 점유율은 26.1%→23.8%로 축소

그림 1-16 | 글로벌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 규모 및 전망, '23.상반기 업체별 점유율



자료 : SNE리서치, 2023.7.

- ※ 미국 내 테슬라용 이차전지 주요 공급사인 파나소닉은 ‘모델Y’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4위를 기록. 다만 美 IRA 시행, 파나소닉의 생산능력 제한 등으로 최근 테슬라가 LG에너지솔루션을 미국 내 이차전지 공급사로 추가 선정함에 따라 파나소닉과 LG에너지솔루션 간 양분 구도가 구축될 전망. 향후 점유율 변화에도 귀추가 주목

□ 전기차 가격 인하 경쟁 속, 저렴한 LFP 이차전지 채택이 증가하며 NCM 시장을 위협

- LFP 이차전지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CATL은 충전속도와 주행거리를 대폭 늘린 LFP 신제품을 출시. 국내 업체들도 LFP 시장 진입을 위해 고군분투
 - LFP의 단점으로 꼽혔던 낮은 에너지 밀도, 짧은 주행거리 등이 기술 발전과 함께 삼원계(NCM) 이차전지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보완되면서 LFP 이차전지 시장 점유율('20년 5.5%→'21년 16.9%→'22년 27.2%)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한국경제, 8.17일, 원소스 EV Volume)
 - ※ '23.1분기 글로벌 전기차 이차전지 시장에서 LFP 비중은 35%까지 늘어난 것으로 관측(SNE리서치)
 - 세계 전기차 2위 업체인 테슬라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중국산 LFP를 채용한 ‘모델Y 후륜구동’을 선보였는데, 이는 NCM 이차전지를 탑재한 ‘모델Y 롱레인저’보다 가격이 무려 2,000만 원 이상 저렴. 완성차 업체 간 가격 인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양상 속 LFP 이차전지 채용은 더욱 증가할 전망
 - 한편 LFP 기술 개선 선두주자인 CATL이 주행거리 등을 보완한 LFP 이차전지 신제품 ‘센싱’을 공개(8.17일)해 눈길. 일각에서는 긴 주행거리 등이 장점인 삼원계 이차전지의 입지 축소를 우려
 - ※ CATL은 ‘센싱’이 10분 급속 충전으로 400km를 주행(NCM의 경우 30분 급속 충전에 500km 주행 가능)할 수 있고 최대 주행거리는 700km 이상이라 설명하며 '23년 말 양산을 시작할 것이라 발표
 - 이에 국내 3사는 현재 LFP 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으며 LG에너지솔루션은 연내 ESS용 LFP 이차전지 양산을 시작할 예정. 삼성SDI도 울산 공장에 LFP 이차전지 생산라인을 구축할 것이라 예고
 - 중저가 전기차 시장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성장에 따른 ESS 보급 확산으로 LFP 이차전지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만큼 국내 업체도 LFP 시장 후발주자로 참전해 추격에 나설 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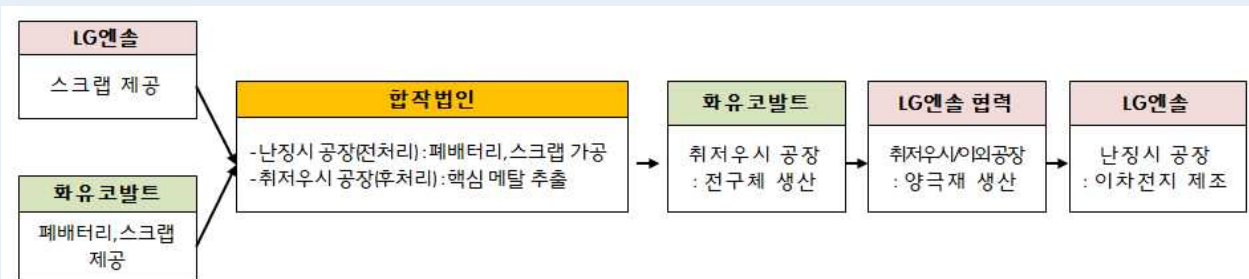
□ 전고체 vs 반고체 차세대 배터리 경쟁이 치열해질 양상, 이차전지 재활용 시장에도 주목

- 글로벌 업체들은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집중하는 반면 中은 ‘반고체’ 배터리를 채택해 눈길
 - (일본) 전해질이 액체(리튬이온)가 아닌 고체 형태인 전고체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액체 대비 에너지 밀도, 안전성 등이 높아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日 도요타는 전고체 관련 특허 1,000개 이상을 확보하며 '27~'28년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할 것이라 발표('23.6.13일)
 - ※ 도요타는 10분 이하 충전으로 1,200km(현 EV의 2.4배 수준)를 주행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EV에 장착해 선보일 계획
 - 배터리 종주국이었던 일본은 한·중에 빼앗긴 배터리 시장의 최강자 타이틀을 다시 되찾기 위해 액체→고체로 시장 판도를 뒤집어 선두권 지위 회복에 매진할 방침



- **(한국)** 국내 업체들도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진행 중이며 삼성SDI는 올해 하반기부터 샘플(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생산을 진행하고 '27년부터는 본격 양산에 돌입할 예정
 - ※ LG에너지솔루션의 전고체 배터리 양산 시점은 고분자계의 경우 '26년, 황화물계는 '30년을 목표로 제시. SK On도 '25년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완성하고 '29년 양산을 목표로 설정
 - **(중국)** 반면 중국은 액체와 고체 사이인 '반고체' 배터리를 앞세워 시장 구도를 뒤집으려 시도해 눈길. 전고체 상용화까지 상당한 기간 소요, 기술적 난제, 높은 비용 등의 문제가 있어 대안으로 전해질이 '젤' 상태인 반고체 배터리를 채택한 것으로 분석
 - 中 위라이언(WeLion)은 완성차 업체 '니오'의 신형 ES6('23.5월 출시)에 반고체 배터리를 공급하며 상용화의 포문을 연 데 이어 글로벌 배터리 1위 업체인 CATL도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
 - ※ 니오 ES6에 탑재된 위라이언의 반고체 배터리의 주행거리는 약 700k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에너지 밀도는 261Wh/kg으로 CATL의 리튬이온 배터리(180Wh/kg)보다 높은 것으로 관측. 또한 CATL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 반고체 배터리는 위라이언의 에너지 밀도보다 40% 개선된 500Wh/kg에 달할 것이라 발표해 눈길
- 치열한 경쟁 속, 중국 내 처음으로 한·중 이차전지 재활용(리사이클) 합작법인을 설립해 눈길
- **(LG에너지솔루션)** 중국 1위 코발트 생산 업체인 화유코발트와 이차전지 리사이클을 위한 한·중 합작법인을 설립해 주목(8.7일). 양사는 이차전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스크랩, 수거된 폐배터리에서 니켈·코발트·리튬 등의 핵심 원재료를 추출하고자 난징·취저우에 공장을 건설할 예정
 - ※ 中 장쑤성 난징시에는 스크랩을 처리하고 폐배터리를 가공하는 前처리 공장을, 저장성 취저우시에는 재활용 메탈을 처리하는 後처리 공장을 세울 계획
 - 해당 공장은 올해 착공을 시작으로 '24년 말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며 생산된 메탈은 양극재 생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난징 이차전지 생산 공장에 공급될 예정
 - 이로 인해 LG에너지솔루션은 자원 선순환을 통한 핵심 원재료 수급에 안정성 제고, 화유코발트는 재활용 물량 및 판매처 확대 등의 이익을 취할 것으로 관측되며 양사는 향후 파트너십 협력을 더욱 확대해 이차전지 재활용 시장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

○ (참고) LG에너지솔루션과 화유코발트 재활용 합작법인의 공급망 구조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2) 수출 동향

□ '23.7월 축전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0% 감소한 7.4억 달러를 기록

- **(품목별)** '22.7월 역대 7월 수출 중 최대 실적을 달성한 데 따른 역기저효과 등으로 하락 기록
 - ※ 역대 7월 축전지 수출 Top3(억 달러, IITP, KTSPI) : (1위) '22년 8.8, (2위) '21년 7.9, (3위) '23년 7.4
 - (축전지 : 6.8억 달러, $\Delta 17.0\%$) 국내 업체의 축전지 수주는 증가하고 있으나 해외 생산 물량 확대, '22.7월 최대 수출 달성에 따른 역기저효과 등으로 전기차용(2.2억 달러, $\Delta 12.2\%$)·에너지 저장장치용(1.7억 달러, $\Delta 6.9\%$) 등이 반락하며 감소
 - (부분품 : 0.6억 달러, $\Delta 4.8\%$) 미국에 이어 중국(홍콩 포함) 등의 부진으로 2개월 만에 다시 하락 전환
- **(지역별)** 일본 등은 견조세가 지속되나 미국·독일·중국(홍콩 포함) 등의 부진으로 하락
 - 축전지 최대 수출국인 미국(3.4억 달러, $\Delta 8.3\%$)은 전기차용(2.2억 달러, $\Delta 12.2\%$), ESS용(1.7억 달러, $\Delta 6.9\%$) 등의 하락으로 감소 기록
 - 독일(0.5억 달러, $\Delta 38.9\%$)도 축전지 감소폭이 전월 대비 22.8%p 확대되면서 2개월 연속 하락
 - 일본(0.4억 달러, 45.1%↑)은 부분품($\Delta 73.6\%$) 감소에도 불구하고 ESS용(0.3억 달러, 98.0%↑) 축전지 수요 호조 등을 중심으로 6개월 연속 성장
 - 중국(홍콩 포함, 0.3억 달러, $\Delta 50.6\%$)은 축전지(0.2억 달러, $\Delta 50.8\%$)의 반락, 부분품(0.1억 달러, $\Delta 50.5\%$)의 역성장 등으로 '23.6월을 제외하고 '21.3월 이후 장기간 부진을 지속

표 1-12 축전지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2.7	8	9	10	11	12	'23.1	2	3	4	5	6	7
축전지	8.8 (12.1)	9.4 (35.9)	9.5 (30.8)	8.0 (17.0)	7.3 ($\Delta 1.0$)	9.6 (30.0)	8.0 (9.7)	8.6 (24.8)	8.7 (0.8)	7.8 ($\Delta 4.3$)	8.0 ($\Delta 4.9$)	9.3 (16.1)	7.4 ($\Delta 16.0$)
축전지	8.2 (15.0)	8.7 (41.3)	8.8 (34.2)	7.5 (19.1)	6.7 ($\Delta 1.3$)	8.9 (32.4)	7.5 (13.8)	8.1 (29.0)	8.1 (2.3)	7.2 ($\Delta 3.1$)	7.4 ($\Delta 4.3$)	8.6 (17.6)	6.8 ($\Delta 17.0$)
부분품	0.7 ($\Delta 15.2$)	0.7 ($\Delta 10.7$)	0.6 ($\Delta 7.3$)	0.5 ($\Delta 9.5$)	0.6 (1.5)	0.6 ($\Delta 0.2$)	0.5 ($\Delta 25.6$)	0.5 ($\Delta 20.2$)	0.6 ($\Delta 14.4$)	0.5 ($\Delta 18.3$)	0.6 ($\Delta 12.1$)	0.6 (1.6)	0.6 ($\Delta 4.8$)

자료 : IITP, KTSPI



그림 1-17 축전기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13 축전기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2년 연간				2023년						
					7월 당월				7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미국	41.1	50.0	41.1	미국	3.4	-8.3	45.3	27.7	29.0	47.8
2	독일	10.4	5.0	10.4	독일	0.5	-38.9	7.3	4.7	-20.4	8.2
3	중국(홍콩)	6.8	-33.7	6.8	일본	0.4	45.1	5.7	2.6	20.5	4.5
4	일본	4.7	35.0	4.7	중국(홍콩)	0.3	-50.6	4.2	2.7	-34.4	4.7
5	베트남	4.6	17.9	4.6	벨기에	0.2	231.4	3.1	1.7	431.9	3.0
6	폴란드	3.2	-44.4	3.2	인도	0.2	85.5	3.0	2.1	152.5	3.7
7	헝가리	3.1	20.7	3.1	베트남	0.2	-60.4	2.9	1.7	-49.1	2.9
8	인도	2.4	353.3	2.4	호주	0.2	2.3	2.9	1.0	-22.5	1.8
9	대만	2.2	190.9	2.2	헝가리	0.2	-2.8	2.3	1.3	-29.8	2.3
10	호주	1.9	-8.3	1.9	멕시코	0.2	68.3	2.2	0.3	-62.4	0.5

자료 : IITP, KTSPI

7 SW

1) 수출 환경

□ '23년 글로벌 SW 시장, 대부분 국가에서 상승 곡선을 보이며 지속적 확장세 기대

- **(시장 전망)** 글로벌 디지털 전환 수요 확대 등에 따라 IT서비스·패키지SW 동반 성장이 지속되면서 전년 대비 10.6% 성장한 2조 3,326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Gartner, '23.6월)
 - 전 세계 불황, 러·우 전쟁 및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긴장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AI·클라우드·IoT 등 신기술 영향력 확대에 따른 업체들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SW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IT서비스 : 1조 4,209억 달러, 8.8%↑) 유튜브·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시장 확대,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 활성화, Xbox 등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따라 데이터가 폭증하면서 클라우드 시장이 성장. 이에 따라 IaaS 부문(22.6%↑)이 고성장을 달성하는 등 오름세 예상
 - (패키지SW : 9,117억 달러, 10.6%↑)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 경쟁 우위 확보 등을 위해 자동화 및 소프트웨어 혁신을 위한 투자를 지속함에 따라 인프라SW(14.9%↑)·기업 애플리케이션SW(13.4%↑)·사용자 지향형SW(10.7%↑) 등 주요 부문이 동시에 성장하면서 두 자릿수 증가를 기대
- **(국가별)** 북미·서유럽·신흥국을 중심으로 상위 20개 모든 국가에서 SW 시장 성장을 예상
 - 압도적인 비중(46.2%)으로 SW 시장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은 IT서비스(8.4%↑)와 패키지SW(13.7%↑)가 동반 성장하면서 전년 대비 10.7% 증가한 1조 769억 달러로 확대를 전망
 - 상위 20개 국가 중 멕시코(17위, 15.8%↑)가 최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스위스(16위, 14.9%↑)·스페인(12위, 13.6%↑)·벨기에(19위, 13.3%↑) 등 서유럽 국가와 중국(4위, 13.0%↑)·인도(9위, 10.5%↑) 등 신흥국도 두 자릿수 성장률로 호조를 기록하며 가파른 성장을 예상
 - 국내 SW 시장은 IT서비스(8.9%↑)·패키지SW(13.7%↑)가 동시에 성장을 견인하며 전년 대비 10.3% 증가한 294억 달러 규모 달성을 예상. 또한 세계 시장 내 1.3% 비중을 차지하며 상위 13위에 오를 전망

그림 1-18 전 세계 및 국가별 SW 시장 전망






자료 : Gartner, 2023.6.



□ 삼성SDS가 수출 호조를 기록한 가운데 국내 IT서비스 업체는 경쟁력 강화 도모

- 삼성SDS가 국내 IT서비스 업체 중 '22년 최대 수출액을 달성하는 등 선전하는 가운데 LG CNS는 로봇 플랫폼을 통한 물류 역량 강화, SK C&C는 컨설팅 전문 자회사 출범 등 사업 역량 증진을 위해 노력

표 1-14 국내 IT서비스 업체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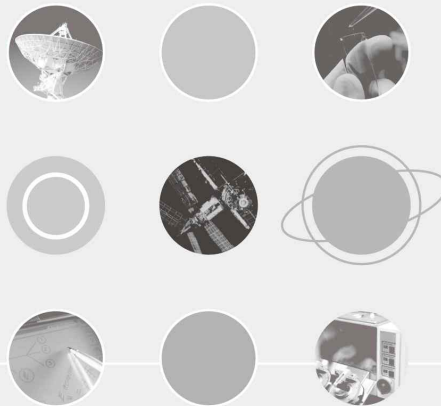
업 체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주요 IT서비스 업체 중 최대 수출액을 기록하는 등 해외 사업에서 가파른 성장을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첼로스퀘어(디지털 물류 플랫폼)를 활용한 첨단 물류 서비스 지원 등 물류 사업의 해외 진출 확대 등으로 동 사의 '22년 수출액이 전년 대비 10.0% 증가한 12조 2,900억 원을 기록하면서 국내 주요 IT서비스 업체 중 최대를 기록(NIPA, '23.7월, 원소스 삼성SDS 사업보고서) ※'22년 국내 IT서비스 업체 수출액 및 순위(단위 : 천억 원) : (삼성SDS, 1위) 122.9, (LG CNS, 5위) 7.3, (SK C&C, 11위) 3.2 -'22년 매출(17조 2,347억 원, 26.4%↑) 중 수출 비중은 71.3%를 기록했으며, 이 중 37.4%가 미국 시장에서 발생하는 등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사업이 성장세를 지속 ※삼성SDS 매출 중 수출 비중 추이 : ('20년) 60.5% → ('21년) 64.4% → ('22년) 71.3% -한편 동 사는 적극적인 협업 체결, 클라우드 전환 및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사업 확대, 기업에 특화된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다른 형태의 로봇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로봇 통합운영 플랫폼'을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인운송로봇(AGV), 자율이동로봇(AMR), 오토스토어(AutoStore), 분류 로봇 등 다양한 로봇의 제어 시스템을 연동해 통합적으로 제어·관리·운영할 수 있는 '로봇 통합운영 플랫폼'을 개발 ※오토스토어(AutoStore)는 물건의 보관·적재·이동 등이 가능한 큐브 형태의 물류창고 로봇 -해당 플랫폼은 모든 로봇의 데이터 실시간 수집·분석, 최적화 모델 활용 등을 통해 로봇별로 일일이 명령을 입력하지 않아도 로봇들이 협동해 최단경로, 최소시간으로 물품을 이동하도록 하며 로봇의 동선, 작업 처리결과 등의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 -또한 전 세계 로봇 SW 분야에서 가장 폭넓게 활용되는 로봇 제어용 오픈소스 'Open-RMF(Robot Middleware Framework)'를 기반으로 설계해 범용성을 확보 -한편 동 사는 로봇 플랫폼 개발에 앞서 '로봇 구독 서비스(RaaS, Robot as a Service)'를 선보이기도 했으며, 로봇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플랫폼 기술 고도화 및 연동 가능한 로봇 확대를 계획하는 등 물류 고객의 비즈니스 혁신을 이끄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역량 강화, 신규 고객 발굴 등을 위해 디지털 컨설팅 자회사 '애커튼 파트너스' 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생산·연구·개발·품질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기반 혁신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는 동 사는 컨설팅 사업 확대를 위해 전문 자회사인 '애커튼 파트너스'를 출범 -애커튼 파트너스는 모회사가 축적한 IT서비스 역량 및 프로젝트 경험을 결합해 디지털 전환 전략, ESG 전략, PI(Process Innovation),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제조 엔지니어링, 디지털 전환 기술 등 사업 전략부터 운영 및 실제 적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 ※모회사(SK C&C)가 장기간 시장 경험을 쌓아온 제조·통신·ESG 등 디지털 변화 속도가 빠른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시장에 빠르게 정착하고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예정 -또한 주요 산업·디지털 기술별 전문가 배치 등을 통해 고객 요구 사항과 최신 기술을 결합하고 업무 중심의 구체적 전략 및 실행 방안을 제시해 고객의 디지털 전환 만족도를 확대할 계획 -한편 애커튼 파트너스는 금융·공공 분야 대형 사업과 연계한 ISP, 고객 경험 혁신 지원 사업, AI 전문가 컨설팅 사업 등도 강화해 나갈 예정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II

트레이드 GPS





II 트레이드 GPS⁴⁾

1 UAE - 무선통신시스템

□ UAE, ICT 및 5G 이동통신 산업 투자를 지속하면서 무선통신시스템 수요 증가 전망

- UAE가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라 ICT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 집행 및 관련 투자를 확대하면서 최첨단 기술 운영의 핵심인 5G 이동통신 시장도 성장을 기대
 - '17년 UAE는 장기적 비전을 갖춘 유연한 정부, 교육 투자, 세계적 경쟁력 및 다양성을 갖춘 경제, 사회적 화합 등 4개의 세부 목표에 대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건국 100주년인 '71년까지 글로벌 최고 국가를 이룩하겠다는 'UAE 100주년 2071(UAE Centennial 2071)' 계획을 공개
 - 이와 맞물려 '19년 자원·에너지, 물류·운송, 관광, 보건 의료, 사이버 보안을 AI 발전 우선 분야로 선별하고 교육·경제·정부·지역사회에 활용해 AI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UAE 국가 AI 전략 2031(UAE National Strategy for AI 2031)'을 수립
 - 또한 두바이에 신기술 정책 입안, 블록체인·AI 등의 영향 분석, 정부·업계·국제기구 등과 신기술 규범에 대한 공동작업 등을 수행하는 4차 산업 혁명센터를 유치
 - '21년에는 차세대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프로젝트 50(Projects of the 50)'을 발표하며 비자 및 취업 허가 개편을 통한 우수 인재 확보,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캠페인, 첨단 기술 지원 및 4차 산업혁명 분야 선도 기업 양성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1차 프로젝트를 공개
 - ※ 건국 50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50년을 바라본다는 의미의 프로젝트 50은 경제 발전 가속화, 일자리 창출, 산업 전 분야의 종합 허브 구축, 인재 및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국가 확립 등을 지향하는 총 50개 프로젝트로 구성되며 250억 디르함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산업생산량 30% 증대가 가능할 전망
 - '22년에는 두바이를 전 세계 10대 메타버스 경제 도시로 만들고 메타버스 관련 글로벌 허브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AI·XR·IoT·머신러닝·클라우드 등 차세대 기술에 중점을 둔 '두바이 메타버스 전략(Dubai Metaverse Strategy)'을 발표
 - ※ 두바이 메타버스 전략에 따라 1,000개 이상의 블록체인·메타버스 회사 유치, 메타버스 인프라 및 규정 개발,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 등을 시행
 - 또한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하여 석유 의존적 경제 구조 탈피 및 산업다각화를 위한 제조업 육성 프로그램 'Make it Emirates'를 출범. 이에 따라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 산업에서 시작한 제조업을 우주·항공·기계 등으로 확장할 계획

4) 트레이드 GPS는 ICT 유망시장, 품목에 대한 동향 및 ICT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

※ Make it Emirates의 일환으로 UAE는 매년 40억 달러 규모의 UAE 첨단기술제품 수출을 목표로하는 국가산업역량 강화센터를 설립했으며, 약 1,000개 기술 프로젝트를 통해 제조업 자동화를 추진

○ 조기에 기술 개발에 착수하는 등 5G 이동통신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UAE 5G 이동통신 시장은 오름세가 기대되며 무선통신시스템 수요도 확대를 예상

- UAE는 '16년부터 5G 이동통신 기술인 IMT-2020 도입을 위한 최첨단 기술 시험을 수행하는 등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통신 부문 성장을 위해 발 빠르게 노력

※ IMT(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s)-2020은 '15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채택한 5세대 이동통신의 공식 명칭으로, 초당 최대 20Gbps 데이터 전송 속도, 1ms 이내의 짧은 전송 지연, km²당 최대 15만 광대역 접속 가입자 연결 등 초고속·초연결·실시간 서비스가 가능한 기술

- '17.12월 UAE TDRA(통신규제청)는 IMT-2020 적용 및 5G 이동통신 상용화 선도국을 목표로 주파수, 수직산업, 네트워크 등 3개의 기술 위원회를 설치했으며, '18년부터 단계적인 5G 이동통신 배치, 인프라 개발 등을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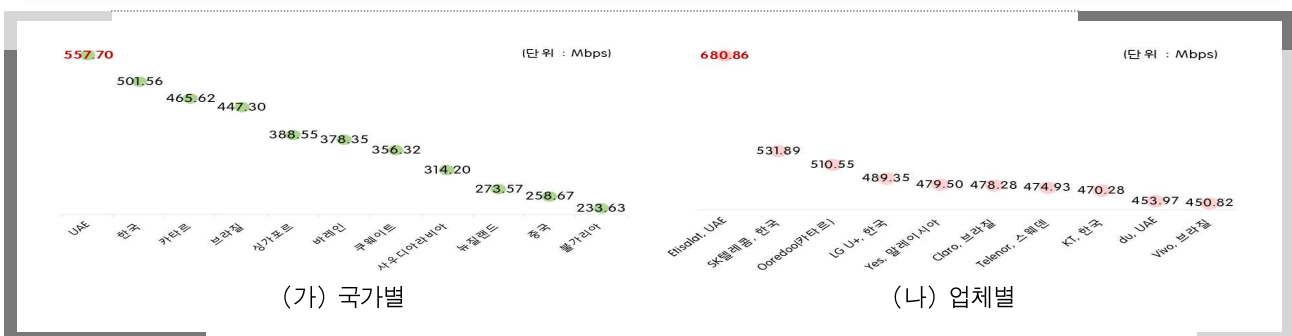
※ 주파수 위원회는 주로 무선 주파수, 호환성 연구 등을 중심으로 5G 주파수 개방 관련 사항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위원회는 차세대 모바일 네트워크, 네트워크 준비상태,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 한편 수직산업 위원회는 IoT, V2X(차량·사물 통신) 등 이동통신 활용 관련 연구를 진행

- 이후 '19.5월 UAE 최대 통신 업체 Etisalat이 상업적 용도의 스마트폰을 지원하는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UAE는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최초 및 전 세계 네 번째 5G 상용국으로 자리매김

- 한편 UAE는 '23.2분기 전 세계에서 최고 속도를 기록한 5G 시장으로 꼽힌 가운데 Etisalat이 가장 빠른 5G 이동통신 다운로드 속도를 제공하는 업체로 관측(Ookla Speedtest)

※ 미국 Ookla가 개발한 Speedtest는 매일 실시되는 속도 테스트를 기반으로 글로벌 광대역 및 모바일 성능 데이터, 이동통신 업체의 네트워크 성능 모니터링 데이터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품질·속도 측정 도구

그림 2-1 | 국가별 및 업체별 5G 이동통신 다운로드 속도('23.2분기)



자료 : Ookla Speedtest

□ 다양한 산업 내 최첨단 기술 적용 확대 등으로 5G 이동통신 활용도 증가를 기대

○ 풍부한 자금 등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스마트그리드 등 다양한 산업 내 첨단 인프라 구축이 확대됨에 따라 5G 이동통신 활용처도 확대 전망



- **(스마트시티)** UAE는 '08년부터 수도 아부다비에 약 200억 달러 규모의 탄소 중립 도시 마스다르 시티 구축을 시작했으며 첨단 네트워크를 통한 전 구획 스마트화, 청정에너지 설비로 모든 전력을 공급, 첨단 기업 및 연구기관이 밀집된 과학기술 허브 구축 등을 진행할 예정
 - ※ 다만 '07년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 발생 후 '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됨에 따라 마스다르 시티 구축에 제동이 걸리면서 완공 예정일은 '15년에서 '30년까지 밀려난 상태
- 또한 자율주행 택시, 무인 버스 등 최첨단 교통 수단의 실험 및 운용을 활발히 진행 중이며,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도입을 확대하는 등 스마트 교통 인프라 구축을 진행
 - ※ 특히 두바이는 '30년까지 전체 운송 수단의 25%를 자율주행차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수립했으며, 기술 개발, 법안·제도 신설, 인프라 구축, 시범 운행 등 시 기반 자율주행차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
- **(스마트팜)** UAE는 사막 지형 등 농사에 불리한 자연환경 특성 등으로 '21년 기준 전체 GDP 중 농림어업 비중이 0.9%에 불과해 식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러·우 전쟁 등으로 식량 위기가 고조되면서 식량 자급률 개선을 위한 최신 농기술 관련 정부 정책을 운영
 - ※ UAE는 경작지가 전체 국토의 0.6%에 불과하며 식량 수입이 85%를 차지하는 등 안정된 식량 확보 및 글로벌 환경 변화에 취약(한국무역협회, '23.2월)
- 이에 따라 '18년에 '51년까지 식량 안보 지수 1위 달성, 식량 안보 허브 구축 등을 목표로 하는 '국가식량안보전략 2051'을 발표하고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스마트온실 등 첨단 농업기술을 도입하는 등 자국 내 식량 생산 확대를 추진
- 또한 '20년에는 식량 안보 관련 법률·정책 제안 및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는 식량 안보 위원회를 구성
- **(스마트그리드)** 두바이 DEWA(수력전력청)가 '3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약 19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통해 에너지 관리를 개선하는 '스마트그리드와 미터를 통한 어플리케이션' 이니셔티브를 도입하는 등에 따라 전력량 계측·관리·판매가 용이한 스마트그리드 구축이 증가
- 도시, 농림어업, 전력 등 다양한 산업이 지능화됨에 따라 데이터 분석·송수신·저장 등의 효율성 극대화에 용이한 5G 이동통신 수요도 확대될 전망

□ 한국-UAE, 외교 활동 활성화로 5G 등 최첨단 ICT 관련 교류도 증가 전망

-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 등 한국과 UAE의 교류 활로가 개척되면서 정부 기관 및 기업의 5G 이동통신 등 차세대 ICT 기술 협력 확대에 따른 동반 성장을 기대

표 2-1 한국 - UAE 주요 외교 활동

날 짜	내 용
'21.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중동 국가 최초로 UAE와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에 합의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FTA와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양국 간 상품인력 이동뿐만 아니라 포괄적 교류 및 협력까지 포함




'22.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과 GCC(걸프협력회의) 6개국은 '09년 이후 중단된 자유무역협정(FTA)을 재개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으며, '23.7월 방한한 UAE 경제부 장관과 한국 - GCC FT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상호 노력에 합의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의 지역협력기구로, 한국의 對중동 교역에서 GCC 비중이 약 78%를 차지(한국무역협회, '22.1월)
'23.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 및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는 등 ICT 분야 투자 협력 및 기업 진출 지원을 확대 ※'80년 양국 수교 이래 첫 국빈 방문이자 한국 대통령으로는 10번째 UAE 방문 •또한 중소기업부가 UAE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TF를 구성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이 UAE 아부다비 교통부와 '수소모빌리티 보급을 위한 업무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다양한 정부 기관에서 UAE와 ICT 협력을 확대 •한편 한국 정부가 국내 기업의 UAE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3.1월 한국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 당시 'UAE 경제사절단'을 모집하여 다수의 기업이 참여해 성과를 창출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국 정상회담 공동선언의 일환으로 UAE 대표단이 방한해 에너지·ICT 등 우선투자협력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투자 기회를 모색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UAE 경제부 장관의 방한 및 회담을 통해 '23.1월 국빈 방문 시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점검했으며, 무역·투자·첨단산업·기술·에너지 등 향후 경제협력 발전 방향을 논의 ※1월 국빈 방문 성과로 도출된 총 48건·61억 달러 규모 계약 및 업무협약,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확약, 2차례의 서틀 경제협력단 파견 성과 등이 원활히 추진 중임을 확인했으며, 추가적인 실질 성과 창출을 위한 공동 협력을 다짐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 (업체 동향) 통신 장비 업체들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지 공급을 늘리며 입지 확대

- 노키아·화웨이 등 글로벌 통신 장비 업체가 UAE向 이동통신망 구축, 기술 배포 등을 확대 하며 현지 내 입지를 다지는 가운데 삼성전자 등 국내 업체도 공급 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

표 2-2 주요 통신 장비 업체별 동향

업 체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UAE 기업의 디지털 전환, 다양한 산업의 운영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Etisalat과 5G 시설망 구축 협업을 진행 -'22.3월 Etisalat과 아부다비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5G 시설망 구축 계약을 체결 -이에 따라 항만·석유·가스 등 다양한 산업에 5G 시설망을 적용하고 엣지 컴퓨팅, 매크로 및 마이크로 크기의 모듈식 시설 무선(MPW), 디지털 자동화 클라우드(DAC)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 •UAE 통신업체 Du와 4G·5G FWA를 제공하기 위한 MAG 배치 계약을 체결 -동 사는 UAE 통신업체 Du의 모바일 서비스 외 4G·5G FWA(Fixed Wireless Access)를 통한 가정·업체·고객向 광대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MAG(Multi Access Gateway) 서비스 배치를 진행 ※FWA는 고정된 가입자의 단말과 망 접속점인 기지국을 무선으로 연결하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통신 기술로 서비스 확장성 향상, 커버리지 확대 등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6월 Etisalat과 협력하여 5G 모바일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배포 및 테스트에 성공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하나의 물리적인 코어 네트워크를 다수의 독립적인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하여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고객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기술로 속도 향상, 안정적인 연결성, 업링크(단말기로부터 기지국으로 신호를 올려보내는 통로) 처리량 확대 등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UAE 통신업체와 무선통신시스템 배치 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을 통해 UAE의 이동통신 환경을 개선 -'22.10월 Etisalat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지속 가능 전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동통신 전반에 걸쳐 최신 무선 시스템 포트폴리오 배치 계약을 체결 -이에 따라 Mid-Band 주파수 무선 배치로 전 세대 대비 에너지 효율 약 20% 향상을 달성하는 등 UAE의 이동통신망 발전, 탄소중립 실현 등에 도움을 제공 -한편 '23.2월엔 5G 이중 연결 및 통신업체 통합 소프트웨어 기능을 활용해 UAE의 상용 네트워크에서 업링크 속도 2.1Gbps의 높은 데이터 전송률을 입증함에 따라 원활한 통신이 어려운 산업 환경 등에서 향상된 기능 제공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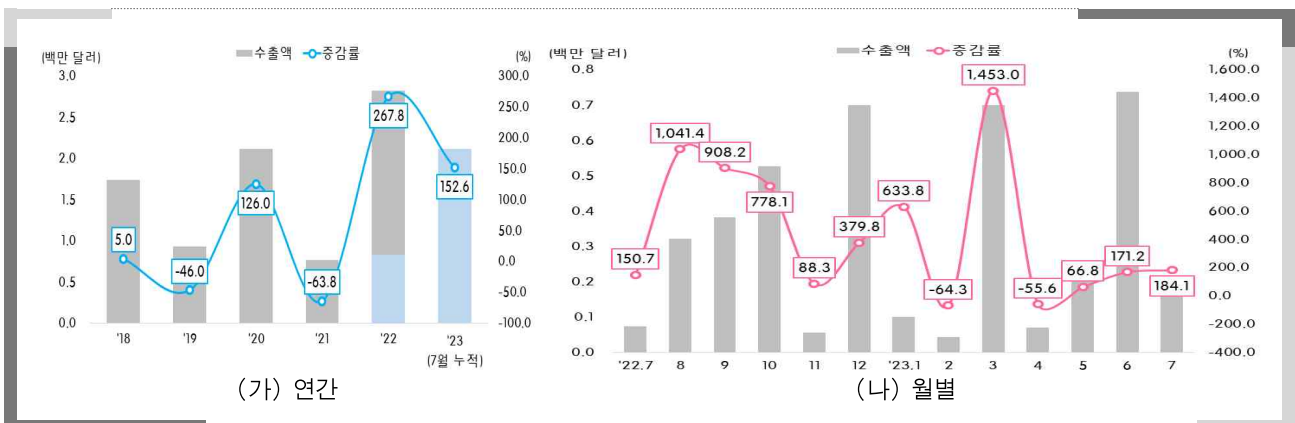


- '22.12월 AI·5G·메타버스 등 UAE의 최첨단 기술 분야의 시장 상황 파악을 위해 아부다비를 방문했으며, '23.1월 한국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에 동행해 5G 등 ICT 분야 사업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등 현지 사업 확장을 도모

□ 對UAE 무선통신시스템 수출은 5G 이동통신 수요처 확대 등으로 호조 기록

- UAE 정부의 AI·메타버스 등 비석유 및 차세대 ICT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 등에 따른 5G 이동통신 필요성 증가 등으로 무선통신시스템 수출은 상승 곡선을 기대
- (연간) '15년(718만 달러, 176.3%↑) 세 자릿수 성장률을 달성하며 역대 연간 수출 2위를 기록했으나 이후 2년 연속 하락세 지속
 - ※ 對UAE 무선통신시스템 역대 상위 연간 수출(만 달러) : (1위, '06년) 889, (2위, '15년) 718, (3위, '12년) 584
- '18년(174만 달러, 5.0%↑)에는 소폭 성장하며 반등했으나 '19년(94만 달러, △46.0%)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하며 '11년(96만 달러, △60.0%) 이후 처음으로 백만 달러를 하회하는 등 부진을 기록
- 다만 '22년(283만 달러, 267.8%↑)에는 고성장을 기록하며 상승 전환 후 '23년에도 7월 누적 기준 212만 달러(152.6%↑)로 오름세를 지속하는 등 수출 호조를 기대
- (월별) '22.4월(16만 달러, 147.6%↑) 세 자릿수 성장을 달성하며 반등 후 10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으나
- '23년 들어서는 (그림 2-2, 나)에 보이는 것처럼 4월까지 큰 폭의 성장과 하락을 반복
- 다만 5월(25만 달러, 66.8%↑)부터 7월(21만 달러, 184.1%↑)까지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향후 수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

그림 2-2 | 對UAE 무선통신시스템 연간 및 월별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2-3 | 對UAE 무선통신시스템 수출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2.7	8	9	10	11	12	'23.1	2	3	4	5	6	7
무선통신 시스템	0.1 (150.7)	0.3 (1,041.4)	0.4 (908.2)	0.5 (778.1)	0.1 (88.3)	0.7 (379.8)	0.1 (633.8)	0.0 (△64.3)	0.7 (1,453.0)	0.1 (△55.6)	0.3 (66.8)	0.7 (171.2)	0.2 (18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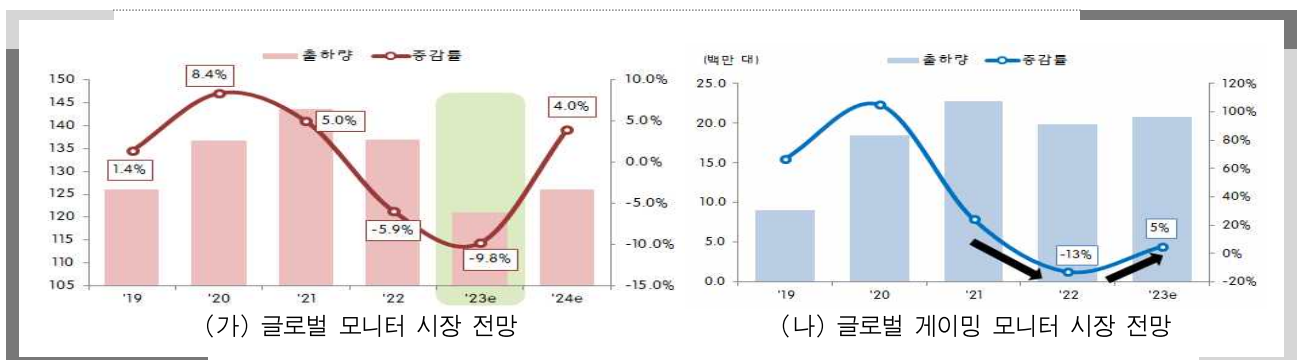
자료 : IITP, KTSPI

2 디스플레이 장치(모니터)

□ e-스포츠에 대한 높은 인기와 OLED로의 교체 수요 등으로 모니터 시장은 회복 기대

- (시장 전망) 글로벌 모니터 시장은 세계 경제 악화 등으로 올해까지 부진하나 '24년 반등 전망
 - 지난해 코로나19 기저효과로 모니터 시장($\Delta 5.9\%$)이 하락 진입한 데 이어 올해($\Delta 9.8\%$)도 고물가·고금리 현상 지속, 전방 PC 시장의 역성장, 소비자들의 IT기기 구매 심리 약화가 이어지면서 2년 연속 내림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IDC, '23.3월)
 - 다만 올해 게이밍 모니터 시장의 반등 전망, LCD → OLED 모니터로의 교체 가속, 게임·엔터테인먼트向 스마트 모니터 출시 등으로 '24년($4.0\% \uparrow$)부터는 상승 전환하며 회복 진입할 전망
 - ※ LCD는 전기 신호→액정의 물리적 회전→백라이트 빛 통과 단계를 거쳐 밀리초(ms, 1/1,000초) 단위의 느린 응답속도⁵⁾를 보이는 반면, OLED는 전기 신호를 가할 경우 OLED 소자가 바로 빛을 내 마이크로초(μ s, 1/1,000,000초) 단위의 빠른 응답속도를 지녀 게이밍 시장에서 장점으로 작용
- (게이밍) 고해상도·고주사율의 게이밍 수요 증가, '23.3분기 아시안게임 내 e-스포츠 개최 등에 힘입어 '23년 게이밍 모니터 시장은 반등 기대
 - 그래픽카드 성능 발전과 함께 사용자의 몰입감, 현실감 등을 극대화하기 위한 초고사양 게임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와 호환 가능한 고주사율 게이밍 모니터(끊김 없는 부드러운 화면 전환이 중요해 통상 144Hz 이상의 모니터를 의미) 수요가 확대
 - 또한 선명도, 입체감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폼팩터 제품(커브드 모니터 등)의 판매 증가와 9.23~10.8일 개최되는 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e-스포츠가 정식 채택되는 등 우호적 환경 속에서 올해 게이밍 모니터 시장(2,080만 대, $5\% \uparrow$)은 성장 전환할 전망(TrendForce, '23.4월)

그림 2-3 | 글로벌 모니터 및 게이밍 모니터 시장 전망



자료 : IDC, 2023.3. / TrendForce, 20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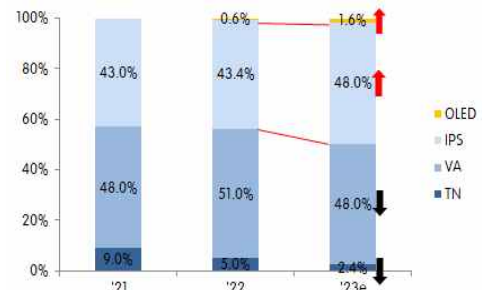
5) 응답속도는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화면이 교체되는 속도를 의미하며 수치가 낮을수록 픽셀 반응 속도가 빨라 선명한 영상 구현이 가능. 반면 수치가 높을 경우에는 기존 장면이 남는 잔상이 늘어나 화면이 흐릿하게 나타나는 현상 발생

- **(OLED)** 게이밍과 더불어 콘텐츠 감상 및 편집용 등으로도 선명하고 뚜렷한 초고화질 모니터 수요가 요구되면서, 기존 시장 진영의 변화(LCD → OLED)가 감지
- 응답속도·선명도 등의 측면에서 LCD 대비 강점을 지닌 OLED 모니터가 최근 잇따라 출시되면서 글로벌 모니터 시장 내 OLED 모니터 비중('22년 0.6% → '23년 1.6%)이 확대
 - ※ (참고) 전 세계 모니터용 OLED 패널 출하량은 ('22) 16만 대 → ('23e) 80만 대 → ('24e) 174만 대로 전망되며, 2년 만에 10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관측(OMDIA)
- 특히 글로벌 4K(3,840×2,160) 게이밍 모니터 시장에서 OLED 비중은 '22년 7.3% → '23년 32.1%로 큰 폭 늘어나고 '25년에는 절반을 넘어선 61%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OLED 모니터가 게이밍 시장 주류로 본격 자리 잡을 전망(서울경제, 7.10일, 원소스 OMDIA)

표 2-4 | 모니터 패널별 비교 및 모니터 시장 내 패널별 비중

	LCD			OLED
	TN	VA	IPS	
응답속도	빠름	매우 느림	보통	매우 빠름
시야각	매우 좁음	넓음	매우 넓음	매우 넓음
명암비	보통	매우 좋음	중음	매우 좋음
색표현력	중지 않음	매우 좋음	중음	매우 좋음
가격	낮음	보통	높음	높음
비고	게이밍에 제격	SDC 생산	LGD 생산	번인 문제

(가) 모니터 패널별 비교



(나) 모니터 시장 내 패널별 비중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 TrendForce, 2023.4.

□ 글로벌 업체들은 게이밍 등을 겨냥한 고성능 제품 출시에 주력, OLED 모니터 등도 눈길






- 고사양 게임 증가, 콘텐츠 화질 및 선명도의 발전 등으로 고주사율·고해상도 모니터 수요가 증가하면서 업체들은 독자 기술을 통한 화질 보완과 연결성을 강화한 제품들을 잇따라 출시

표 2-5 | 주요 모니터 업체별 동향

업체명	주요 내용
글로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이밍용 27인치 모니터 2종('에일리언 웨어', 'G2724D')과 업무용 37.5인치 제품('U3824DW')까지 총 3종의 신모델을 공개(6.29일) - 에일리언 웨어는 360Hz의 주사율, 0.5ms GTC⁶⁾의 빠른 응답속도, FHD(1,920×1,080) 해상도⁷⁾를 구현하였고 G2724D는 165Hz 주사율, 1ms GTC의 응답속도, QHD(2,560×1,440) IPS 패널을 채용해 최적의 게임 플레이 환경을 제공 - U3824DW는 편집 시 화질 및 색감이 중요한 크리에이터들을 겨냥한 제품으로 WQHD+(3,840×1,600) IPS 블랙 패널(일반 IPS 대비 2배에 달하는 2,000:1의 명암비)을 적용해 색상 표현력 및 선명도 등이 우수하며 응답속도도 5ms로 비교적 준수한 수준 - 또한 커브드 패널을 적용해 시야각이 178°에 달하는 점도 특징

6) Grey To Grey로 회색에서 회색으로 가는 색 전환 속도이며 구체적으로는 회색 음영이 10%에서 90%까지 변환되는 속도를 의미



글로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5인치에 170Hz 주사율, 1ms(MPRT⁸) 응답속도, FHD 해상도의 패널을 적용한 'TUF Gaming VG328QA1A' 게이밍 모니터를 출시(7.6일) - 해당 모니터는 어두운 영역을 더욱 선명하게 나타내 주는 '새도우 부스트', 모니터 깜빡임 현상을 최소화하는 '로우 블루라이트', 번짐 및 모션 블러를 최소화해 움직이는 물체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 주는 자사의 초저모션 블러 기능 'ELMB(Extreme Low Motion Blur)' 등의 기술을 적용 보완하여 최적의 게이밍 환경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이밍 수요를 겨냥한 가성비 27인치 모니터 'G2722'를 출시해 눈길(7.31일) - 해당 제품은 현재 170Hz 주사율, 1ms(MPRT) 응답속도, FHD 해상도의 IPS 패널을 탑재하였으며 상하좌우 178°의 시야각을 갖춘 것으로 관측 - 또한 컴퓨터 게임 이외에도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스위치, XBOX 등의 콘솔게임기에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자사의 콘솔모드 'HDMI CEC' 기능을 추가해 콘솔 게임 시에도 별도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최적화된 설정으로 연결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5일에 개최된 아시아 권역 국제 리그 '발로란트 챔피언스 투어(Valorant Champions Tour, VCT) 퍼시픽 대회'에서 벤큐의 제품이 공식 경기용 모니터로 채택돼 주목 - 채택된 모니터는 '조워 XL2566K'로 360Hz의 초고주사율을 지원하며 응답속도가 빠른 TN 패널이 탑재. 또한 자사의 독점 기술인 DyAc+(Dynamic Accuracy Plus)도 적용해 움직임이 많은 FPS 게임 시 잔상 없는 부드러운 화면 전환 등에 탁월한 점이 특징 - e스포츠의 위상이 드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 게이밍 모니터를 기반으로 점유율 확대에 나설 방침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11월 출시한 34인치 '오디세이 OLED G8'에 이어 세계 최초로 OLED에 듀얼 QHD(5,120 × 1,440) 해상도를 접목한 '오디세이 OLED G9' 게이밍 모니터를 출시(7.31일) - 240Hz 주사율, 0.03ms GTG의 압도적 응답속도와 더불어 49인치 크기의 OLED 패널을 채용한 점에 눈길. 또한 듀얼 QHD로 높은 해상도를 구현하고 1,800R 곡률의 커브드 디자인을 탑재 - 뿐만 아니라 자사의 독자적 화질 기술력인 '네오 퀀텀 프로세서 프로'를 탑재해 화면의 밝기와 명암비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AI 업스케일링을 통해 게임 환경에 몰입감을 제고 • 7.31일 5K 초고해상도 모니터 '뷰피니티 S9'를 국내에 先출시한 이후 8월부터 미국 등지로 확대 판매 - 뷰피니티 S9는 크리에이터 수요층을 겨냥해 27인치 크기의 5K(5,120 × 2,880) 초고해상도로 218PPI(1인치당 픽셀 수)의 화질을 구현하였으며 4K 이상의 콘텐츠도 원본 화질 그대로 편집이 가능한 점이 특징 - 또한 모니터 최초로 스마트폰을 통해 모니터의 색상과 밝기를 원하는 값으로 조정할 수 있는 '스마트 캘리브레이션' 기능도 탑재해 눈길. 정교한 색 표현 등도 강점 - 이에 하반기 美 시장에서 '22.10월 애플이 먼저 선보인 27인치 5K 모니터('스튜디오 디스플레이')와 경쟁 구도가 형성될 전망 • 게다가 PC 연결 없이 업무·학습·OTT 서비스·게이밍 허브 등을 즐길 수 있는 스마트 모니터 3종도 출시(4.5일). 게이밍 이외에도 연결성을 강화한 모니터를 선보이며 시장을 공략 - IoT 허브가 탑재된 4K UHD(3,840 × 2,160) 32인치 'M8', 4K UHD 해상도 32인치 'M7', FHD의 32·27인치 'M5'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1월 게이밍 모니터 3종('45GR95QE', '25GR75FG', '27GR95QE')을 공개하며 게이밍 시장에서 대형·중형 OLED 모니터 라인업을 확대하며 위상을 강화 - 먼저 45GR95QE는 240Hz, 0.03ms GTG 응답속도, 45인치에 800R 곡률이 적용된 대형 OLED 커브드 모니터이며 WQHD(3,440 × 1,440)의 높은 해상도를 지원하는 점이 특징 - 25GR75FG는 360Hz의 주사율, 1ms GTG의 빠른 응답속도, FHD 해상도의 IPS 패널(1,000:1의 명암비)이 적용되었으며, 특히 세계 최대 e스포츠 대회 '게이머스8('23.7.6~30일)'의 공식 제품으로 2년 연속 채택돼 눈길 - 마지막으로 27GR95QE는 45인치 제품과 마찬가지로 240Hz, 0.03ms GTG 응답속도를 지원하며 OLED 패널이 적용되었으나 해상도는 한 단계 낮은 QHD(2,560 × 1,440)를 지원하는 점이 차이 - 대형 47인치, 중형 27인치 크기로 OLED 모니터 라인업을 다양화해 입지를 확대해 나갈 방침

7) HD(1,280 × 720) < FHD(1,920 × 1,080) < QHD(2,560 × 1,440) < WQHD(3,440 × 1,440) < WQHD+(3,840 × 1,600) < 4K UHD(3,840 × 2,160)

8) Moving Picture Response Time으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이미지가 잔상으로 남았다 사라지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

□ (수출 동향) 게이밍 등의 수요를 중심으로 디스플레이 장치 수출은 증가세 지속

- 전방 시장의 불황 속에서도 게이밍 수요 견조, OLED로의 교체 수요 촉발 등으로 '22년 디스플레이 장치 수출은 4년 만에 10억 달러대를 상회, 올해도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
 - (연간) '18년 반짝 상승 후 '19년 다시 하락 진입하며 '20년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큰 폭 감소
 - 그러나 '21년(7.5억 달러, 28.5%↑)은 재택근무 및 온라인 교육 등의 비대면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전방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디스플레이 장치 수요도 증가하며 두 자릿수 성장률로 반등
 - '22년은 48인치 크기의 대형 모니터 출시와 더불어 OLED 채용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교체 수요가 발생하면서 전년 대비 77.8% 증가한 13.2억 달러를 기록. '23년(7월 누적, 8.5억 달러, 9.7%↑)도 게이밍 수요 견조세가 지속되면서 상승 곡선이 이어질 전망
 - (월별) '23.1월을 제외하고 '21.4월 이후부터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3.7월은 평판모니터(6,667만 달러, 16.3%↑), 부분품(6,558만 달러, 35.2%↑) 호조 등으로 11개월 연속 1억 달러대를 유지

그림 2-4 | 디스플레이 장치 연간 및 월별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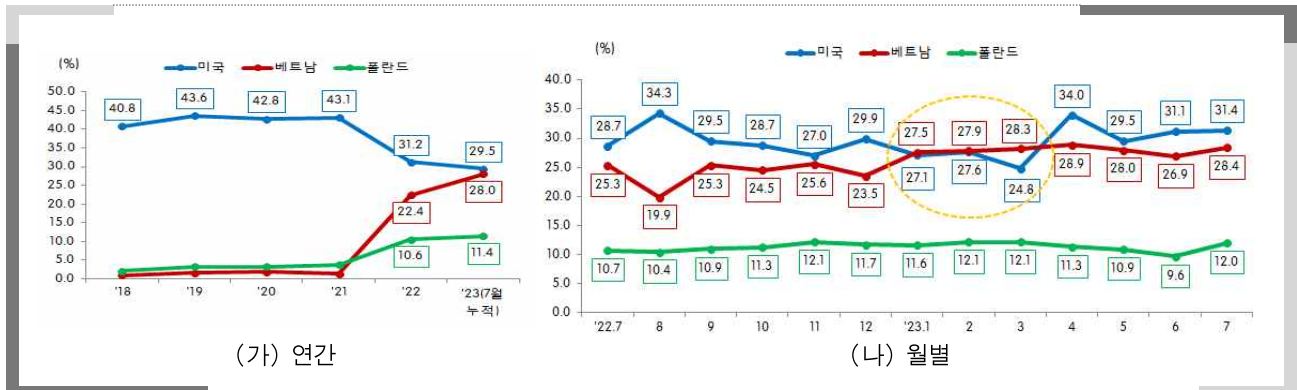
자료 : IITP, KTSPI

- (국가별) 주요 교역국인 미국·베트남·폴란드 등은 두 자릿수대의 안정적인 상승폭을 기록하며 성장
 - 미국(4,181만 달러, 36.4%↑)은 평판 모니터(4,074만 달러, 36.5%↑) 등 완제품을 중심으로 4개월 연속 디스플레이 장치 수출 1위국을 차지하고 있으나 對베트남의 매서운 추격에 점유율은 하락 추세
 - ※ 미국은 '17.1월부터 디스플레이 장치 최대 수출국으로서 압도적 입지를 다져왔으나 '22년 신흥국인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점차 확대되면서 점유율이 30%대로 축소. '23.1월은 베트남의 추월을 허용하며 2위에 랭크
 - 주요 해외 생산 거점인 베트남(3,781만 달러, 39.8%↑)은 디스플레이 장치 수요 증가에 따라 부분품(3,760만 달러, 40.8%↑) 수출 견조세가 지속되면서 20개월 연속 상승하며 사상 최대 수출을 기록. 한편 '23.1~3월 최대 수출국인 미국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한 점도 눈길
 - ※ 對베트남 디스플레이 장치 수출 Top3(만 달러) : (1위, '23.7월) 3,781, (2위, '23.4월) 3,598, (3위, '23.3월) 3,533



- 또한 유럽向 해외 생산 거점인 폴란드(1,600만 달러, 39.6%↑)도 주력 수출품인 부분품(1,543만 달러, 40.3%↑)의 호조, 평판 모니터(570만 달러, 22.3%↑)의 반등 등으로 6개월 연속 성장하며 10% 안팎의 안정적인 점유율을 유지

그림 2-5 | 디스플레이 장치 주요 수출국 비중



자료 : IITP, KTSPI

3 Ex-Briefing

□ 인도, 자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승인 없는 PC·노트북 등의 수입 제한을 계획

- 인도는 현지 생산 장려 등을 위해 PC·노트북 등을 수입 제한 품목으로 분류하는 조치의 즉각 시행을 발표했으나, 가격 상승 등의 우려로 3개월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번복
- 인도 상공부 산하 대외무역총국(DGFT)은 제조업 육성, 경상수지 흑자 등을 위해 개인용PC·노트북·태블릿PC 등 HS Code 8471 품목 중 하위 7종을 ‘수입 제한 품목’으로 분류 후 인도 내 판매를 위해 수입하는 업체는 정부에서 지정한 허가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조치를 즉각 발효('23.8.3일)
- ‘Make in India’ 정책을 통한 외국 제조업체의 기술 및 자본 확보,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를 통한 IT 생산 등 국내 제조업 분야 강화 및 수입 의존도 감소 등을 위한 조치로 분석. 한편 국내 인터넷 보급률 확대에 따른 잠재적 보안 위험을 고려했다는 의견도 존재
 - ※ 인도의 연간 PC·노트북 시장 규모는 약 80억 달러이며, 이 중 자국산 비중은 약 1/3에 불과(한국경제, '23.8월, 원소스 카운터포인트리서치)
- 다만 판매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테스트·벤치마킹·수리 등 특정 목적에 따른 수입 시 품목당 최대 20개까지 라이선스 취득을 제외하는 등 특정 사례에 대해서는 면제를 적용
- 이후 관련 제품 가격 급상승 우려 확산 등으로 즉각적인 수입 제한 조치를 하루 만에 취소하고 (8.4일), 약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가진 뒤 '23.11.1일부터 시행을 결정(8.5일)
 - ※ 한편 인도는 수입 제한 조치로 인한 외국 업체들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

표 2-6 | 인도의 HS Code 8471 수입 제한 품목 및 내용

ITC	내 용	기 존	개 정
84713010	•개인용 컴퓨터	Free	Restricted
84713090	•Other		
84714110	•마이크로 컴퓨터		
84714120	•대형 또는 메인프레임 컴퓨터		
84714190	•Other		
84714900	•다른 자동 데이터 처리 기계 •시스템 형태로 제시된 기타 기계		
84715000	•8471.41 또는 8471.49 이외의 처리 장치(동일한 장치 내 저장, 입력, 출력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기능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면제 가능한 사항

- 제품 1개만 수입하는 경우(서버 제외)
- 수하물 규정에 따라 온라인 소팔물, 우편·택배의 관세를 지불한 경우
- 연구개발, 테스트, 벤치마킹 및 평가, 수리 후 재수출, 제품개발 등 특정 목적의 경우 최대 20개까지 면제
- 자본재의 필수 부품인 경우
- 해외에서 수리된 상품을 재수입한 경우

※인도는 HS Code 공통 6단위 하에 2단위를 추가한 ITC(Indian Trade Classification) Code를 운용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23.8. 및 언론 자료 정리



○ (참고) 인도의 제조업 육성 프로젝트

- '14년 인도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제조시설 확대, 생산성 증대 등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제조업 육성을 목표로 경제 개발 프로젝트 'Make in India'를 추진
 - ※ 다만 인도는 Make in India 정책을 통해 '22년까지 제조업 GDP 기여율 25%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으나, ('21년) 14.4% → ('22년E) 15.4%로 목표치를 하회하는 등 저조한 수준을 지속(KOTRA, '22.12월)
- 이후 '20.5월에는 Make in India 2.0 버전으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투자 유치 및 현지 생산을 장려해 중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공급망 기지로의 부상을 목표로 하는 산업·경제·정책의 핵심 비전 '자주 인도 정책(Self-Reliant India Policy)'을 발표
- 한편 인도로 생산시설을 이전한 국내외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지원 정책 시행 등에 따라 자국 내 제조업 활성화 등을 장려하는 생산 연계 인센티브(Production-Linked Incentive, PLI) 정책도 시행. '20.3월 3개 분야를 시작으로 '22년 15개까지 확대
 - ※ PLI 대상 제조업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전자제품 대규모 생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재생에너지, 의료기기, 화학제품, 의약품, 전기통신기기, 식품, 직물·의류, IT, 원료의약품, 금속, 백색가전제품, 항공
- '23.5월에는 국내 노트북·태블릿PC·울인원PC·서버 제조업체에 6년간 20억 달러 이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도 추가

□ TSMC, 독일 드레스덴에 유럽 내 최초 반도체 공장 설립 계획을 확정

- TSMC는 유럽 최초로 독일 드레스덴 내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 계획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으며, '27년 양산 시작을 목표로 설정
- TSMC가 '21년부터 독일 내 반도체 제조 공장 설립을 검토해 온 가운데 작년부터 부지를 물색하고 독일 정부 및 EU와 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으로 시동
- 이후 '23.8.8일 TSMC 이사회가 독일 드레스덴에 100억 유로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안건을 확정함에 따라 독일 자회사 ESMC에 34억 9,993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진행할 예정
 - ※ ESMC는 TSMC와 보쉬(독일)·인피니언(독일)·NXP(네덜란드)의 합작 법인으로 TSMC가 70%, 나머지 3개 업체가 각각 10% 지분을 보유해 독일 드레스덴 공장 운영을 맡을 예정
- 독일 정부의 보조금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투자금의 절반인 50억 유로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
- 해당 공장은 '24.하반기 착공을 시작할 예정이며,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제공할 차량용 반도체를 주력으로 '27년 제품 생산을 시작할 계획
 - ※ '23.5월 TSMC는 독일 신규 공장에서 28nm 성숙 공정을 기반으로 하는 차량용 반도체 마이크로컨트롤러 등의 제품 생산 계획을 발표

- 한편 TSMC 이사회는 미국 애리조나에 건설 중인 공장에 45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의 투자안도 승인
 - ※ 미국 애리조나 공장은 '24년부터 1기 공정 시설(5nm 칩 생산 예정)을 가동하고 '26년부터 2기 공정 시설(3nm 칩 생산 예정)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에너지 가격 상승 및 숙련 노동자 부족 등으로 '25년까지 준공 일자가 연기

□ 美, 자국 자본의 對중국 첨단기술 투자 금지·제한 조치 발표로 양국 갈등이 격화

- 미국이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첨단기술 투자 금지·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EU가 동참 의사를 표시한 가운데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무역 갈등이 확대
 - '23.8.9일 중국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은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등 미국 자본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마이크로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양자 정보 기술·AI 등 첨단기술 투자 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발표
 - ※ '23.8.1일 중국이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주목받는 갈륨, 게르마늄 등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한 후 얼마 되지 않아 해당 규제가 발표되는 등 맞대응이 이어지는 양상 속 미·중 갈등이 고조될 전망
 - 해당 조치는 45일간의 최초 의견 수렴을 포함해 여러 차례에 걸쳐 공공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뒤 규제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1년의 유예기간 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
 - 투자 금지 및 제한 대상은 수익 절반 이상을 첨단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 얻는 중국 업체 및 신규 투자에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
 - ※ 이에 따라 AI 등 관련 첨단기술을 보유해도 다른 분야에서 얻는 수익이 더 큰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
 - 또한 중국 투자를 진행하려는 업체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투자 금지를 포함한 결정권은 미국 재무부 장관이 가질 예정
 - 다만 첨단기술 규제 분야 등 큰 범주는 제시됐으나, 세부 규칙 및 강도는 모호한 상황으로 향후 미·중 관계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 만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할 후속 규제 내용에 귀추가 주목
 - ※ 중국도 갈륨, 게르마늄 등 핵심 광물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적용 대상 국가를 정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제 미·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 대해서는 명확성을 배제
 - 중국은 미국의 시장경제 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의미하는 ‘엄정한 교섭’을 미국에 제기하는 등 해당 규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강하게 피력
 - 한편 EU가 對중국 직접 투자 제한 조치에 대해 미국과의 지속적 협력을 언급함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입법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미국의 동맹국을 향한 동참 압박 여부도 관건
 - ※ '23.6월 EU는 ‘경제안보전략’ 추진을 공식화하고 양자기술·첨단 반도체·AI 등 민감한 기술을 보유한 EU 기업의 과도한 제3국 투자에 대한 제동을 예고



표 2-7 미국의 對중국 투자 규제 조치 내용

구 분	내 용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8.9일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 1년 유예기간 후 시행할 계획 • 업계 의견 청취 후 세부 시행 규칙 별도 고지 예정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첨단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 정보 기술, A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계획 사전 의무 신고 • 국가안보 이익과 직결될 경우 투자 금지(신규 투자)
거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합병,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지분 인수, 합작 투자, 주식 전환이 가능한 특정 채무 금융 거래 등 ※ 주식 시장을 통한 거래, 인덱스펀드, 뮤추얼펀드 등 간접투자는 규제 면제를 검토
규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재무부 장관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언론 자료 정리

○ (참고) SIA, 對중국 첨단기술 투자 규제에 긍정적 목소리

-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국가안보 보장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미국의 對중국 첨단기술 투자 금지·제한 조치가 자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 표현
 - ※ SIA에는 인텔·퀄컴·엔비디아 등 미국 주요 반도체 기업 외 삼성전자·SK하이닉스·TSMC 등 외국 업체도 소속
- 또한 글로벌 반도체 업체에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주요 시장으로의 진출이 용이해질 것이라 예상
- 앞서 SIA는 미국의 강경한 對중국 수출제한 조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자제를 요청했으나, 이번 조치가 반도체 수출 기업이 아닌 중국 내 경쟁 업체로 들어가는 미국 자금을 통제 대상으로 하는 만큼 긍정적으로 변화된 의견을 표출
- 한편 일각에서는 중국 내 직접투자 자금조달 출처 중 미국의 비중이 미미함에 따라 미국 자금 없이도 중국이 첨단기술 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미국 투자업체의 손해를 유발할 뿐이라는 지적도 존재
 - ※ '21~'22년 중국 내 직접투자 자금조달 출처 중 미국의 기여분은 5% 미만으로 추산(한국무역협회, '23.8월, 원소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 ※ '22년 미국의 對중국 투자 현황은 직접 투자액이 82억 달러로 2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으며, 벤처캐피탈 투자액은 13억 달러로 10년 만에 최저를 기록(파이낸셜뉴스, '23.8월, 원소스 WSJ로디움)

〈미·중 무역 갈등 일자〉

날 짜	내 용
'20.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자국 기술을 활용하는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게 특정 반도체를 공급할 시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SMIC 등을 무역 블랙리스트에 등재
'22.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반도체 생산 역량 확대 및 공급망 구축, 중국 견제 등을 위해 반도체 지원법인 칩스법(CHIPS Act) 통과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반도체 설계업체 엔비디아의 최신형 AI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중국 반도체 생산업체에 대한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

12월	•(미국) 중국 최대 국영 메모리반도체 업체 YMTC 등을 포함한 36개 중국 업체를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
'23.5월	•(중국) 자국 '중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에 대해 미국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제품 구매 중지 제재를 발표
8.1일	•(중국) 차세대 반도체 원료인 갈륨, 게르마늄 등 핵심 광물 수출 통제령 발효
8.9일	•(미국) 중국에 대해 반도체 양자 컴퓨팅 AI 등 3개 분야에 대한 투자 규제 행정명령을 발표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 韓·美·日,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최첨단 기술에 대한 공조 본격화

- 한국·미국·일본은 정상회담을 통해 안정된 공급망 유지 등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파일럿 공동 개발을 추진하는 등 최첨단 기술에 대한 협력을 강화
 - '23.8.18일 3국 정상들은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잠재적 공급망 교란 요인의 식별 등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파일럿 공동 개발 계획을 발표
 - 이에 따라 반도체, 핵심 광물 등의 공급망 위기 징후 발생 시 3국은 관련 정보를 공유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며 핵심 공급망 우선순위 제품 및 소재 식별, EU 등이 참여하는 신속한 정보 공유 프로세스 구축,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협력 등도 약속
 - ※ 조기경보시스템은 3국이 파견한 재외공관 인력들이 정책 동향, 핵심 품목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공급망 교란 징후 발생 시 공조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례적으로 모여 협의할 계획
 - ※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억제에 위해 '22.5월 미국 주도로 출범한 다자 경제협력체로 한국·일본·호주 등 14개국이 참여. 한편 '23.5월 IPEF는 특정 품목 공급망 위기 발생 시 공동 대처를 골자로 하는 공급망 협정을 타결했으며, '23.9월 태국에서 관련 협상이 재개될 예정
 - 또한 미국이 해외 기업의 영업 기밀 도용 단속을 위해 설립한 '혁신기술 타격대'가 한국·일본의 상용 기관과 정보를 교류하는 등에 따라 자체 기술 보호 조치, 수출 통제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
 - 나아가 각국 국립 연구기관의 AI, 우주, 양자, 신소재 등 미래 핵심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 협력을 약속했으며, 공동 연구기금도 조성할 계획
 - ※ 이에 따라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특허 출원, 인력 교류, 개발 성과의 국제표준화 등의 시행 방안을 추진

○ (참고)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

- 한국·미국·일본은 정상회담 후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는 공동성명에 따라 향후 3국 관계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핵심 기술 및 신기술에 대한 규범과 국제 표준 제정을 위한 협력을 강조
 - ※ 주요 협력 분야는 회복탄력성,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안보, 생명공학, 제약, AI, 양자컴퓨팅, 과학 연구 등
- 첨단기술 분야 외에도 정상·외교장관·국방장관·국가안보보좌관 등 최고위 4개급 차원에서 최소 연 1회 협의, 3국 재무장관회의 개최, 상무·산업장관 연례 협의 등에 합의
- 또한 해상미사일방어훈련, 재난대응·인도지원 훈련 등의 3국 군사훈련 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 협의 개최 및 올해 말까지 북한 미사일 정보정보 실시간 공유 이행을 약속했으며, '우주 안보 3자 대화' 개최를 강화하는 등 안보 협력을 우주 분야까지 확대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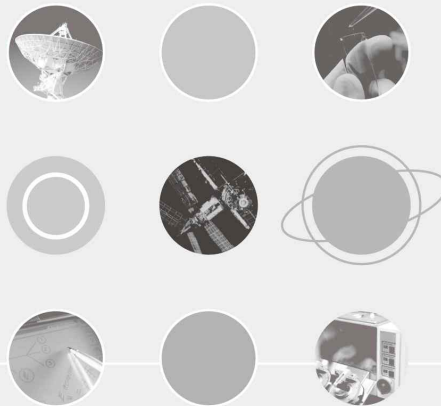


- 개발도상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도 합의하는 등 3국 협력이 인도-태평양 전체를 위한 협력으로 더 넓은 지역에서 가동될 것임을 공언
- 한편 공동성명에서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단 한 번 언급되었으나, 중국은 경제 안보, 글로벌 공급망 등 3국이 논의한 핵심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
 - ※ 남중국해 분쟁은 중국·대만·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 6개국이 남중국해 상의 해양 지형물에 대한 영유권 및 해양 관할권을 주장하는 다국가 간 해양 영토 분쟁으로, 중국은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U자 형태로 9개 선을 그어 전체의 90%가 자국 영해임을 주장하며 군사기지화를 진행



III

부록





III

부록

1

ICT 생산 통계

표 3-1 주요 ICT 품목별 생산 규모(잠정)

(단위 : 억 원, %)

구 분	2022년			2023년					
				5월 당월			5월 누적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ICT 전체	5,474,174	1.3	100.0	410,665	-11.8	100.0	2,019,951	-13.0	100.0
○ 정보통신방송기기	3,677,696	-0.8	67.2	257,201	-19.2	62.6	1,259,147	-20.7	62.3
- 전자부품	2,264,882	-2.4	41.4	139,651	-27.9	34.0	680,324	-30.3	33.7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83,630	0.1	3.4	10,483	-41.7	2.6	53,340	-37.9	2.6
- 통신 및 방송기기	360,569	-2.4	6.6	32,874	5.2	8.0	162,262	0.4	8.0
- 영상 및 음향기기	86,049	1.0	1.6	6,182	-18.2	1.5	32,415	-16.6	1.6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782,565	4.4	14.3	68,011	0.2	16.6	330,804	1.7	16.4
○ 정보통신방송서비스	879,322	3.5	16.1	75,943	4.5	18.5	381,455	5.6	18.9
- 통신서비스	377,332	0.6	6.9	32,307	1.9	7.9	158,755	1.3	7.9
· 유선통신서비스	102,469	0.2	1.9	8,890	4.1	2.2	43,690	3.5	2.2
· 무선통신서비스	252,783	0.5	4.6	21,366	0.3	5.2	105,711	0.6	5.2
· 통신재판매 및 중개서비스	22,080	3.0	0.4	2,051	8.7	0.5	9,354	0.0	0.5
- 방송서비스	227,128	7.1	4.1	18,433	-0.9	4.5	92,664	0.5	4.6
· 지상파방송서비스	42,703	6.9	0.8	3,107	-7.3	0.8	15,485	-7.7	0.8
· 유료방송서비스	73,038	4.2	1.3	6,270	4.3	1.5	32,225	6.9	1.6
· 방송프로그램 제작·공급	110,946	9.3	2.0	9,015	-2.0	2.2	44,749	-0.8	2.2
· 기타방송서비스	441	-8.0	0.0	42	31.4	0.0	205	10.2	0.0
- 정보서비스	274,862	4.9	5.0	25,202	12.9	6.1	130,036	15.7	6.4
· 정보인프라서비스	45,770	4.8	0.8	4,007	7.1	1.0	19,858	5.0	1.0
· 정보매개 및 제공서비스	229,092	4.9	4.2	21,196	14.0	5.2	110,178	17.9	5.5
○ 소프트웨어	917,156	8.8	16.8	77,521	3.7	18.9	379,349	2.2	18.8
- 패키지 소프트웨어	199,522	15.9	3.6	17,375	5.7	4.2	85,178	12.9	4.2
- 게임 소프트웨어	192,832	7.0	3.5	16,216	3.4	3.9	77,196	1.9	3.8
- IT 서비스	524,802	6.9	9.6	43,931	3.0	10.7	216,975	-1.4	10.7

자료 : KEA, KAIT, 2023.8.

2 2023년 7월 ICT 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표 3-2 전체산업/ICT산업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 억 달러, %)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체산업	IC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C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CT산업
2017년	5,736.9	1,975.7	21.6	4,784.8	1,020.7	13.7	952.2	955.0
2018년	6,048.6	2,203.4	11.5	5,352.0	1,071.2	4.9	696.6	1,132.2
2019년	5,422.3	1,768.6	-19.7	5,033.4	1,083.7	1.2	388.9	684.9
2020년	5,125.0	1,835.1	3.8	4,676.3	1,126.3	3.9	448.7	708.8
2021년	6,444.0	2,276.1	24.0	6,150.9	1,350.2	19.9	293.1	925.8
2022년	6,835.8	2,332.3	2.5	7,313.7	1,524.9	12.9	-477.8	807.4
1/4분기	1,734.0	617.2	26.1	1,779.0	366.1	18.4	-45.0	251.1
2/4분기	1,771.1	607.4	12.3	1,835.3	378.1	18.5	-64.2	229.3
3/4분기	1,740.2	594.2	-2.7	1,923.0	396.8	16.4	-182.8	197.4
4/4분기	1,590.5	513.6	-19.2	1,776.4	383.9	0.7	-185.9	129.7
상반기	3,505.1	1,224.6	18.9	3,614.3	744.2	18.5	-109.2	480.4
하반기	3,330.7	1,107.8	-11.1	3,699.4	780.7	8.1	-368.7	327.1
1월	554.6	196.1	20.4	606.1	123.4	14.5	-51.5	72.6
2월	541.6	188.5	23.6	534.8	114.0	24.0	6.7	74.5
3월	637.9	232.6	33.6	638.1	128.7	17.5	-0.2	103.9
4월	578.4	199.3	16.9	602.1	121.4	12.5	-23.7	77.9
5월	615.9	202.0	13.9	631.7	126.1	19.9	-15.8	75.9
6월	576.8	206.0	6.8	601.5	130.5	23.3	-24.7	75.5
7월	602.4	193.1	-0.9	652.6	132.3	16.8	-50.2	60.7
8월	566.1	192.7	-4.8	660.3	135.2	18.7	-94.2	57.5
9월	571.8	208.5	-2.3	610.1	129.3	13.7	-38.4	79.1
10월	524.3	178.5	-10.3	591.7	137.6	13.6	-67.4	40.9
11월	517.7	166.2	-22.7	588.5	128.3	0.5	-70.8	37.9
12월	548.5	168.8	-23.7	596.2	117.9	-10.9	-47.7	50.9
2023년	3,575.1	995.5	-29.8	3,823.5	796.4	-9.1	-248.4	199.2
1/4분기	1,513.3	416.7	-32.5	1,739.6	351.0	-4.1	-226.3	65.7
2/4분기	1,558.5	432.7	-28.8	1,596.8	331.1	-12.4	-38.4	101.6
상반기	3,071.8	849.4	-30.6	3,336.4	682.1	-8.3	-264.7	167.3
1월	463.8	130.9	-33.2	589.5	122.4	-0.8	-125.7	8.6
2월	500.1	128.1	-32.1	553.4	110.2	-3.4	-53.3	17.9
3월	549.5	157.7	-32.2	596.8	118.5	-7.9	-47.3	39.3
4월	494.8	127.7	-35.9	522.3	104.6	-13.8	-27.5	23.1
5월	521.3	144.5	-28.5	543.5	112.0	-11.2	-22.2	32.5
6월	542.3	160.6	-22.1	531.0	114.5	-12.3	11.3	46.1
7월	503.3	146.1	-24.3	487.1	114.2	-13.7	16.3	31.9

자료 : IITP, KTSPI



표 3-3 주요 ICT 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금액	증가율	비중	7월 당월			7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233,232	2.5	100.0	14,611	-24.3	100.0	99,555	-29.8	100.0
○전자부품	166,917	1.1	71.6	10,342	-28.0	70.8	68,104	-33.7	68.4
- 반도체	130,865	1.7	56.1	7,540	-33.7	51.6	51,464	-36.4	51.7
· 메모리반도체	73,753	-10.5	31.6	3,600	-41.7	24.6	24,968	-48.7	25.1
· 시스템반도체	50,670	27.5	21.7	3,468	-25.9	23.7	23,226	-18.8	23.3
- 디스플레이	24,413	-1.0	10.5	1,889	-5.4	12.9	10,704	-27.2	10.8
- 전자관	6	20.3	0.0	1	346.8	0.0	6	107.7	0.0
- 수동부품	2,148	-8.4	0.9	204	11.2	1.4	1,381	7.0	1.4
PCB	5,952	2.8	2.6	419	-18.9	2.9	2,650	-27.4	2.7
- 접속부품	3,312	-0.8	1.4	274	-1.0	1.9	1,790	-10.8	1.8
- 기타전자부품	148	-7.6	0.1	11	-7.5	0.1	76	-14.9	0.1
○컴퓨터 및 주변기기	17,293	-0.5	7.4	869	-28.0	5.9	5,290	-53.3	5.3
- 컴퓨터	1,019	-55.6	0.4	98	11.8	0.7	580	-4.2	0.6
- 주변기기	16,274	7.8	7.0	771	-31.1	5.3	4,710	-56.1	4.7
· 디스플레이장치	1,325	77.8	0.6	133	24.7	0.9	853	9.7	0.9
· 프린터(부분품포함)	460	10.8	0.2	35	-20.2	0.2	226	-17.7	0.2
· 보조기억장치	13,456	3.9	5.8	533	-39.0	3.6	3,121	-65.4	3.1
○통신 및 방송기기	17,648	5.4	7.6	929	-19.8	6.4	7,967	-19.4	8.0
- 통신기기	17,573	8.7	7.5	923	-19.9	6.3	7,921	-19.5	8.0
· 유선통신기기	1,210	26.5	0.5	76	-21.6	0.5	595	-15.5	0.6
· 무선통신기기	16,363	7.6	7.0	846	-19.8	5.8	7,326	-19.8	7.4
휴대폰(부분품 포함)	14,672	4.9	6.3	725	-19.6	5.0	6,494	-20.9	6.5
※ 통신장비	2,901	33.2	1.2	198	-21.1	1.4	1,427	-12.5	1.4
- 방송용 장비	74	-87.0	0.0	6	-7.3	0.0	46	4.0	0.0
○영상 및 음향기기	2,153	-9.1	0.9	171	-3.0	1.2	1,048	-20.9	1.1
- 영상기기	1,250	-18.1	0.5	87	-18.8	0.6	576	-28.3	0.6
· TV	735	-31.0	0.3	55	-13.8	0.4	302	-40.1	0.3
LCD TV	48	42.8	0.0	1	-78.1	0.0	8	-74.1	0.0
TV 부분품	664	-34.5	0.3	50	-14.2	0.3	275	-40.4	0.3
· 셋탑박스	18	-17.8	0.0	1	-10.5	0.0	11	-8.3	0.0
- 음향기기	840	4.8	0.4	79	20.9	0.5	446	-10.8	0.4
- 기타 영상음향기기	62	65.0	0.0	5	34.4	0.0	27	20.3	0.0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9,222	12.2	12.5	2,299	-3.9	15.7	17,146	3.7	17.2
-가정용전기기기	5,863	2.7	2.5	465	0.1	3.2	3,414	-10.6	3.4
-사무용기기	343	-19.7	0.1	20	-20.4	0.1	197	5.9	0.2
-의료용기기	2,790	8.8	1.2	219	-2.2	1.5	1,624	1.2	1.6
-전기 장비	13,578	13.9	5.8	1,030	-14.0	7.0	7,869	2.0	7.9
· 일차전지 및 축전지	10,119	15.3	4.3	755	-15.5	5.2	5,896	3.7	5.9

자료 : IITP, KTSPI

표 3-4 | 주요 ICT 품목별 수입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금액	증가율	비중	7월 당월			7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152,491	12.9	100.0	11,424	-13.7	100.0	79,636	-9.1	100.0
○ 전자부품	89,481	19.9	58.7	6,325	-20.9	55.4	43,441	-15.3	54.5
- 반도체	75,146	21.8	49.3	5,184	-22.8	45.4	36,142	-15.1	45.4
· 메모리반도체	25,094	16.3	16.5	1,330	-39.3	11.6	10,557	-31.6	13.3
· 시스템반도체	41,292	31.2	27.1	3,221	-14.8	28.2	21,028	-4.1	26.4
- 디스플레이	4,970	28.5	3.3	436	-5.2	3.8	2,487	-21.8	3.1
- 전자관	75	17.1	0.0	8	80.8	0.1	40	4.4	0.0
- 수동부품	2,563	-8.5	1.7	206	-7.2	1.8	1,423	-9.4	1.8
PCB	3,561	14.8	2.3	249	-20.1	2.2	1,568	-24.2	2.0
- 접속부품	2,375	-5.7	1.6	196	-1.8	1.7	1,370	-3.9	1.7
- 기타전자부품	697	60.0	0.5	42	-39.1	0.4	370	-4.9	0.5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7,454	4.2	11.4	1,203	-20.2	10.5	8,998	-16.0	11.3
- 컴퓨터	10,112	-1.2	6.6	684	-23.0	6.0	4,931	-24.2	6.2
- 주변기기	7,341	12.7	4.8	519	-16.2	4.5	4,067	-3.4	5.1
· 디스플레이장치	1,341	22.9	0.9	95	-13.8	0.8	671	-22.3	0.8
· 프린터(부분품포함)	941	-2.2	0.6	66	-10.3	0.6	533	-6.5	0.7
· 보조기억장치	3,814	17.6	2.5	271	-14.6	2.4	2,238	11.6	2.8
○ 통신 및 방송기기	15,182	-7.2	10.0	1,261	17.2	11.0	7,697	-8.0	9.7
- 통신기기	15,010	-5.1	9.8	1,246	17.6	10.9	7,593	-8.2	9.5
· 유선통신기기	1,890	-11.3	1.2	181	7.8	1.6	1,188	11.3	1.5
· 무선통신기기	13,120	-4.1	8.6	1,064	19.4	9.3	6,405	-11.0	8.0
휴대폰(부분품 포함)	9,280	-8.8	6.1	769	28.2	6.7	4,427	-11.2	5.6
※ 통신장비	5,730	1.6	3.8	477	3.8	4.2	3,166	-3.6	4.0
- 방송용 장비	172	-68.5	0.1	15	-7.6	0.1	104	3.7	0.1
○ 영상 및 음향기기	3,596	-8.1	2.4	228	-22.8	2.0	1,895	-12.1	2.4
- 영상기기	2,088	-15.2	1.4	133	-23.3	1.2	1,020	-22.8	1.3
· TV	1,444	-23.6	0.9	78	-30.7	0.7	646	-30.4	0.8
LCD TV	779	-16.2	0.5	44	-19.9	0.4	374	-23.3	0.5
TV 부분품	377	-34.4	0.2	17	-42.9	0.1	129	-49.8	0.2
· 셋탑박스	192	-10.4	0.1	18	-8.1	0.2	119	-5.9	0.1
- 음향기기	1,174	6.9	0.8	84	-18.7	0.7	693	5.1	0.9
- 기타 영상음향기기	334	-5.3	0.2	12	-40.3	0.1	182	4.0	0.2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6,778	14.5	17.6	2,407	2.0	21.1	17,606	16.4	22.1
- 가정용전기기기	4,639	1.7	3.0	377	-15.7	3.3	2,645	-9.9	3.3
- 사무용기기	37	14.8	0.0	3	-16.2	0.0	23	8.4	0.0
- 의료용기기	2,379	4.1	1.6	197	4.5	1.7	1,462	7.5	1.8
- 전기 장비	11,088	34.3	7.3	1,121	16.2	9.8	8,481	43.3	10.6
· 일차전지 및 축전지	6,769	61.5	4.4	777	24.4	6.8	5,944	72.3	7.5

자료 : IITP, KTSPI



표 3-5 주요 ICT 품목별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7월 당월			7월 누적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지
정보통신방송기기	233,232	152,491	80,742	14,611	11,424	3,186	19,919
○전자부품	166,917	89,481	77,436	10,342	6,325	4,017	24,663
- 반도체	130,865	75,146	55,718	7,540	5,184	2,356	15,322
· 메모리반도체	73,753	25,094	48,660	3,600	1,330	2,270	14,411
· 시스템반도체	50,670	41,292	9,378	3,468	3,221	247	2,197
- 디스플레이	24,413	4,970	19,444	1,889	436	1,453	8,217
- 전자관	6	75	-69	1	8	-6	-33
- 수동부품	2,148	2,563	-416	204	206	-2	-42
PCB	5,952	3,561	2,392	419	249	170	1,082
- 접속부품	3,312	2,375	937	274	196	78	420
- 기타전자부품	148	697	-549	11	42	-31	-294
○컴퓨터 및 주변기기	17,293	17,454	-161	869	1,203	-334	-3,708
- 컴퓨터	1,019	10,112	-9,093	98	684	-586	-4,351
- 주변기기	16,274	7,341	8,933	771	519	252	643
· 디스플레이장치	1,325	1,341	-16	133	95	38	182
· 프린터(부분품포함)	460	941	-482	35	66	-31	-307
· 보조기억장치	13,456	3,814	9,642	533	271	262	883
○통신 및 방송기기	17,648	15,182	2,465	929	1,261	-332	270
- 통신기기	17,573	15,010	2,564	923	1,246	-323	328
· 유선통신기기	1,210	1,890	-680	76	181	-105	-593
· 무선통신기기	16,363	13,120	3,243	846	1,064	-218	920
휴대폰(부분품 포함)	14,672	9,280	5,393	725	769	-44	2,067
※ 통신장비	2,901	5,730	-2,829	198	477	-279	-1,739
- 방송용 장비	74	172	-98	6	15	-9	-57
○영상 및 음향기기	2,153	3,596	-1,444	171	228	-57	-846
- 영상기기	1,250	2,088	-838	87	133	-46	-444
· TV	735	1,444	-709	55	78	-23	-344
LCD TV	48	779	-730	1	44	-43	-366
TV 부분품	664	377	287	50	17	33	146
· 셋탑박스	18	192	-174	1	18	-17	-108
- 음향기기	840	1,174	-334	79	84	-5	-247
- 기타 영상음향기기	62	334	-272	5	12	-7	-155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9,222	26,778	2,445	2,299	2,407	-108	-460
- 가정용전기기기	5,863	4,639	1,224	465	377	88	768
- 사무용기기	343	37	305	20	3	17	174
- 의료용기기	2,790	2,379	411	219	197	22	162
- 전기 장비	13,578	11,088	2,490	1,030	1,121	-91	-611
· 일차전지 및 축전지	10,119	6,769	3,351	755	777	-22	-48

자료 : IITP, KTSPI

표 3-6 주요 지역별 ICT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금액	증감률	비중	7월 당월			7월 누적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전세계	233,232	2.5	100.0	14,611	-24.3	100.0	99,555	-29.8	100.0
○ 아시아	180,075	2.0	77.2	11,254	-24.4	77.0	75,538	-30.7	75.9
- 중국(홍콩 포함)	102,270	-4.9	43.8	6,038	-27.7	41.3	40,593	-35.4	40.8
- 일 본	4,429	2.7	1.9	418	23.2	2.9	2,456	-7.7	2.5
- ASEAN	53,710	9.5	23.0	3,626	-22.7	24.8	24,259	-23.9	24.4
· 싱가포르	6,924	45.0	3.0	466	-33.3	3.2	2,886	-29.8	2.9
· 인 니	1,122	25.7	0.5	92	13.7	0.6	648	-0.4	0.7
· 말 련	2,944	17.4	1.3	213	-16.7	1.5	1,502	-12.4	1.5
· 태 국	1,530	13.0	0.7	124	-7.2	0.8	871	-6.6	0.9
· 베트남	36,636	4.3	15.7	2,522	-18.6	17.3	16,783	-22.2	16.9
- 대 만	14,755	16.4	6.3	800	-32.2	5.5	5,745	-35.9	5.8
- 인 도	4,533	63.0	1.9	338	17.5	2.3	2,288	-5.6	2.3
○ 북미	30,226	5.0	13.0	1,805	-29.2	12.4	12,727	-31.0	12.8
- 미 국	29,141	4.3	12.5	1,732	-28.3	11.9	12,295	-30.8	12.3
- 캐나다	955	33.7	0.4	60	-50.8	0.4	340	-44.1	0.3
○ 유럽	15,893	4.0	6.8	978	-22.6	6.7	7,563	-24.7	7.6
- 유럽연합	13,732	7.5	5.9	822	-24.9	5.6	6,336	-26.7	6.4
· 독 일	3,516	-0.2	1.5	176	-37.1	1.2	1,568	-26.9	1.6
· 프랑스	901	6.7	0.4	73	12.0	0.5	514	-8.7	0.5
· 이탈리아	596	27.0	0.3	26	-51.4	0.2	247	-34.9	0.2
- 영 국	1,062	1.7	0.5	55	-36.7	0.4	509	-30.9	0.5
- 러시아	482	-39.0	0.2	32	7.3	0.2	245	-17.2	0.2
○ 중동	1,680	5.4	0.7	156	10.0	1.1	1,019	4.4	1.0
- 사우디	327	43.2	0.1	42	30.4	0.3	224	28.8	0.2
- UAE	522	5.8	0.2	57	24.3	0.4	307	7.4	0.3
○ 중남미	4,382	1.8	1.9	335	-14.5	2.3	2,201	-19.1	2.2
- 브라질	1,439	-1.3	0.6	91	-19.6	0.6	729	-18.3	0.7
- 멕시코	2,670	6.4	1.1	221	-12.8	1.5	1,330	-19.7	1.3
- 칠 레	68	-43.0	0.0	6	25.4	0.0	40	-13.0	0.0
○ 대양주	685	-5.0	0.3	49	-9.7	0.3	329	-25.0	0.3
- 호 주	599	-3.0	0.3	44	-11.9	0.3	286	-25.8	0.3
○ 아프리카	280	-9.4	0.1	30	63.1	0.2	172	9.7	0.2
※ 브릭스	85,990	4.8	36.9	5,056	-32.1	34.6	34,571	-33.9	34.7

자료 : IITP, KTSPI



표 3-7 주요 지역별 ICT 수입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금액	증감률	비중	7월 당월			7월 누적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전세계	152,491	12.9	100.0	11,424	-13.7	100.0	79,636	-9.1	100.0
○ 아시아	126,723	12.2	83.1	9,819	-11.6	85.9	66,664	-9.4	83.7
- 중국(홍콩 포함)	64,726	8.4	42.4	4,117	-25.3	36.0	32,775	-14.1	41.2
- 일 본	13,590	13.5	8.9	947	-23.2	8.3	7,055	-3.6	8.9
- ASEAN	25,741	10.3	16.9	2,227	1.4	19.5	14,594	-2.9	18.3
· 싱가포르	4,701	15.3	3.1	362	-11.4	3.2	2,516	-0.4	3.2
· 인 니	783	-15.4	0.5	52	-27.7	0.5	425	-9.7	0.5
· 말 련	4,055	12.6	2.7	322	-7.4	2.8	2,361	3.9	3.0
· 태 국	2,115	5.4	1.4	166	-9.2	1.5	1,195	-6.7	1.5
· 베트남	12,225	9.4	8.0	1,166	15.5	10.2	6,996	-6.3	8.8
- 대 만	22,536	26.8	14.8	1,721	-20.3	15.1	11,367	-12.7	14.3
- 인 도	116	10.1	0.1	8	-19.0	0.1	68	-1.6	0.1
○ 북미	9,000	-1.0	5.9	672	-14.9	5.9	4,869	-7.4	6.1
- 미 국	8,563	-1.8	5.6	643	-15.3	5.6	4,635	-7.5	5.8
- 캐나다	307	24.7	0.2	22	3.7	0.2	176	7.5	0.2
○ 유럽	8,719	10.0	5.7	788	4.3	6.9	5,197	4.9	6.5
- 유럽연합	7,614	10.7	5.0	687	3.1	6.0	4,537	4.3	5.7
· 독 일	3,523	7.3	2.3	262	-17.9	2.3	1,950	-6.3	2.4
· 프랑스	1,204	29.5	0.8	97	-9.4	0.8	643	-1.6	0.8
· 이탈리아	377	6.0	0.2	72	179.1	0.6	315	60.4	0.4
- 영 국	572	1.8	0.4	56	5.9	0.5	376	17.2	0.5
- 러시아	18	-28.1	0.0	1	-23.0	0.0	6	-40.5	0.0
○ 중동	666	1.7	0.4	49	-4.6	0.4	495	14.4	0.6
- 사우디	1	-53.1	0.0	0	-92.8	0.0	1	98.8	0.0
- UAE	9	-80.2	0.0	1	69.2	0.0	5	1.3	0.0
○ 중남미	925	-6.0	0.6	85	12.7	0.7	598	10.1	0.8
- 브라질	7	-54.4	0.0	1	74.2	0.0	7	36.4	0.0
- 멕시코	913	-5.4	0.6	84	13.4	0.7	588	9.9	0.7
- 칠 레	2	88.1	0.0	0	-89.4	0.0	1	-27.9	0.0
○ 대양주	119	4.2	0.1	10	-6.0	0.1	60	1.7	0.1
- 호 주	98	23.6	0.1	7	-11.2	0.1	42	-9.7	0.1
○ 아프리카	13	-27.5	0.0	1	-17.5	0.0	5	-51.4	0.0
※ 브릭스	63,474	8.3	41.6	4,096	-23.6	35.8	32,210	-14.0	40.4

자료 : IITP, KTSPI

표 3-8 | 주요 지역별 ICT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수출	수입	수지	7월 당월			7월 누적
				수출	수입	수지	수지
전세계	233,232	152,491	80,742	14,611	11,424	3,186	19,919
○ 아시아	180,075	126,723	53,352	11,254	9,819	1,435	8,874
- 중국(홍콩 포함)	102,270	64,726	37,544	6,038	4,117	1,921	7,818
- 일 본	4,429	13,590	-9,161	418	947	-529	-4,598
- ASEAN	53,710	25,741	27,968	3,626	2,227	1,399	9,665
· 싱가포르	6,924	4,701	2,223	466	362	104	369
· 인 니	1,122	783	340	92	52	40	223
· 말 련	2,944	4,055	-1,110	213	322	-109	-859
· 태 국	1,530	2,115	-585	124	166	-42	-324
· 베트남	36,636	12,225	24,411	2,522	1,166	1,356	9,787
- 대 만	14,755	22,536	-7,781	800	1,721	-921	-5,623
- 인 도	4,533	116	4,418	338	8	330	2,221
○ 북미	30,226	9,000	21,226	1,805	672	1,133	7,859
- 미 국	29,141	8,563	20,578	1,732	643	1,089	7,660
- 캐나다	955	307	648	60	22	39	163
○ 유럽	15,893	8,719	7,174	978	788	191	2,366
- 유럽연합	13,732	7,614	6,118	822	687	135	1,798
· 독 일	3,516	3,523	-7	176	262	-86	-382
· 프랑스	901	1,204	-303	73	97	-23	-129
· 이탈리아	596	377	219	26	72	-46	-69
- 영 국	1,062	572	489	55	56	-1	133
- 러시아	482	18	464	32	1	31	239
○ 중동	1,680	666	1,014	156	49	108	524
- 사우디	327	1	326	42	0	42	223
- UAE	522	9	513	57	1	56	303
○ 중남미	4,382	925	3,457	335	85	249	1,603
- 브라질	1,439	7	1,431	91	1	90	722
- 멕시코	2,670	913	1,757	221	84	137	742
- 칠 레	68	2	66	6	0	6	39
○ 대양주	685	119	566	49	10	39	269
- 호 주	599	98	501	44	7	36	244
○ 아프리카	280	13	267	30	1	29	167
※ 브릭스	85,990	63,474	22,516	5,056	4,096	960	2,361

자료 : IITP, KTSPI



3

주요국 ICT 수출입 통계

표 3-9 중국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금액	증가율	비중	6월 당월			6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2,587	0.2	100.0	943	-15.8	100.0	5,626	-6.5	100.0
○ 전자부품	3,511	1.2	27.9	260	-22.8	27.5	1,551	-11.6	27.6
- 반도체	2,636	7.0	20.9	200	-16.5	21.2	1,173	-10.9	20.9
- 디스플레이 패널	151	-54.0	1.2	11	-13.4	1.1	76	-2.4	1.4
- 전자관	1	-4.9	0.0	0	33.1	0.0	1	26.7	0.0
- 수동부품	202	16.8	1.6	10	-72.4	1.0	70	-28.6	1.2
- PCB	199	-4.5	1.6	14	-17.9	1.5	85	-18.0	1.5
- 접속부품	269	4.4	2.1	20	-22.1	2.2	122	-6.5	2.2
- 기타 전자부품	52	44.0	0.4	4	-22.1	0.4	23	-11.0	0.4
○ 컴퓨터 및 주변기기	2,537	4.1	20.2	184	-21.6	19.5	1,012	-21.2	18.0
- 컴퓨터	1,566	-6.8	12.4	110	-26.4	11.7	596	-24.4	10.6
- 주변기기	971	28.5	7.7	74	-13.1	7.8	416	-16.1	7.4
· 디스플레이장치	217	0.5	1.7	15	-31.4	1.6	81	-34.4	1.4
· 프린터(부품포함)	150	5.9	1.2	11	-9.5	1.2	68	-1.0	1.2
· 보조기억장치	138	-25.2	1.1	10	-16.2	1.1	55	-18.1	1.0
· 저장 매체	291	749.1	2.3	26	7.9	2.7	140	-6.0	2.5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176	-2.4	1.4	12	-20.2	1.3	72	-17.5	1.3
○ 통신 및 방송기기	2,441	-11.3	19.4	150	-19.9	15.9	993	-12.1	17.7
- 통신기기	2,431	-6.9	19.3	149	-20.0	15.8	988	-12.2	17.6
· 유선통신기기	548	1.9	4.4	37	-12.3	3.9	218	-8.0	3.9
· 무선통신기기	1,501	-27.6	11.9	87	-23.0	9.2	611	-13.9	10.9
- 방송국용 기기	107	-19.5	0.8	9	-3.4	1.0	49	-2.2	0.9
○ 영상 및 음향기기	879	5.1	7.0	72	-1.5	7.7	416	8.7	7.4
- 영상기기	326	-19.0	2.6	27	-1.0	2.9	154	-1.8	2.7
- 음향기기	272	1.2	2.2	18	-20.1	1.9	117	-3.7	2.1
- 기타 영상음향기기	184	12.0	1.5	19	27.6	2.0	100	72.0	1.8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3,219	5.0	25.6	277	-3.8	29.4	1,655	12.9	29.4
- 가정용 기기	1,094	-7.4	8.7	93	-0.8	9.9	552	-0.4	9.8
- 사무용 기기	59	20.4	0.5	4	-25.0	0.5	26	-6.5	0.5
- 의료용 기기	157	-13.6	1.3	14	-7.8	1.5	80	16.0	1.4
- 측정 제어 분석기기	249	-7.3	2.0	24	-3.3	2.6	142	39.0	2.5
- 전기 장비	1,644	18.8	13.1	140	-4.7	14.8	846	19.7	15.0
· 건전지 및 축전지	636	75.8	5.1	59	15.5	6.3	371	46.8	6.6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0 | 중국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금액	증가율	비중	6월 당월			6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7,553	-8.0	100.0	568	-12.7	100.0	3,025	-19.4	100.0
○ 전자부품	5,656	-3.4	74.9	417	-14.5	73.5	2,199	-22.9	72.7
- 반도체	4,762	-4.3	63.0	348	-15.7	61.4	1,853	-23.0	61.3
- 디스플레이 패널	405	28.7	5.4	37	29.2	6.5	161	-16.2	5.3
- 전자관	2	-18.1	0.0	0	-3.3	0.0	1	-4.4	0.0
- 수동부품	190	-14.9	2.5	11	-42.2	2.0	68	-31.6	2.3
- PCB	107	-12.7	1.4	7	-21.3	1.2	38	-29.7	1.3
- 접속부품	186	-12.4	2.5	13	-23.4	2.3	76	-20.5	2.5
- 기타 전자부품	4	-4.2	0.1	0	-27.2	0.1	2	-22.2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512	-3.5	6.8	46	8.3	8.1	210	-21.1	7.0
- 컴퓨터	44	1.7	0.6	7	96.6	1.2	30	45.0	1.0
- 주변기기	469	-3.9	6.2	39	0.1	6.8	180	-26.7	6.0
· 디스플레이장치	4	-23.6	0.1	0	1.9	0.1	2	2.5	0.1
· 프린터(부품포함)	54	-14.2	0.7	4	-2.3	0.8	25	-3.0	0.8
· 보조기억장치	230	-21.4	3.0	14	-26.2	2.5	70	-44.2	2.3
· 저장 매체	109	129.1	1.4	7	-16.4	1.3	42	-24.7	1.4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72	-9.7	1.0	13	114.0	2.2	41	12.2	1.3
○ 통신 및 방송기기	277	-56.4	3.7	18	-13.4	3.1	108	-13.5	3.6
- 통신기기	276	-52.1	3.7	18	-13.5	3.1	107	-13.6	3.6
· 유선통신기기	102	9.1	1.3	7	-1.1	1.3	42	0.0	1.4
· 무선통신기기	60	-87.5	0.8	5	-11.5	0.9	31	12.9	1.0
- 방송국용 기기	25	-9.8	0.3	2	5.9	0.4	12	-0.5	0.4
○ 영상 및 음향기기	259	11.4	3.4	16	-2.4	2.7	107	-5.2	3.5
- 영상기기	190	1.6	2.5	10	-4.6	1.7	76	-2.0	2.5
- 음향기기	39	1.6	0.5	3	-13.3	0.4	15	-28.1	0.5
- 기타 영상음향기기	7	-12.4	0.1	1	53.0	0.2	5	55.1	0.2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849	-11.4	11.2	71	-14.3	12.6	402	0.9	13.3
- 가정용 기기	194	-11.0	2.6	16	-11.1	2.8	86	-13.5	2.8
- 사무용 기기	4	-14.2	0.1	0	-26.5	0.0	1	-35.2	0.0
- 의료용 기기	116	-14.6	1.5	11	-14.5	2.0	64	21.5	2.1
- 측정 제어 분석기기	314	-20.3	4.2	27	-12.5	4.8	157	13.4	5.2
- 전기 장비	187	-9.0	2.5	13	-23.0	2.3	75	-18.1	2.5
· 건전지 및 축전지	62	-15.8	0.8	4	-33.3	0.7	23	-28.7	0.7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1 미국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6월 당월			6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3,020	6.1	100.0	260	3.2	100.0	1,497	1.7	100.0
○ 전자부품	1,045	3.2	34.6	79	-10.3	30.4	460	-11.7	30.7
- 반도체	783	0.9	25.9	56	-14.2	21.7	325	-16.4	21.7
- 디스플레이 패널	34	-3.1	1.1	3	2.5	1.1	16	-11.0	1.1
- 전자관	4	2.7	0.1	0	29.2	0.1	2	30.9	0.1
- 수동부품	41	7.5	1.3	3	-5.4	1.3	20	-4.5	1.3
- PCB	13	9.8	0.4	1	-14.8	0.4	6	-12.9	0.4
- 접속부품	167	14.5	5.5	15	3.7	5.7	89	7.2	5.9
- 기타 전자부품	3	32.6	0.1	0	-18.2	0.1	2	-3.8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420	7.7	13.9	36	8.5	13.9	210	6.5	14.0
- 컴퓨터	176	4.9	5.8	16	19.3	6.1	88	6.6	5.9
- 주변기기	244	9.9	8.1	20	1.5	7.8	121	6.4	8.1
· 디스플레이장치	18	21.7	0.6	1	-15.2	0.5	8	-11.6	0.5
· 프린터(부품포함)	35	1.7	1.2	3	11.5	1.3	19	4.8	1.2
· 보조기억장치	55	7.3	1.8	4	-19.7	1.4	26	9.7	1.7
· 저장 매체	81	12.4	2.7	5	-11.4	2.1	34	-10.5	2.3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55	11.2	1.8	7	36.8	2.5	35	35.4	2.3
○ 통신 및 방송기기	394	1.5	13.0	37	15.9	14.4	211	12.1	14.1
- 통신기기	382	10.1	12.6	36	15.6	14.0	205	11.9	13.7
· 유선통신기기	196	15.7	6.5	21	35.9	8.2	115	29.6	7.7
· 무선통신기기	167	-6.1	5.5	13	-7.4	5.0	79	-6.1	5.3
- 방송국용 기기	30	5.0	1.0	3	38.0	1.2	18	27.2	1.2
○ 영상 및 음향기기	104	21.2	3.4	10	14.7	3.7	55	8.1	3.6
- 영상기기	30	-7.4	1.0	2	-16.1	0.8	13	-14.5	0.9
- 음향기기	38	5.6	1.3	4	14.8	1.4	20	8.2	1.4
- 기타 영상음향기기	17	6.1	0.6	2	42.3	0.7	10	26.2	0.6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058	9.0	35.0	98	8.9	37.6	562	8.9	37.6
- 가정용 기기	170	0.3	5.6	15	6.9	5.9	87	3.2	5.8
- 사무용 기기	11	13.8	0.4	1	-12.6	0.3	5	0.2	0.3
- 의료용 기기	301	8.2	10.0	29	13.1	11.1	168	14.9	11.2
- 측정 제어 분석기기	297	0.2	9.8	27	4.8	10.3	153	5.6	10.2
- 전기 장비	251	15.6	8.3	23	11.0	8.9	134	9.4	8.9
· 건전지 및 축전지	58	11.9	1.9	6	33.9	2.2	33	21.4	2.2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2 미국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금액	증가율	비중	6월 당월			6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6,986	10.5	100.0	539	-11.6	100.0	3,139	-7.3	100.0
○전자부품	1,247	12.4	17.9	106	-9.6	19.7	591	-5.1	18.8
- 반도체	967	12.5	13.8	83	-10.6	15.4	456	-5.9	14.5
- 디스플레이 패널	29	-18.4	0.4	2	-7.6	0.4	14	-1.5	0.4
- 전자관	3	-4.1	0.0	0	20.7	0.0	1	-3.4	0.0
- 수동부품	50	17.9	0.7	4	-15.5	0.7	22	-16.2	0.7
- PCB	28	18.5	0.4	2	-5.3	0.4	12	-2.8	0.4
- 접속부품	162	16.5	2.3	14	-1.6	2.6	81	3.2	2.6
- 기타 전자부품	9	31.4	0.1	1	-19.0	0.1	4	-10.4	0.1
○컴퓨터 및 주변기기	1,668	6.2	23.9	115	-25.2	21.3	647	-20.0	20.6
- 컴퓨터	1,015	3.3	14.5	76	-22.7	14.0	404	-16.6	12.9
- 주변기기	653	11.2	9.3	39	-29.7	7.2	243	-25.2	7.7
· 디스플레이장치	112	11.1	1.6	7	-33.7	1.3	40	-36.6	1.3
· 프린터(부품포함)	147	4.7	2.1	10	-17.8	1.8	61	-16.6	1.9
· 보조기억장치	111	6.3	1.6	6	-33.9	1.1	40	-25.3	1.3
· 저장 매체	183	12.8	2.6	10	-38.4	1.9	58	-36.6	1.8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100	25.6	1.4	6	-19.2	1.1	44	0.5	1.4
○통신 및 방송기기	1,343	6.2	19.2	92	-15.7	17.0	583	-7.7	18.6
- 통신기기	1,305	14.6	18.7	89	-15.7	16.5	568	-7.3	18.1
· 유선통신기기	536	20.9	7.7	44	1.6	8.1	256	7.6	8.2
· 무선통신기기	727	4.4	10.4	42	-28.4	7.8	292	-17.5	9.3
- 방송국용 기기	127	8.4	1.8	10	-10.3	1.8	54	-10.8	1.7
○영상 및 음향기기	562	21.7	8.0	41	-9.4	7.5	228	-11.5	7.3
- 영상기기	160	-14.3	2.3	12	9.1	2.2	65	-15.9	2.1
- 음향기기	183	11.7	2.6	14	-8.6	2.6	77	-10.5	2.4
- 기타 영상음향기기	130	16.6	1.9	8	-29.1	1.5	47	-10.6	1.5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166	13.0	31.0	186	0.2	34.5	1,090	2.5	34.7
- 가정용 기기	612	6.5	8.8	50	-5.9	9.3	289	-9.0	9.2
- 사무용 기기	35	25.8	0.5	3	-22.9	0.5	16	-5.4	0.5
- 의료용 기기	396	9.0	5.7	36	6.8	6.7	203	5.6	6.5
- 측정 제어 분석기기	307	2.3	4.4	27	6.1	5.1	157	6.7	5.0
- 전기 장비	795	22.2	11.4	68	0.3	12.6	413	8.8	13.2
· 건전지 및 축전지	248	53.8	3.5	23	15.1	4.3	154	41.7	4.9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3 일본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엔, %)

구 분	2022년			2023년					
				6월 당월			6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93,456	11.6	100.0	15,715	-6.4	100.0	86,460	-3.9	100.0
○전자부품	102,999	13.9	53.2	8,171	-9.7	52.0	44,407	-7.4	51.4
- 반도체	64,471	18.2	33.3	5,251	-9.7	33.4	28,801	-4.0	33.3
- 디스플레이 패널	7,828	2.8	4.0	536	-18.4	3.4	2,747	-22.7	3.2
- 전자관	307	6.8	0.2	24	-13.8	0.2	148	-2.7	0.2
- 수동부품	12,360	6.6	6.4	974	-6.3	6.2	5,165	-13.3	6.0
- PCB	4,250	27.4	2.2	313	-8.1	2.0	1,607	-10.9	1.9
- 접속부품	12,783	4.4	6.6	1,005	-7.0	6.4	5,547	-7.6	6.4
- 기타 전자부품	999	26.5	0.5	67	-19.0	0.4	392	-20.0	0.5
○컴퓨터 및 주변기기	15,562	9.4	8.0	1,347	5.1	8.6	7,375	1.3	8.5
- 컴퓨터	1,168	12.3	0.6	115	14.5	0.7	659	33.4	0.8
- 주변기기	14,393	9.2	7.4	1,232	4.3	7.8	6,715	-1.0	7.8
· 디스플레이장치	1,242	-7.2	0.6	104	12.5	0.7	601	17.4	0.7
· 프린터(부품포함)	10,168	8.1	5.3	855	3.4	5.4	4,700	-3.0	5.4
· 보조기억장치	143	-18.8	0.1	9	-16.9	0.1	54	-21.3	0.1
· 저장 매체	2,210	30.1	1.1	207	5.3	1.3	1,054	-0.2	1.2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630	11.3	0.3	57	3.1	0.4	307	0.2	0.4
○통신 및 방송기기	4,601	-37.3	2.4	340	-1.3	2.2	2,218	8.8	2.6
- 통신기기	4,574	10.7	2.4	338	-1.4	2.1	2,206	8.8	2.6
· 유선통신기기	1,321	23.4	0.7	122	22.3	0.8	733	27.0	0.8
· 무선통신기기	1,607	-47.5	0.8	110	-0.5	0.7	759	-4.3	0.9
- 방송국용 기기	3,568	22.9	1.8	302	-13.9	1.9	1,585	1.8	1.8
○영상 및 음향기기	9,276	53.9	4.8	815	12.0	5.2	4,272	6.7	4.9
- 영상기기	2,156	-9.4	1.1	178	12.1	1.1	948	-4.0	1.1
- 음향기기	540	12.0	0.3	44	2.5	0.3	258	9.0	0.3
- 기타 영상음향기기	3,039	-4.0	1.6	293	65.1	1.9	1,492	21.2	1.7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61,017	10.3	31.5	5,043	-6.4	32.1	28,189	-1.6	32.6
- 가정용 기기	11,948	3.2	6.2	963	-14.6	6.1	5,401	-6.6	6.2
- 사무용 기기	413	-0.6	0.2	37	-10.9	0.2	192	2.2	0.2
- 의료용 기기	7,675	15.3	4.0	697	4.7	4.4	3,757	9.2	4.3
- 측정 제어 분석기기	23,497	6.6	12.1	1,969	-4.3	12.5	10,866	-1.7	12.6
- 전기 장비	16,166	10.7	8.4	1,235	-10.3	7.9	7,263	-4.1	8.4
· 건전지 및 축전지	8,678	12.0	4.5	624	-17.8	4.0	3,841	-6.8	4.4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4 | 일본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엔, %)

구 분	2022년			2023년					
	금액	증가율	비중	6월 당월			6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212,548	22.6	100.0	16,502	-9.0	100.0	103,226	4.6	100.0
○ 전자부품	66,186	39.1	31.1	4,844	-19.7	29.4	30,816	1.3	29.9
- 반도체	53,372	43.1	25.1	3,832	-21.4	23.2	24,912	1.9	24.1
- 디스플레이 패널	2,055	7.9	1.0	166	-16.3	1.0	849	-9.8	0.8
- 전자관	159	25.1	0.1	11	103.2	0.1	67	24.8	0.1
- 수동부품	1,779	25.9	0.8	133	-17.9	0.8	790	-7.8	0.8
- PCB	1,961	21.1	0.9	171	3.3	1.0	933	-1.6	0.9
- 접속부품	5,644	25.3	2.7	442	-12.4	2.7	2,663	0.9	2.6
- 기타 전자부품	1,216	75.6	0.6	90	-23.3	0.5	602	11.8	0.6
○ 컴퓨터 및 주변기기	33,350	18.9	15.7	2,772	-8.8	16.8	16,144	-0.7	15.6
- 컴퓨터	18,232	12.1	8.6	1,500	-8.6	9.1	8,856	-0.1	8.6
- 주변기기	15,118	28.2	7.1	1,273	-9.1	7.7	7,288	-1.3	7.1
· 디스플레이장치	1,970	3.9	0.9	159	-21.1	1.0	954	-2.5	0.9
· 프린터(부품포함)	4,967	28.0	2.3	366	-9.8	2.2	2,256	-2.4	2.2
· 보조기억장치	2,744	12.0	1.3	255	-6.5	1.5	1,301	-7.7	1.3
· 저장 매체	3,185	102.8	1.5	302	-5.9	1.8	1,672	9.5	1.6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2,253	12.7	1.1	191	-4.0	1.2	1,105	-4.9	1.1
○ 통신 및 방송기기	38,978	5.9	18.3	2,340	-16.1	14.2	17,837	-1.2	17.3
- 통신기기	38,702	15.4	18.2	2,306	-16.2	14.0	17,687	-1.1	17.1
· 유선통신기기	10,050	19.8	4.7	806	5.7	4.9	4,830	6.1	4.7
· 무선통신기기	26,736	6.3	12.6	1,386	-24.0	8.4	12,006	-2.8	11.6
- 방송국용 기기	3,448	26.7	1.6	347	15.8	2.1	1,891	21.1	1.8
○ 영상 및 음향기기	15,923	29.6	7.5	1,305	-1.4	7.9	8,175	16.7	7.9
- 영상기기	6,228	-8.9	2.9	485	-13.2	2.9	2,753	-5.6	2.7
- 음향기기	3,626	10.7	1.7	347	4.0	2.1	1,842	6.3	1.8
- 기타 영상음향기기	2,897	33.6	1.4	159	-5.5	1.0	1,838	90.8	1.8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58,111	19.5	27.3	5,241	5.7	31.8	30,255	12.3	29.3
- 가정용 기기	16,120	5.3	7.6	1,371	-9.1	8.3	7,759	2.9	7.5
- 사무용 기기	761	4.8	0.4	84	32.5	0.5	471	23.0	0.5
- 의료용 기기	8,646	15.8	4.1	747	10.7	4.5	4,687	16.9	4.5
- 측정 제어 분석기기	11,145	13.1	5.2	985	7.0	6.0	5,846	13.0	5.7
- 전기 장비	20,630	35.0	9.7	1,991	15.3	12.1	11,090	16.9	10.7
· 건전지 및 축전지	4,342	52.0	2.0	499	30.4	3.0	2,527	34.3	2.4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5 대만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5월 당월			5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2,906	10.3	100.0	229	-5.2	100.0	1,063	-12.1	100.0
○ 전자부품	2,306	12.3	79.3	186	-4.1	81.2	849	-12.3	79.9
- 반도체	2,101	15.9	72.3	172	-1.9	75.0	783	-10.5	73.7
- 디스플레이 패널	65	-35.8	2.2	5	-12.2	2.3	23	-30.6	2.2
- 전자관	0	-24.8	0.0	0	37.0	0.0	0	5.3	0.0
- 수동부품	38	-9.9	1.3	3	-29.3	1.2	13	-27.6	1.2
- PCB	70	6.1	2.4	4	-34.0	1.7	20	-31.0	1.9
- 접속부품	31	2.2	1.1	2	-22.0	0.9	10	-24.2	1.0
- 기타 전자부품	0	-3.2	0.0	0	-24.4	0.0	0	-21.7	0.0
○ 컴퓨터 및 주변기기	249	5.2	8.6	16	-20.5	6.9	84	-14.6	7.9
- 컴퓨터	104	17.5	3.6	8	-0.2	3.4	35	-7.3	3.3
- 주변기기	145	-2.1	5.0	8	-33.7	3.5	48	-19.3	4.6
· 디스플레이장치	6	-7.0	0.2	1	0.0	0.2	2	-16.6	0.2
· 프린터(부품포함)	4	13.2	0.1	0	4.3	0.1	1	-10.4	0.1
· 보조기억장치	7	-13.9	0.2	1	-13.6	0.2	3	-12.2	0.3
· 저장 매체	87	-17.5	3.0	5	-34.6	2.2	25	-37.2	2.3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40	70.7	1.4	2	-45.7	0.7	17	29.2	1.6
○ 통신 및 방송기기	155	22.1	5.3	12	7.9	5.4	60	3.7	5.6
- 통신기기	140	24.8	4.8	11	7.6	4.9	54	4.7	5.1
· 유선통신기기	101	29.1	3.5	8	15.5	3.7	41	14.5	3.9
· 무선통신기기	39	14.9	1.3	3	-11.0	1.2	13	-17.3	1.2
- 방송국용 기기	15	12.4	0.5	1	10.2	0.5	6	-5.0	0.5
○ 영상 및 음향기기	55	-33.1	1.9	4	-14.6	1.8	19	-28.3	1.8
- 영상기기	49	-35.6	1.7	4	-14.7	1.6	17	-28.2	1.6
- 음향기기	5	-7.3	0.2	0	-18.0	0.2	2	-32.0	0.2
- 기타 영상음향기기	1	74.3	0.0	0	38.4	0.0	0	9.7	0.0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41	5.1	4.9	11	-7.1	4.7	51	-12.9	4.8
- 가정용 기기	27	2.1	0.9	2	-10.2	0.9	10	-13.9	0.9
- 사무용 기기	8	8.3	0.3	1	-5.4	0.3	3	-16.2	0.2
- 의료용 기기	7	3.9	0.3	1	6.3	0.3	3	-6.5	0.3
- 측정 제어 분석기기	45	5.5	1.6	3	0.6	1.5	17	-6.7	1.6
- 전기 장비	54	6.2	1.9	4	-13.4	1.8	19	-17.7	1.8
· 건전지 및 축전지	13	31.2	0.4	1	-19.3	0.3	4	-23.4	0.4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6 | 대만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금액	증가율	비중	5월 당월			5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535	6.7	100.0	103	-26.6	100.0	509	-24.2	100.0
○ 전자부품	1,157	7.6	75.4	75	-31.1	72.6	376	-27.3	73.8
- 반도체	1,042	8.8	67.8	67	-31.7	64.8	338	-27.5	66.4
- 디스플레이 패널	15	-18.6	1.0	1	-22.5	1.1	5	-21.8	1.0
- 전자관	0	-5.8	0.0	0	46.3	0.0	0	-0.1	0.0
- 수동부품	30	-10.9	1.9	2	-24.1	2.1	9	-35.1	1.8
- PCB	42	16.3	2.7	3	-29.5	2.6	14	-21.1	2.7
- 접속부품	26	-5.5	1.7	2	-23.4	1.9	9	-21.6	1.8
- 기타 전자부품	2	-4.9	0.1	0	-39.5	0.1	0	-30.6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92	0.0	6.0	6	-20.0	6.1	28	-29.3	5.4
- 컴퓨터	36	6.7	2.4	3	-27.9	2.5	10	-31.5	2.0
- 주변기기	56	-3.9	3.7	4	-13.2	3.6	17	-27.9	3.4
· 디스플레이장치	7	-9.3	0.5	1	-3.0	0.6	2	-23.0	0.5
· 프린터(부품포함)	4	-4.0	0.3	0	0.5	0.3	2	8.2	0.3
· 보조기억장치	10	-18.9	0.6	1	-17.2	0.6	3	-18.6	0.6
· 저장 매체	25	-5.4	1.7	2	-18.6	1.6	7	-40.1	1.4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10	29.7	0.7	1	-7.9	0.5	3	-16.6	0.5
○ 통신 및 방송기기	85	1.9	5.6	6	-14.0	5.5	31	-7.5	6.0
- 통신기기	81	6.1	5.3	5	-15.0	5.1	29	-8.1	5.7
· 유선통신기기	25	4.9	1.6	2	2.5	2.0	9	-11.9	1.8
· 무선통신기기	55	6.6	3.6	3	-23.3	3.1	20	-6.2	3.9
- 방송국용 기기	5	-0.5	0.3	0	3.9	0.4	2	3.9	0.4
○ 영상 및 음향기기	22	-12.6	1.4	1	-20.6	1.4	8	-24.6	1.5
- 영상기기	14	-18.5	0.9	1	-29.7	0.8	4	-32.0	0.9
- 음향기기	6	2.0	0.4	0	9.7	0.4	2	-11.5	0.4
- 기타 영상음향기기	3	-5.1	0.2	0	-21.9	0.1	1	-9.3	0.2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79	9.9	11.6	15	-4.5	14.4	67	-7.2	13.2
- 가정용 기기	43	6.6	2.8	4	0.8	3.9	16	-10.1	3.2
- 사무용 기기	2	24.5	0.2	0	-29.3	0.1	1	-21.8	0.1
- 의료용 기기	18	16.5	1.1	2	-0.3	1.5	8	10.1	1.5
- 측정 제어 분석기기	72	6.2	4.7	6	-6.2	5.5	26	-10.4	5.1
- 전기 장비	43	16.7	2.8	3	-7.9	3.4	16	-5.0	3.2
· 건전지 및 축전지	17	39.3	1.1	1	11.6	1.4	7	14.0	1.3

자료 : Uncomtrade, KITA



4

ICT 부문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수출)/구매(수입) 금액

표 3-17 ICT 부문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수출)/구매(수입) 금액

(단위 : 백만 원, %)

구분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가전·전자·통신기기		소프트웨어	
		금액	전년 동기비	금액	전년 동기비	금액	전년 동기비
직접판매 (수출)	2020	19,267	26.4	55,019	-41.4	1,071	17.8
	2021	15,008	-22.1	49,134	-10.7	1,005	-6.2
	2022	11,168	-25.6	60,029	22.2	287	-71.4
	2020.1/4	4,142	11.9	12,866	-40.0	183	22.0
	2/4	3,814	-5.5	14,052	-38.4	230	0.9
	3/4	7,722	110.4	14,965	-41.1	258	79.2
	4/4	3,589	-6.2	13,136	-45.7	400	3.4
	2021.1/4	4,239	2.3	10,759	-16.4	210	14.8
	2/4	4,450	16.7	17,117	21.8	225	-2.2
	3/4	3,612	-53.2	12,744	-14.8	235	-8.9
	4/4	2,707	-24.6	8,514	-35.2	335	-16.3
	2022.1/4	2,449	-42.2	47,739	343.7	88	-58.1
	2/4	2,867	-35.6	4,298	-74.9	63	-72.0
	3/4	2,824	-21.8	3,996	-68.6	90	-61.7
	4/4	3,028	11.9	3,996	-53.1	46	-86.3
	2023.1/4	3,026	23.6	4,334	-90.9	430	388.6
	2/4p	2,547	-11.2	7,648	77.9	39	-38.1
직접구매 (수입)	2020	52,136	4.0	338,031	-27.0	15,106	17.2
	2021	65,502	25.6	363,035	7.4	20,402	35.1
	2022	88,573	35.2	296,493	-18.3	12,724	-37.6
	2020.1/4	12,348	-6.3	90,812	-36.0	3,191	2.7
	2/4	11,167	6.4	73,828	-34.0	3,572	20.1
	3/4	9,492	0.9	59,015	-39.7	3,763	13.2
	4/4	19,129	12.2	114,376	2.6	4,580	31.4
	2021.1/4	19,096	54.6	131,603	44.9	6,856	114.9
	2/4	12,646	13.2	66,291	-10.2	4,170	16.7
	3/4	12,098	27.5	56,992	-3.4	3,839	2.0
	4/4	21,662	13.2	108,149	-5.4	5,537	20.9
	2022.1/4	24,298	27.2	77,508	-41.1	3,609	-47.4
	2/4	18,972	50.0	63,235	-4.6	3,107	-25.5
	3/4	20,429	68.9	72,027	26.4	2,997	-21.9
	4/4	24,874	14.8	83,723	-22.6	3,011	-45.6
	2023.1/4	28,757	18.4	89,519	15.5	3,246	-10.1
	2/4p	26,087	37.5	92,080	45.6	3,477	11.9

주 : p는 잠정치

자료 : 통계청

5 주요 ICT 부문별 수출입 금액 및 물량 지수

표 3-18 주요 ICT 부문별 수출 금액 및 물량 지수(2015=100)

구 분	반도체		전자표시장치		기타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정밀기기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2005	47.2	10.6	51.3	14.9	45.5	40.3	121.3	36.1	106.4	34.5	61.3	49.7
2006	52.5	14.2	76.1	29.1	55.9	48.5	110.5	43.0	104.4	40.8	55.1	45.6
2007	62.6	22.2	93.6	48.3	53.3	47.4	108.6	49.1	111.1	50.2	70.3	58.4
2008	52.6	23.8	89.4	51.1	63.1	59.2	95.7	50.8	124.5	62.8	91.6	78.4
2009	50.1	24.1	112.9	78.9	65.1	62.2	79.4	57.5	99.1	58.9	53.0	46.9
2010	81.3	38.3	144.2	100.5	85.3	81.3	94.5	69.1	92.3	60.3	69.9	62.9
2011	80.2	62.9	132.3	110.8	98.2	93.0	99.2	81.7	92.3	66.9	79.2	72.1
2012	79.7	87.7	125.0	108.9	118.5	113.2	105.3	88.5	77.6	63.8	89.8	80.6
2013	90.3	83.8	119.4	107.3	136.1	130.7	102.0	91.6	91.4	80.0	95.0	85.9
2014	99.4	89.8	116.1	111.9	116.5	112.2	95.3	89.5	96.8	86.6	100.4	92.9
20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6	99.1	115.7	75.5	83.8	91.6	99.2	103.7	108.2	91.8	92.4	104.2	110.0
2017	156.8	146.9	93.9	88.5	113.0	126.4	142.0	150.5	71.1	73.5	124.9	139.2
2018	203.6	177.6	75.8	86.6	106.5	112.5	137.4	153.5	61.5	67.7	137.8	154.7
2019	156.2	200.1	29.8	40.3	101.8	110.4	51.4	64.4	73.4	85.2	135.5	156.3
2020	171.8	240.4	23.7	33.6	105.7	117.8	46.8	59.3	70.9	82.9	135.4	165.6
2021	220.5	284.1	23.2	27.9	122.3	125.4	52.2	68.1	89.3	107.0	158.5	191.6
2022	222.7	328.8	23.6	37.8	121.5	109.4	52.1	72.1	87.1	110.7	157.0	187.9
'22.1월	217.8	294.7	29.4	42.0	123.8	106.5	67.1	88.1	85.8	102.2	151.9	183.0
2월	212.4	286.1	27.1	39.3	118.8	102.1	63.4	83.6	81.3	99.3	151.2	180.6
3월	269.3	360.6	32.5	47.9	136.7	116.8	68.1	90.2	105.0	128.1	180.9	215.8
4월	218.4	294.6	27.8	42.0	128.7	111.1	81.6	106.5	87.0	105.8	153.7	179.0
5월	236.4	319.6	26.1	40.5	130.4	113.3	69.3	90.8	71.1	87.4	159.6	187.0
6월	255.3	347.7	20.4	33.3	124.5	109.2	56.1	75.6	73.7	94.4	148.6	180.6
7월	234.0	344.8	22.5	37.0	125.9	110.4	38.7	51.8	73.6	95.4	148.9	175.6
8월	227.7	339.8	21.9	36.6	122.5	108.8	33.8	46.3	82.8	107.1	152.8	185.0
9월	243.7	373.0	18.1	31.2	122.9	109.5	43.1	60.8	102.0	133.9	171.4	208.0
10월	191.7	332.4	19.2	33.1	114.5	102.9	33.8	51.6	108.7	142.4	155.6	185.4
11월	177.6	312.3	18.4	31.5	108.4	115.6	27.9	42.6	101.5	135.6	150.1	179.7
12월	188.0	335.9	19.1	32.6	101.3	108.0	42.7	65.2	72.2	96.4	159.9	193.6
'23.1월	122.4	237.7	15.8	27.3	98.5	104.8	22.4	34.2	84.6	113.1	127.7	151.6
2월	122.9	244.5	17.5	30.3	92.3	98.4	21.4	33.7	67.3	89.5	143.3	171.5
3월	177.0	358.0	17.7	30.2	112.0	119.4	29.5	46.5	65.2	86.4	152.3	182.1
4월	128.8	290.8	17.8	29.9	94.7	100.7	20.5	32.3	63.2	83.7	134.6	157.0
5월	152.0	345.4	19.8	32.8	109.3	116.4	29.2	47.3	70.5	92.4	142.8	167.9
6월	183.8	422.8	17.9	29.1	109.2	116.4	24.7	40.2	65.3	85.4	149.0	177.7

자료 : 한국은행



표 3-19 주요 ICT 부문별 수입 금액 및 물량 지수(2015=100)

구 분	반도체		전자표시장치		기타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정밀기기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2005	65.7	26.7	50.9	22.2	89.9	50.9	69.1	42.9	45.3	31.5	64.5	56.6
2006	67.7	33.2	51.5	21.9	98.1	59.9	80.9	56.7	52.9	40.0	71.1	66.0
2007	79.2	44.0	55.5	24.2	103.1	67.6	88.8	66.4	54.5	43.6	71.7	66.3
2008	83.4	52.9	68.9	31.1	110.5	76.8	84.3	68.8	60.6	49.4	72.4	67.7
2009	70.0	49.3	56.2	33.7	105.5	79.1	74.5	67.5	47.4	40.9	60.4	56.5
2010	81.8	60.4	84.2	53.6	118.8	86.3	100.4	94.8	59.6	53.6	82.4	79.1
2011	85.9	68.8	83.8	61.8	121.9	97.8	101.1	95.1	75.1	68.8	93.0	85.8
2012	83.9	74.4	90.0	71.9	122.0	108.3	96.2	88.8	49.7	46.2	103.0	97.0
2013	90.3	82.5	80.9	72.0	133.5	120.7	98.0	95.7	54.7	52.4	97.2	92.5
2014	94.9	92.0	97.9	89.8	123.6	117.9	103.7	101.3	80.2	78.7	99.7	94.5
20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6	95.2	96.7	76.2	83.9	86.5	91.5	109.9	111.1	106.3	108.9	100.8	100.0
2017	107.4	109.9	95.2	104.1	100.0	110.3	130.4	134.2	115.5	125.3	119.7	118.3
2018	115.3	119.7	105.5	134.1	96.1	105.2	140.6	143.7	114.5	130.1	124.6	121.6
2019	123.2	154.0	34.0	41.6	94.0	103.8	122.1	127.4	139.4	158.3	117.4	115.8
2020	135.9	184.8	29.3	34.5	100.4	111.7	136.0	140.9	127.2	152.4	122.8	121.8
2021	166.9	228.6	29.1	24.4	133.0	139.6	167.6	171.5	143.2	170.9	142.1	137.2
2022	204.2	298.7	35.2	51.9	131.2	137.5	171.4	178.0	135.2	167.3	144.5	144.9
'22.1월	187.8	263.0	46.4	51.4	137.2	140.9	239.5	243.6	127.7	152.2	135.4	132.4
2월	180.3	252.5	41.2	48.0	121.0	124.0	182.9	186.1	120.1	142.9	131.0	126.8
3월	197.5	276.5	37.9	45.9	138.2	141.8	194.3	199.2	154.8	184.6	150.8	146.1
4월	186.1	261.6	37.1	47.0	138.9	142.8	172.8	178.2	137.3	167.7	150.6	146.4
5월	196.7	277.8	38.2	52.0	136.4	143.8	166.4	172.3	142.8	176.6	141.9	140.0
6월	218.6	309.2	33.6	50.0	141.0	148.9	145.1	151.1	126.8	156.5	148.5	147.9
7월	220.4	327.0	28.5	44.9	135.5	143.7	170.6	178.5	122.9	151.7	149.1	149.8
8월	220.6	328.2	35.0	58.4	132.5	140.5	148.3	154.1	156.6	195.8	143.8	145.8
9월	216.0	323.9	31.8	55.5	132.3	140.6	183.8	193.4	121.1	152.0	135.5	138.3
10월	215.7	337.9	30.8	55.4	130.8	137.7	153.7	162.4	206.4	260.4	142.2	146.3
11월	224.8	346.2	30.2	55.2	119.9	126.1	154.5	162.1	107.2	137.8	141.6	148.3
12월	186.3	285.2	31.3	58.4	110.9	117.3	144.6	150.6	98.8	127.1	163.6	169.6
'23.1월	168.1	264.0	38.9	73.6	117.0	123.2	209.2	216.3	153.6	198.2	153.1	156.6
2월	160.3	252.8	32.1	60.6	104.7	109.3	203.4	209.1	109.9	143.2	121.4	123.9
3월	177.0	283.3	43.1	80.3	115.3	120.4	157.1	160.9	111.1	145.2	150.1	153.5
4월	155.5	258.4	36.7	67.5	102.4	107.8	122.5	125.8	100.0	129.6	143.7	146.5
5월	164.6	278.2	30.5	55.7	103.9	109.4	131.8	135.4	104.3	135.5	136.8	140.0
6월	175.0	296.1	32.1	58.3	109.8	116.9	121.6	125.9	106.3	137.9	146.3	149.8

자료 : 한국은행

“월간 ICT 산업 동향”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미래정책단 동향분석팀에서 수행하는 “ICT 동향분석 및 정책지원” 사업 결과의 일부로 산출된 것입니다.

총괄 책임 임진국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미래정책단장)

과제 책임 허창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동향분석팀장)

참여연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동향분석팀

조성선, 이효은, 도승희, 고은영, 유영신, 반치호, 최동렬, 임양섭,
장예지, 김채리, 김도현, 윤종혁

위촉연구원 최경석, 이유리, 이윤희

월간 ICT 산업 동향 2023-8호

발 행 일 : 2023년 8월 31일

저 자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동향분석팀

발 행 인 : 전성배(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발 행 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화암동)

전 화 : 042) 612-8240, 팩스 : 042) 612-8209

홈페이지 : www.iitp.kr

본 저작물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금지)으로 개방하였으며, 기관 홈페이지(www.iitp.kr)에서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자료의 내용을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